

통권 제34호 | 2019

# 횡성문화



횡성문화원



# 문 | 화 | 비 | 전 | 선 | 언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는 문화시대에 살면서 세계인과 한 가족으로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책무를 지닌다.

지방문화원은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육성, 문화예술교육 기회의 제공, 문화자원의 확보와 활용에 앞장서 온 지역문화발전의 주역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제 인간의 창의성 계발, 우리 문화의 세계화, 지방분권에 따른 문화적 책임 등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선도하는 문화원이 되기 위해 역할의 재정립을 가다듬어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도약을 다짐하는 뜻에서 '문화원의 날'을 재정하고 우리의 공고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여러 문화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다.

하나 | 지방문화원은 이 시대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식정보와 다문화 시대의 매개자가 된다.

하나 | 지방문화원은 일회적·단기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장기적인 활동을 추진한다.

하나 | 지방문화원은 문화경영의 전문조직으로 적극 육성한다.

대한민국 230개 지방문화원 임직원 일동





황성문화원장

분주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서른네 번째 ‘황성문화’를 발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토지 ‘황성문화’ 발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원고를 보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문화원은 4·1황성군민 만세운동 100주년 행사, 관내·외 문화유적 답사, 문화학교운영(14개 분야), 전통문화 체험, 향토사 발굴 및 사료집 발간, 어르신 노래자랑, 전통국악 대공연, 전시회 및 발표회, 각종 대회 참가 등 바쁜 한 해를 보냈습니다.

특히 4·1황성군민만세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를 통하여 애국의 고장 황성을 조명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묻혀진 향토사 및 황성의 역사 인물 발굴에도 노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원 구성원들은 소명의식을 갖고 고유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다짐합니다.

좋은 향토지가 나오도록 애써주신 편집위원님들, 그리고 황성문화원 발전에 힘써주신 임원님, 회원님 그리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져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9. 12.

황성문화원장 박 순 업



# 태기산(泰岐山)의 일출(日出)

김성수 시인 (문화원 회원)

태기산이 밝아온다

지난 밤 어둠을 밀어내고

찬란한 새 아침의 문이 열린다

1261미터의 준봉(峻峰)인 태기산은

우리 황성의 모성(母性)의 산이다

여기서 뻗어나간 산자락들이

다정히 어깨동무를 한 사이로

오순도순 마을을 이루어

수천년 동안 인정을 꽃피워 왔다

아침 마다 등푸른 산의 정상에

동해의 빛난 해를 건져 올려

찬란한 새날을 열어주고

저녁에는 아름다운 낙조(落照)로

꿈을 덮어주는 모성의 산

진한의 마지막 임금

태기왕의 애달픈 전설과,

천년을 울려 온 봉복사의 종소리,

맑고 푸른 마음으로

희망을 실어 나르는 계곡물,

조국을 위해 순국한 고두미재의

경찰 전적비...

태기산에 서려 있는 온갖 사연들은

우리 역사의 생생한 기록이다

온갖 고초를 건디면서도 사랑을 다하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태기산은 언제나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안겨주고 있다

생명의 젓줄인 아름다운 주천강이  
여기서 발원하고  
산 정상에는 수십 기의 풍력발전기가  
우리의 푸른 이상을 감아올린다  
장엄하면서도 험준하지 않고  
부드러우면서도 유약하지 않은  
저 푸른 능선의 다정함이어!  
태기산은 횡성을 지켜주는  
정겨운 모성의 산이다

그러기에  
태기산의 신비한 저 일출(日出)은  
어머니의 나직한 속삭임과도 같다  
어서 잠깨어 새날을 열어 가라는  
다정한 목소리와도 같다.



金性洙 詩人

- \* 1944년 횡성군 우천면 산전리 출생
- \* 조선일보신춘문예 당선
- \* 이육사문학상, 강원도문화상, 강원예술대상,  
대한민국예술상, 동곡상 등 수상
- \* 저서 : '시가 흐르는 섬강' 외 시집 17권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 시작품 수록됨
- \* 강원문협 자문위원, 원주문협 고문
- \* 현재 횡성문화원 회원.

# 태기산의 사계



photographer--lee kye cheol

태기산의 봄



photographer--lee kye cheol

태기산의 여름

# 태기산의 사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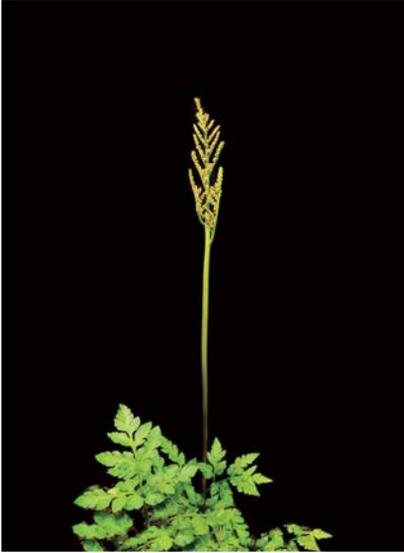


태기산의 가을



태기산의 겨울

## 태기산의 야생화



고사리삼



용담



은방울꽃



천마

## 태기산의 야생화



노루귀



매화노루발



머느리밥풀



모데미풀

# 태기산의 야생화



모시대



복수초



삐꼭나리



수정난초

## 태기산의 야생화



엘레지



제비등자꽃



처녀치마



좁쌀풀

# 태기산의 야생화



청노루귀



큰까치수염



투구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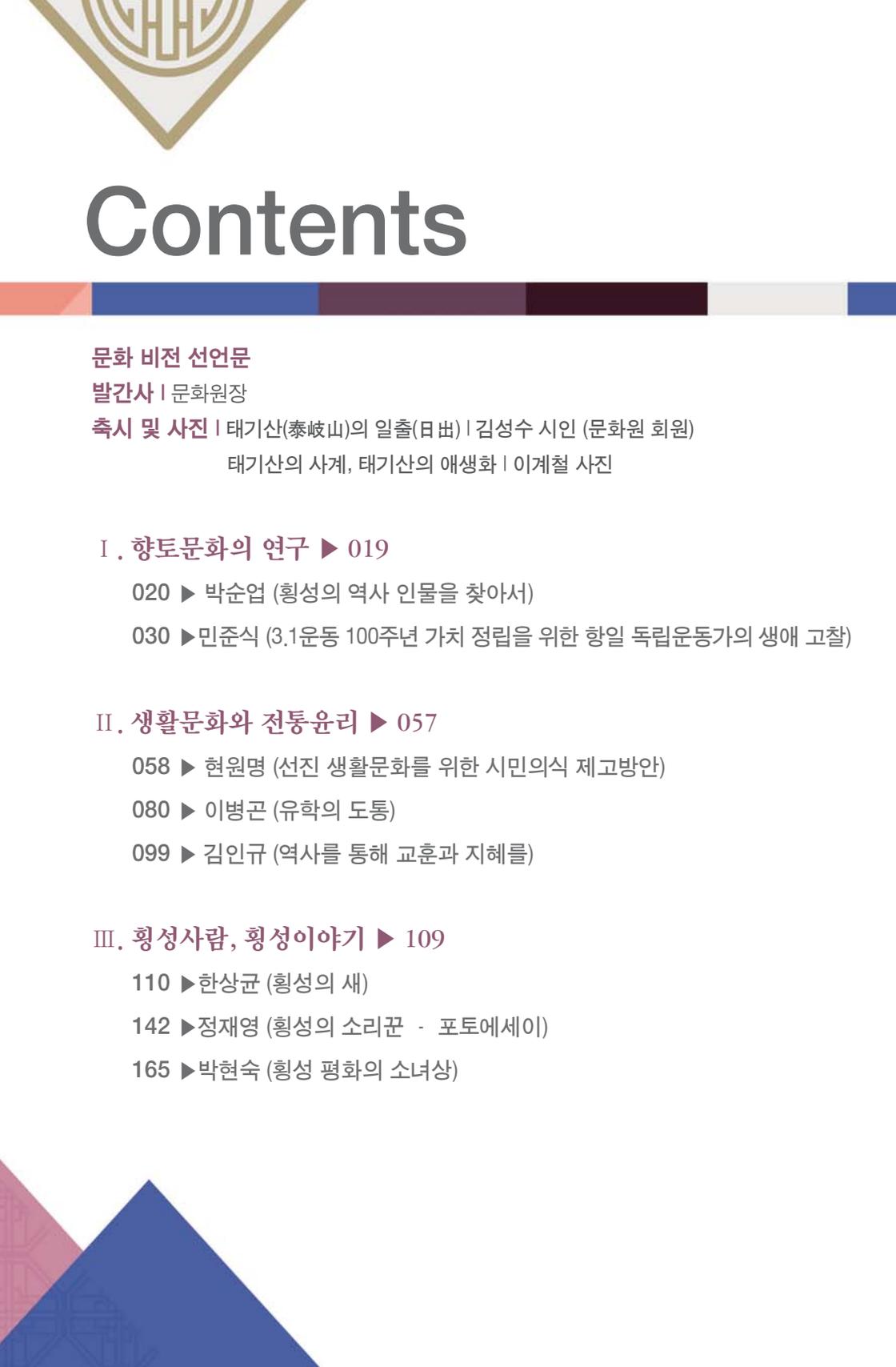
하늘말라리



## 이 계 철

- 전) 그린피아(주) 대표
- 제천관광사진공모전 금상
- 고창관광사진공모전 금상
- 전주관광사진공모전 금상 외 입상, 입선 다수
-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





# Contents

## 문화 비전 선언문

발간사 | 문화원장

축시 및 사진 | 태기산(泰岐山)의 일출(日出) | 김성수 시인 (문화원 회원)

태기산의 사계, 태기산의 애생화 | 이계철 사진

## I. 향토문화의 연구 ▶ 019

020 ▶ 박순업 (횡성의 역사 인물을 찾아서)

030 ▶ 민준식 (3.1운동 100주년 가치 정립을 위한 항일 독립운동가의 생애 고찰)

## II. 생활문화와 전통윤리 ▶ 057

058 ▶ 현원명 (선진 생활문화를 위한 시민의식 제고방안)

080 ▶ 이병곤 (유학의 도통)

099 ▶ 김인규 (역사를 통해 교훈과 지혜를)

## III. 횡성사람, 횡성이야기 ▶ 109

110 ▶ 한상균 (횡성의 새)

142 ▶ 정재영 (횡성의 소리꾼 · 포토에세이)

165 ▶ 박현숙 (횡성 평화의 소녀상)

#### IV. 문화유산을 찾아서 ▶ 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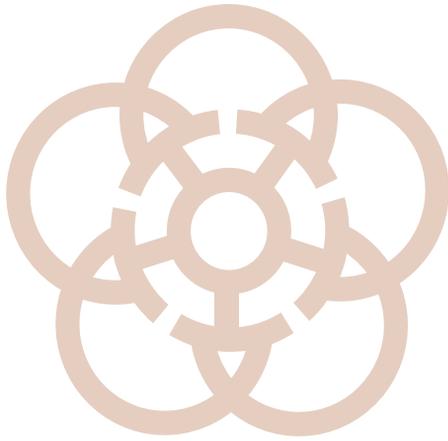
- 172 ▶ 윤병철 (남해, 사천, 진주일원)
- 180 ▶ 김미애 (대마도- 덕혜옹주를 생각하다)
- 184 ▶ 김종성 (단양)
- 194 ▶ 이연숙 (호숫길, 국순당)
- 206 ▶ 손진경 (관외문화탐방 거제도 1박2일)
- 210 ▶ 김철수 (향토문화답사기 -독재봉, 영월 고씨동굴)  
-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낫다’
- 214 ▶ 횡성문화탐방기행 -민족사관고등학교 (박지영, 권기수, 오다운)
- 225 ▶ 횡성문화탐방기행 -횡성고등학교 (신준섭)

#### V. 문예마당 ▶ 227

- 228 ▶ 최보정 (시 : 또 하나의 소실점, 꽃)
- 230 ▶ 임청근 (수필 : 뿌리)
- 233 ▶ 전창수 (수필: 집으로 가는길)
- 237 ▶ 박성건 (시 : GOP 군인의 변)
- 238 ▶ 4.1만세운동 100주년기념 전국 한글백일장 작품  
시-초등부, 중고등부, 일반부  
산문-초등부, 중고등부, 일반부 장원

#### VI. 문화원 소식 ▶ 251

- 252 ▶ 2019년 문화원 사업실적



[www.hs-culture.or.kr](http://www.hs-culture.or.kr)

# I. 향토문화의 연구



- \* 횡성의 역사인물을 찾아서 | 박순업
- \* 3.1운동 100주년 가치 정립을 위한  
향일 독립운동가의 생애 고찰 | 민준식

## 2019 관내 향토사료 발굴 자료조사

# 횡성의 역사 인물을 찾아서



박순엽 (문화원장)

### I. 시작하며

지역마다 유구한 역사 속에 수많은 업적을 남기고 훌륭히 살다 간 인물들이 많다. 위인들 중에는 학자들에 의한 심층 연구로 교과서, 영상자료, 각종 간행물 등에서 자주 접하게 되어 유명 역사인물이 되었고 그 인지도가 높아졌다. 조선시대 훌륭한 재상으로 황희, 맹사성, 이항복, 이덕형, 류성룡 등이 한 예이다.

그러나 이렇게 널리 알려진 인물 못지않게 군세가 약한 우리지역에도 묻혀 있는 훌륭한 역사 인물이 많다. 다만 알려지지 않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 문화원은 이를 발굴 선양하기 위하여 노력해

오고 있다. 올해는 “2019 관내 향토사료발굴 자료조사”라는 명목으로 조선 중기 고분 2기의 주인공을 조명해 보고자 문화원 임원들과 함께 그 유적을 답사하였다.

(답사일: 2019.9.27.금. 11:00~16:00)



정종영 초상화

## 1. 고분 I

\* 위치 : 횡성군 공근면 공근리

\* 주인공 : 정종영(1513 중종8년~1589 선조22년)

### (1) 일생

조선 중기 문신, 자는 인길(仁吉), 호는 항제(恒齊), 본관은 초계(草溪)이다. 조선 중기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국리민복을 추구했던 위대한 관리가 항제 정종영이다. 일찍이 김안국(金安國)의 문하에서 학문에 정진하여 1540년 사마(司馬)의 양시(兩試)에 합격하였고 1543년 문과에 급제하여 승정원 정자로 출사한 이후 중종, 인종, 명종, 선조까지 네 임금의 모시며 47년간 관리생활을 하였다. 학식과 덕망을 갖추고 금석과 같은 의지로 강원, 경상, 전라, 평안 관찰사, 한성판윤겸, 도총관 등 중요관직을 역임한 후 육조판서와 우찬성을 거치면서 동서분당 시 어느 쪽에도 가담하지 않은 공은 청백리에 녹선 되었고 팔계군(八溪君)에 봉군되었다. 국리민복에 헌신하였던 공이 77세로 세상을 떠나자 선조는 예관을 보내 장례를 지내도록 하고 3일간 정사를 보지 않았다. 정종영은 횡성 공근리에 매장되었다.

### (2) 묘역



정종영 묘소

오음산을 중조산(中祖山)으로 한 명당으로 주산의 강한 지맥(地脈)으로 이루어지고 청룡, 백호, 안산이 잘 조화된 형국을 이루고 있다.

### (3) 별묘(別廟) 및 재실(齋室)

별묘는 1729년 삼연당(三然堂) 자리에 준공하였고 1836년, 1989년, 2015년 보수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재실은 1730년에 완공하였으며 1989년 벽돌을 사용해 개축함으로써 옛 모습을 잃었으나 사랑채는 아직 옛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정종영 별묘 및 재실

### (4) 신도비(神道碑)

신도비문은 홍문관 대제학 이단하(李端夏)가 짓고, 정창수가 썼으며 정륜(鄭鎭)이 전서하여 1707년 건립하였다. 신도비문은 택당 이식(李植)선생께서 작성하시다 돌아가셔서 그 아드님인 이단하 선생이 마주 작성하였다.



정종영 신도비

### (5) 장양공(莊襄公) 윤겸(允謙)의 부조묘(不佞廟)와 정현구의 효정각(孝旌閣)

횡성군 공근면 학담2리 초당동인 이곳에 정종영의 장손인 팔천군(八川君) 기광(基廣)이 강원감사를 지낸 뒤 1613년 벽옥정(碧玉亭)이라는 정자를 짓고 여생을 보냈으며 그 후 기광의 장손 수명(洙明)이 6고를 수령을 지내고 영월 부사를 지내다가 낙향, 본격적으로 이곳을 개척하였다. 청유를 끌어들이어 연못을 파고 화목을 심어 자연미에 인공미를 더하여 훌륭한 터전을 닦았다. 수명은 조상을 공경하여 장양공의 부조묘를 이곳에 증건하고 현재의 사랑채를 건축하여 여생을 보냈다.



장양공 윤겸의 부조묘와 정현구의 효정각

## (6) 공근면의 지명 유래

공근면의 지명은 팔계군 항제 정종영의 묘 형국이 마치 공 자형(公子形)으로 되어 있고, '정종영이 영면한 자리' 즉 영원히 뿌리박은 자리라 하여 공근이라는 지명이 유래되었다고 하며, 영조36년(1760년)에 편찬한 여지도서(輿地圖書)에서 서공근면으로 표시되어 있다. (2013년 발행 공근 면지 참조)

## (7) 횡성과 정종영

정종영은 1513년(중종8년) 원주 봉산동(배말)에서 태어났지만 각종 관직으로 인하여 한양을 비롯하여 타지 생활을 하다 낙향, 1599년(선조22년) 8월 11일 별세, 횡성 공근리에 매장되었으니 그곳에 잠든 지 420년이 흘렀다.

또한 강원감사를 지낸 공의 장손 기광이 1613년 횡성 공근면 학담2리 초당동에 정착 지금까지 406년 동안 후손이 터전을 이어오고 있으니 횡성이 세거지로 인연이 깊다.

## 2. 고분 II

\*위치 : 횡성군 횡성읍 정암 3리

\*주인공 : 고흥산(1453 단종1년-1528 중종23)

### (1)일생

공의 휘(諱)는 형산(荊山) 호는 하계(荷溪) 시호(諡號)는 익장(翼莊)이다. 제주 고씨 화전군파는 고계연-고인비-고종규-고영-고천세-고용경-고습-고사민 · 고사준 · 고사신-고향산 · 고흥산으로 가계가 이어졌으며 1453년(단종 1년)에 태어나 1480년(성종11년) 사마시에 합격하고 30세가 되던 1483년 (성종14) 식년시 병과에 급제하여 지평현감, 함경도 도사, 축성사 종사관, 사헌부 장령, 해주 목사, 함경남 · 북도 절도사, 함경. 강원 관찰사, 전운사, 한성판윤, 6조판서, 사헌부대사헌, 의정부 우찬성, 평안도 순찰사, 삼도체찰사, 판중추부사를 역임하며 임금의 전폭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위민행정을 펼치다 1528년(중종23) 11월 23일 별세하니 1529년 2월18일에 국가에서 그 상(喪)을 맡아 고향인 망백산 곤좌에 예장을 하였으며 사방 10리를 사패지로 하사하였다.



고형산의 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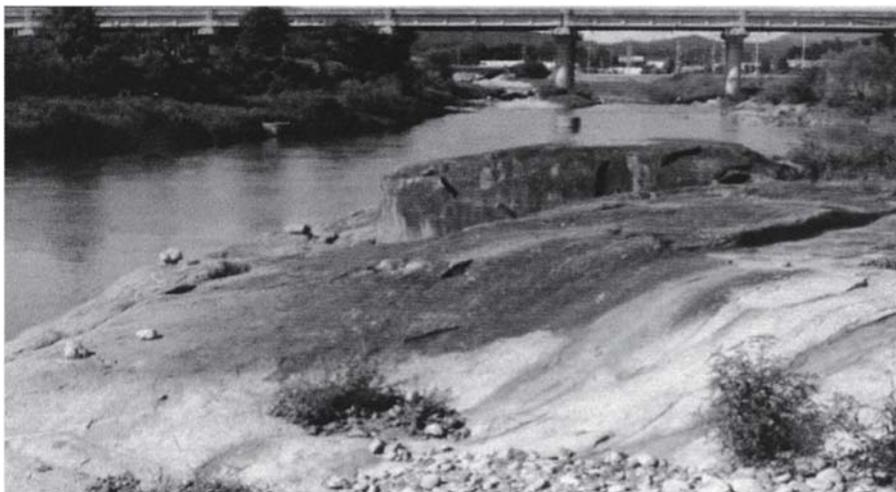
## (2) 묘역

황성읍 정암3리 망백마을 야산에는 공의 선대 산소가 원형대로 있어 이곳이 세계지임을 알 수 있다. 산소는 증 좌찬성 부친(사신)이 문헌 아래, 부인 파평윤 씨와 합봉되어 있다.

## (3) 전래되는 이야기

### \*고판서와 도깨비 전설

황성읍 마산리와 생운리 사이의 마을 앞을 굽이쳐 흐르는 전천에 통통바위라는 큰 바위가 있는데, 옛날 이곳에는 고씨 성을 가진 젊은이가 매일마다 이곳을 지나 청룡리 서당으로 글을 배우러 다녔다고 한다. 워낙 머리가 총명하고 재능이 뛰어난 이 소년은 서당 훈장이 하나를 가르치면 서너가지를 알 정도였다. 어느 날 이 소년은 서당에서 오는 길에 이 바위에 들러 놀다가 잠깐 바위 위에서 잠이 들고 말았다. 얼마만큼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소년은 비몽사몽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통통바위의 옛모습(바위가 있는 곳은 생운리 쪽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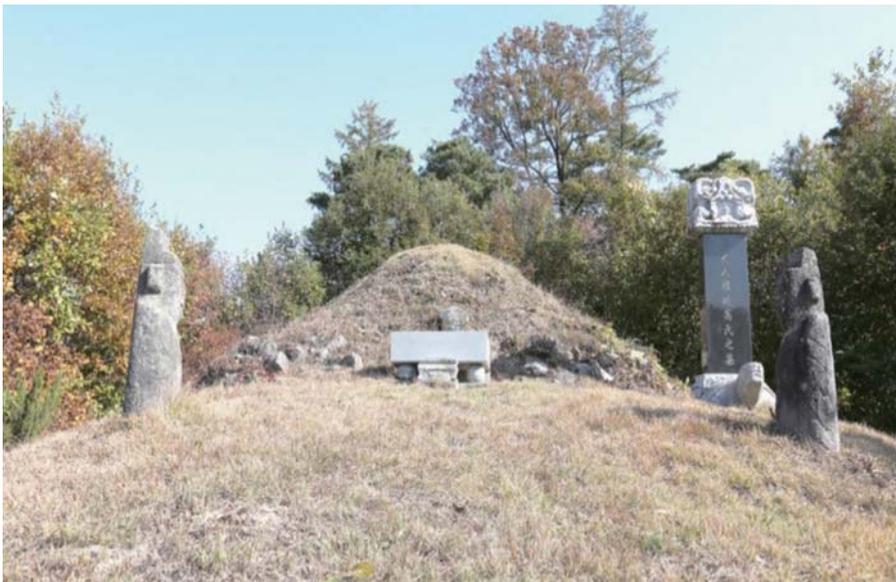
“쉿! 조용히 해. 고관서께서 주무신다.” “잠을 깨면 큰일 난다.”

눈을 번쩍 뜬 소년은 주위를 살펴보았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물소리만이 전처럼 그렇게 들려올 뿐이었다.

이 소년이 바로 황성의 인물로 꼽히는 고행산이라는 분이였다.

### \*숫을묘

황성읍 조곡리 안마을에는 고관서 조모의 숫을 묘가 있는데, 고관서가 과거에 급제 큰 출세를 하여 세상이 떠들썩하게 삼형육각을 울리며 금의환향을 하는 소리가 들려오자 고관서 조모의 봉분이 갑자기 땅위로 다섯자는 숫아 올랐다고 한다. 나지막한 야산 이곳에는 2기의 묘가 자리 잡고 있는데, 아래쪽 묘는 고사신(고행산의 부친)의 만형인 고사민의 묘이며, 위쪽에 있는 묘는 고행산의 조모인 황성고씨 묘이다.



황성고씨 묘

## \*고형산과 강릉 대관령길

중종 때 강원관찰사 재직 시 사람이 하나 겨우 다니던 길을 우마차가 다닐 수 있도록 고형산이 넓혀 놓았다고 한다.



## II. 마치며

횡성에는 조선 중기 명재상, 정종영과 고형산의 묘소가 있다. 정종영은 중종8년(1513)에 태어났으니 고형산은 이 때 이미 60세로 한성판윤, 호조판서, 사헌부 대사헌, 공조판서를 역임, 중종의 신임을 한 몸에 받고 백성의 편에서 위민 행정을 펼칠 때이다.

정종영은 6조판서와 우찬성,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를 지낸 고형산이 별세한지 2년 후인 1530년(중종25) 사마시를 거쳐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여러 관직을 거쳐 4도 관찰사와 6조판서 우찬성을 거쳤을 뿐 아니라 청백리에 녹

선되었고 팔계군에 봉군되었다. 이렇게 두 인물은 60년의 차이로 6조판서와 우찬성 등 명재상으로 정종영은 중종, 인종, 명종, 선조 때, 고흥산은 성종, 연산군, 중종 때 이름을 날렸다. 그러나 고흥산은 대가 끊겨 후세에 의한 선양작업이 이루어짐이 부족하였지만 정종영은 자손이 대대로 번성하여 그 유적이 잘 보존되어 있다. 이렇듯 횡성에는 400년 이전부터 조선 중기 명재상의 묘소2기가 존재해 왔으나 무관심 속에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름 발굴 선양하고자 횡성의 역사인물을 찾아서 답사를 하게 되었다.

# 3·1운동 100주년 가치 정립을 위한 항일 독립운동가의 생애 고찰

- 대한공명단 최양옥 지사를 중심으로 -



사무국장 민준식

## I. 서론

### 1. 시작하며

1919년 서울에서 시작된 3.1운동은 남녀노소 각계각층이 망라된 민족 독립 운동이었다. 무자비한 탄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4,5월까지 이어졌으며 목숨 걸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이 운동으로 온갖 어려움과 희생을 무릅쓰고 온 몸으로 맞서 저항한 수많은 애국지사들을 탄생시켰다.

3.1운동 1세기를 맞으면서 중앙 정부 및 시·군 지방자치 단체마다 이 날을 잊지 말자며 100주년 기념행사에 열을 올렸었다. 이는 아픈 역사를 딛고 희망적인 미래를 위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 최선을 다하지는 후대사람의 결의인 것이다. 그러나 지속적이고 끈질긴 연구와 후속 조치 없이 일회성 행사를 하고 곧 잊는 것은 100주년 기념행사의 의미가 퇴색될 것이며, 뜨거워졌다 금방 식는 양은냄비의 속성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도 위안부, 징용, 역사 왜곡 등 한·일 관계의 아픈 과거는 아직 미완으로 남아 있으며 피맺힌 한을 지닌 피해자들이 고통으로 증거가 소멸 되어 가고 있다.

장기적으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역사교육 강화와 목숨 걸고 항거하였던 아픈 흔적들이 인멸되기 전에 항일향토사를 연구, 발굴, 기록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한 때이다.

일제강점기 동안 전국적으로 의병항쟁, 3.1운동, 그리고 이후 국내외에서 싸운 항일 애국지사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황성지역사회만 하여도 이 기간 모든 것을 바쳐 싸운 애국지사가 많기에 이곳 사람들은 황성을 애국의 고장이라 부르고 있다.

그 중 황성 출신 최양옥 지사는 서울과 황성 3.1운동 참여를 시작으로 모든 희생을 무릅쓰고 평생 항일 독립운동에 몸 바쳤었는데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그 가치 정립을 위해 조명해 보고자 하였다.

## 2. 최양옥 지사의 출생과 성장 배경

황성군 갑천면 화전리에서 구한말 법부 주사를 지낸 강릉최씨 재건(在建)과 진주강씨 사이에서 4남 4녀의 맏이로 태어난 지사는 귀동(貴童)으로 대우 받고 호의호식하며 행복하게 자랐다. 15세에 황성군 안흥면 상안리의 안씨와 결혼을 하였고 신문학에 눈을 뜬 부친의 교육열에 힘입어 1913년 20세에 원주보통학교에 입학, 24세가 되던 1917년에 졸업을 하고 서울 중동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26세가 되던 중동중학교 3학년 때 서울에서 3.1운동이 일어나자 만세운동에 동참하고 황성에 내려와 황성 4.1만세운동에 앞장섰다.

## 3. 독립운동가 신덕영과의 운명적 만남

3.1운동이 발발하였던 1919년 지사는 서울 입정정(笠井町)에 위치한 부친의 친구인 신병선의 집에 유숙하였다. 그 곳에서 지사는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펼치다 돌아온 신병선의 아들 신덕영을 만나게 되었다. 민족의식을 불어넣으며 독립운동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는 그의 설득에 의기투합하여 평생 가시밭길 독립운동의 길을 걷는 계기가 되었다.

황성4·1만세운동 후 지사는 서울로 오라는 신덕영의 편지를 받고 음력 5월 3일 상경, 대동단(총재 김가진)에 입단 하고 신덕영의 집에 동거하였다. 신덕영



## II. 본론

### 1. 대동단 활동

군자금 모금원을 여러 반으로 나누어 1반은 박일봉, 이운호로 편성하고 2반은 최양옥지사를 비롯하여 신덕영, 노기준으로 편성해 담양과 곡성 방면을 맡겨서 많은 군자금을 모아 상하이의 임시정부로 보냈다.<sup>2)</sup>

대동단원들이 독립자금 모금활동을 한창하고 있을 때 왜경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추적을 받기 시작하였다. 결국 지사는 1920년 11월 5일 전남 광주로 가던 도중 노기준과 함께 체포되었다. 지사가 체포된 후 신덕영과 다른 대동단 조선 지부원들 대부분이 체포되었다. 공판에서 지사와 대동단 조선지부의 단원들은 독립운동을 하였다는 것을 뚝뚝이 밝혔다. 지사는 1921년 5월 31일 광주지방법원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받고 항소하였으나 1921년 12월 13일 대구복심법원 판결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되었다.<sup>3)</sup>

지사는 7년형을 받았지만 1924년 소위 은사에 의해 징역 5년으로 감형되어 1926년 11월 15일 대구형무소에서 나왔다.

### 2. 출옥 후의 행적

출옥 후 원주군 소초면 둔둔리(당시 횡성 화전리에서 둔둔리로 이주) 집에 오니 부친은 4개월 전에 별세하였고 가족들은 사망으로 흩어져 가정 형편은 말할 수 없이 비참하였다.

가족을 돌보며 농사일을 하고 있는데 “평생 가족과 잘 먹고 살게 해 줄테니 가만히 있으라”는 일경의 회유와 “이제는 독립운동 할 만큼 하였으니 8남매의 장남으로서 처자식과 어린 동생 등 가정 좀 돌보라는” 가족의 눈물어린 간곡한 청도 있었다.

2) 「한민족독립운동사 자료집」 41권, 114쪽.

3)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1921.5.31.).

지사가 1년 5개월 쯤 가정을 안정시키며 돌보고 있을 때 허베이성(河北省) 스좌장(石家莊)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신덕영으로부터 동지를 필요로 하니 빨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지사는 가족의 만류에도 떠나기로 결심을 하고 우선 피눈물을 흘리며 어린 두 딸이 있는 부인과 이혼을 하였다. 그 이유는 자기가 큰 뜻을 품고 해외로 건너가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함에 자기 장래가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sup>4)</sup>

지사는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 결국에는 산시성 타이위안에서 신덕영을 만나 신덕영의 집으로 가서 함께 거주하며 계획을 추진해 갔다.



안온한 생활 못하겠다고 품은 뜻 말하고 이혼 후 출향 (동아일보 1929.04)

### 3. 대한독립공명단 창설

지사는 1928년 음력 6월에서 9월 사이에 타이위안(太原)에서 신덕영, 조국독립운동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비행사 안창남, 김정연 등과 함께 ‘함께 소리 내어 알린다’는 공명(共鳴)의 의미를 따서 대한독립공명단(大韓獨立共鳴)을 조직하였다.

4) 동아일보기자,(1929.4.22.).

대한독립공명단은 단장<sup>5)</sup>, 부단장, 재정부, 정치부, 군사부를 두고 있었으며 지사가 단장으로 피선 된 것으로 보인다.

대한독립공명단은 독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국의 장제스(蔣介石), 옌시산(閻石山)등에게 원조를 받고 국내 유지로부터 지원을 받아 150만원 정도의 자금을 마련하여 중국의 난징(南京), 산시, 바오터우(包頭)의 세 곳에 무관 학교를 세우고 청년 장교를 교육시켜 5개사단 75,000명의 병사를 양성하려고 작정하였다. 그리고 군인이 양성되면 40,000명의 병력을 함경북도로 침입시키고 35,000명의 병력을 평안북도 방향으로 침입시켜 일본과의 전면전을 일으키고 독립군이 중국, 소련지역으로 도피하여 일본군이 추적해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일본과 중국, 소련과의 전쟁을 유도하려 하였다. 공명단은 이 거대한 독립운동을 실현하는데 10년에서 20년이 걸릴지라도 계속 수행하기로 다짐하였다.<sup>6)</sup>

지사는 공명단의 독립운동을 실현하기 위해 먼저 단원의 확보에 주력, 김정련의 추천을 받아 이선구를 가입시켰으며 베이징 순지문 밖에 거주하며 선생과 김정련의 충을 맡아주었던 김정환(金政晔)을 비롯하여 이일재(李一載), 장동석(鄭東錫), 이용화(李容華), 이의재(李義載), 도중현(盧仲鉉), 이화(李華) 등도 공명단원이었다고 한다.<sup>7)</sup>

#### 4. 독립운동자금 마련을 위한 공명단원의 국내 잠입

독립운동을 실현하기 위해서 공명단은 먼저 독립운동자금을 마련하는데 착수하였다. 안창남은 외교적 활동으로 자신이 비행사로 있던 산시성의 옌시산의 후원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김정련은 베이징 시장 허지공을 만나 자금지원을 부탁하려 하였으나 그가 체포됨으로써 수포로 그쳤다.

5) 「독립운동사」 7권, 「의열항쟁사」 674쪽에는 공명단은 중국 산서성 태원부를 근거로 최양옥이 동지인 안창남, 신덕영, 김정련 등과 더불어 조직한 것으로 단장에는 최양옥이 피선되었다 하였고 지사 자신도 「수기원고」에서 나는 단장이라고 정역10년, 김정련은 8년, 이선구 7년씩 받았다고 하였다.

6) 「한민족독립운동사 자료집」 41권 110쪽.

7) 조규태, 2004, 「대한독립공명단의 의혈투쟁과 서대문감옥」, 68쪽

독립운동자금 확보가 여의치 않게 되자 1928년 음력 9월 하순 지사는 안창남, 신덕영, 김정련 등과 만나 국내에 사람을 파견하여 독립운동자금을 마련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 으며, 그 방법으로 지사는 경춘가도의 우편차량을 탈취하여 한 번에 20~30만원 정도의 자금을 마련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래서 그 일을 지사 자신과 김정련이 추진하도록 하였고 안창남으로 부터 콜트식 권총 1정과 탄환 14발, 모젤권총 1정과 탄환 10발을 수령하였다. 이때 김정련도 로얄 자동권총 1정과 탄환 12발을 수령하였다.<sup>8)</sup>

1928년 말 타이위안에 있던 지사는 다음해인 1929년 5월 서울에서 산업박람회 가 열리므로 서울에 들어가 일본의 고관과 관헌을 살해하고 또 송금차량을 탈취하여 한꺼번에 거액의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기로 작정하였다.

지사는 하이둥여관(海東旅館)에서 김정련과 이선구를 자주만나 경춘가도의 송금차량 탈취의거에 대한 방법을 모의하고 구체적인 실행방법은 현장에서 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지사는 1929년 4월 8일 오후 2시경 권총 2정과 실탄 22발을 양복 안의 복부에 은닉하고 김정련은 한복을 입고 실탄 12발을 장전한 총 1정을 왼쪽 무릎 밑 안쪽에 봉대로 감아 숨기고 신의주로 들어왔다. 신의주에 들어온 이들은 이선구의 집으로 찾아가 출발에 대하여 협의 하였다.

지사는 1929년 4월 9일 오전 1시 신의주를 출발하여 9일 오전 7시 5분에 경성역 도착, 김정련은 8일 오후 6시 조금 지나 신의주를 출발, 사리원 역을 거쳐 10일 오전 7시 5분경성역 도착, 이선구는 10일 오후 10시 17분 신의주를 출발하여 11일 오전 9시 50분 경성역에 도착하였다.

지사는 사직공원 등에서 거사를 협의하였으나 의견이 맞지 않아 지체되다가 지사와 김정련이 이선구를 설득하여 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다음날인 4월 17일 오전 11시경 지사 일행은 서울역 황금정(黃金町) 2정목(二

8) 「한민족독립운동사 자료집」 41권 110,111,121쪽.

丁目)에 위치한 이명구(李命九)<sup>9)</sup>의 집을 출발하여 방산정(芳山町) 63번지 유흥관(柳興寬)집에서 삼넛줄 등 필요물품을 구입한 후 차를 타고 양주군 구리면 교문리에서 내려 양주군 마금면 평내리의 안칠성(安七成)이 경영하는 여인숙에 도착하여 1박하였다. 이곳에서 지사가 이선구에게 모젤식 권총 1정과 실탄 8발을 넘겨주고 사격술을 가르쳤다.

다음날 18일 오전 7시경 아침을 먹고 지사 일행은 양주군 마금면(현 남양주시 호평동)과 화도면(현 남양주시 호도읍)의 경계인 마석(磨石, 마치)고개에 도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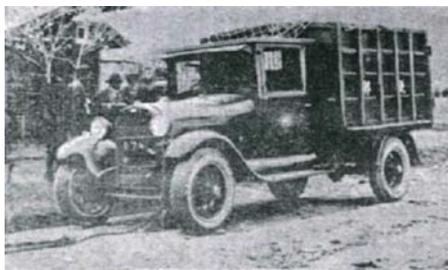
그리고 춘천방면으로 부터 오는 차량을 감시하기에 좋은 정상 바로 아래에 위치한 후 거사 실행과 도주의 방법을 결정하고 우편차량이 오기를 기다렸다.

## 5. 당시 신문기사로 본 최양옥지사의 독립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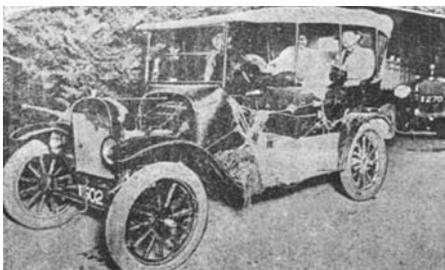


독립운동 당시의 대한독립공명단장 최양옥 지사

9) 이명구는 1920년 평북 희천군 희천면 읍내리 자동차부의 운전자 감독으로 재직하고 있을때 이선구가 자동차부의 운전사로 근무하고 있었던 관계로 알게되었다. 공명단 군자금 모집사건 경찰심문조서, 증인 이명구 신문조서.



당시 경성우편국 제7호 피해차량 (동아일보 1929.04.18.)



파손된 승합차량 (동아일보 1929.04.18.)

4월 18일 춘천을 출발한 경성우편국 제7호 차량이 오후 1시 40분경 고개마루 아래의 계획된 지점에 이르자 김정련은 망을 보고 이선구는 손을 들어 차를 정차시켰다. 우편차량이 정차하자 선생과 이선구는 즉시 차에 뛰어 올라 선생은 운전사 김영배(金泳培)에게 총을 겨누고 삼숫줄로 그를 묶어 조수석에 앉힌 후 이선구가 운전을 하여 금곡 방면으로 차를 몰았다.<sup>10)</sup>

이 때 마석고개 내리막길에서 서울을 출발하여 춘천으로 향하던 오성자동차 소속의 447호 자동차와 만나자 지사일행은 차를 세우고 기관부의 발화장치를 파괴한 뒤 운전사와 승객을 그 차의 상자 안에 감금하였다. 그리고 마침 그곳을 지나던 행인 4~5명도 제지하여 그 차의 상자에 감금하였다.<sup>11)</sup>이 사이 선생은 김정련과 우편차량의 뒷 칸에 실은 우편행량을 뒤졌으나 현금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지사는 김정련과 차량에 감금한 승객으로부터 33원을 획득한 후 오성자동차의 운전사 백남성(白南星), 승객인 이규면(李圭冕)에게 대한독립공명단 만세를 세 차례 소리 높여 외치게 하였다.<sup>12)</sup>

지사 일행은 미금면 평내리 입구에서 도피하려던 때에 춘천발 서울행 선일자동차가 오자 이를 세워 운전할 수 없게 만든 후 승객으로부터 20원을 모집하였다. 그리고 지사 일행은 우편송금차량의 운전사 김영배와 선일자동차 운전사

10) 『한민족 독립운동사 자료집』 41권, 180쪽.

11) 『독립운동사 자료집』, 1권 806~7쪽.

12) 『한민족 독립운동사 자료집』 41권, 181쪽.

이기선(李起善)을 데리고 천마산으로 도피 중 평내리 뒷산에서 운전사들을 둘러보내고 오후 2시 30분경 천마산 산중으로 도피하였다.

지사는 이미 다카마츠노미야(高松宮) 대정천황 황자가 입국하는 즈음에 요시찰인물로 수배 중에 있었으며 사건 당시 각 신문사들은 호외신문을 만들어 배포하며 파장이 매우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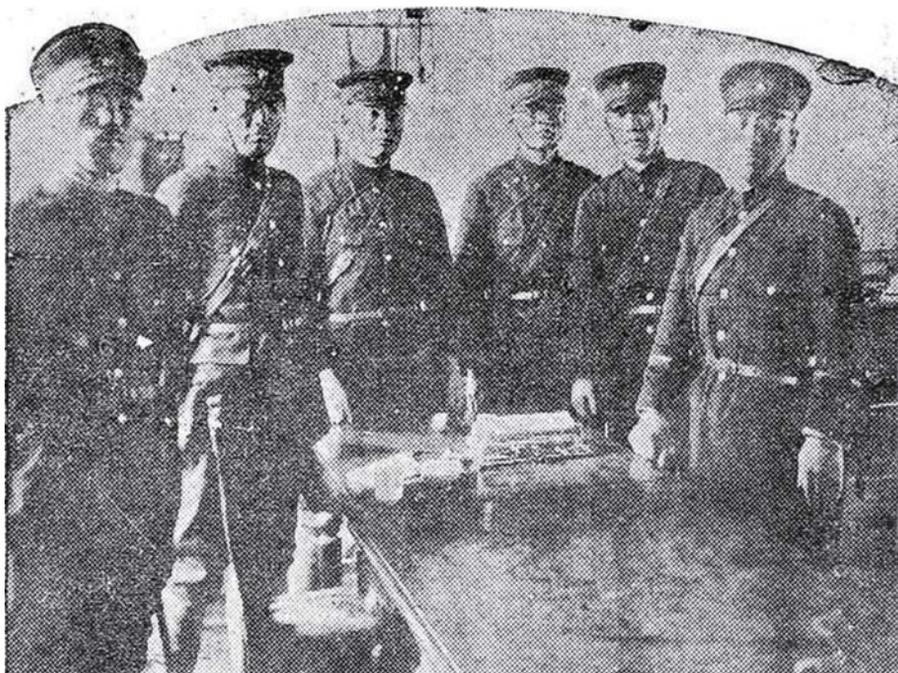


공명단 활동 보도기사(1929.04.20)

## ※ 독립기념관 자료

자료내용 : 1929년 4월 20일자 조선일보의 호외로, 공명단(共鳴團)이 서울 망우리 우편물 수송차량을 습격한 사건을 보도하고 있다. 공명단은 독립운동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1926년 중국 산서성 태원부에서 최양옥(崔養玉)·김정련(金正連)·이용화(李容華) 등과 조직한 항일 운동단체이다. 이들은 1927년 북만주에 독립군 비행사를 양성할 목적으로 비행학교 설립을 계획하고, 소요자금 모금과 국내지단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내로 돌아왔다.

1929년 4월 20일 서울에서 춘천으로 향하는 일본 우편 수송차를 기습하기로 하고 망우리(마석고래)에서 공격하여 현금을 탈취하고 강원도 방면으로 은신하였다. 거사가 진행되는 동안 자신들의 행적이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지점을 통과하는 모든 차량을 정차시키고 승객들을 모두 하차시켜 산속에 감금한 뒤에 도주하였으나, 일본경찰과 1주일 동안 격전을 벌인 끝에 체포되었다. 최양옥은 징역 10년, 김정련은 징역 9년, 이선구는 징역6년의 언도를 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하던 중 이선구는 옥사하였다.



최양옥 지사 일행을 체포하려 떠나기 직전의 경관 결사대 (동아일보 1929.04.22)

도피 중 일행에서 떨어진 김정련은 20일 0시 50분 인근의 독립가옥에서 체포되었지만 지사는 이선구와 20일 오전6시 덕소리 한강변에서 배를 타고 구리면

수석리에 상륙하여 아차산에 숨었다. 이후 지사와 이선구는 20일 오전 9시 30분경 망우리로 나와 남상진(南相鎭)이 모는 내선자동차 경(京) 제 408호를 정차시켜 빼앗은 후 이선구가 직접 운전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몇 겹으로 에워싸며 추적하던 경관들을 신출귀몰하게 따돌리며 도피하는 모습이 한 편의 활동사진이며 조선초유의 진기한 사건이라고 당시 4월 22일자 동아일보는 기재하고 있다. 이렇게 철통같은 경비를 뚫고 서울의 황금정에 도착한 일행은 다시 택시를 타고 무장경관대의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무인지경처럼 적선동 어구에서 내려 두 사람은 작별을 하였다.



공명단원(이선구) 은거지 북일여관 (동아일보 1929.04.22)

이선구는 북일여관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여관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자동차부에 수년을 같이 지냈던 이명구(李命九)의 집을 찾아갔다 잠복한 일경에 잡혔다.<sup>13)</sup>

13) 「한민족 독립운동사 자료집」 181~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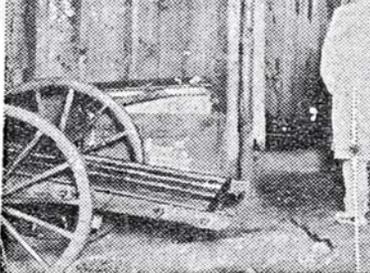


최양욱 지사 체포작전 (동아일보 1929.04.22)

최양욱 지사 체포작전 (동아일보 1929.04.22.)

### 機關銃까지 配置 엄밀하든 경계

최양욱(崔養玉)이 대구(大邱)에 있는 것을 탐지  
 洞(백시탈)에 있는 것을 탐지  
 한 경계대는 요령적으로 세워져  
 고관총과 장총을 휴대 하였것슴  
 은 물론 어머니와 만일을 예방하  
 기 위하여 그 부근에 그 관총까지  
 이라더라



### 鄭恒態度殊常 峯銃을 마트든

행동이의 심살기원  
同居學生도檢舉

시내 북일련관(北一旅館)에서 유  
 숙하고 있던 최양욱(鄭恒)은 지난 삼  
 월 삼십일에 시내 중등학교(中東  
 學校) 학생의 주군가 친면가암리  
 (義州郡加川面加岩里)에 원적을  
 눈신동방(懷東範)의 과대구부  
 상외당삼십일련디(大邱府上西  
 町)안동수(安東洙)와 출진  
 근근남면로유리(蔚珍郡近南面  
 老音里)윤석효(尹錫孝)등  
 세명과 한방에서 대관(大官)에 들어  
 음까지 한방에서 지내었슴으로 권  
 그 학생들도 형의 차로 모다 정거되  
 었는 데 신(愼)씨만이 심일에 나  
 스나 두 명 학생은 아직까지 처포중  
 이라더라

최양욱 지사를 잡기 위하여 기관총까지 배치 · 경계 강화 (동아일보 1929.04.22.)

최양옥 지사는 체부동(體府洞)118번지 박인서의 집에 머물고 있던 5층 조카 최상하(崔相夏)의 방에 은거하였다. 지사는 이선구가 4월 20일 오후 11시경 친구 이명구의 집에서 체포되어 자신의 위치를 알려준 탓에 4월 21일 5시 30분 최상하의 방에서 잠을 자다 종로서원에게 체포되었다. 종로서원 100여명의 무장경관들이 집 주위를 겹겹이 포위하고 고등계 주임의 지휘 하에 사복형사대가 담을 넘어 매복하고 수십명의 형사들이 지사가 자는 방으로 들어갔던 것이다.



최양옥 지사가 잠을 자던 집(좌상), 이선구가 체포된 이명구의 집(좌하)(동아일보 1929.04.22)



공명단 체포기사 (중외일보 1929.04.22)



최양옥 지사 체포당시 (동아일보 1929.04.22.)

최양옥 지사는 체포될 때, 일경이 들이닥쳐 자신을 붙잡고 총을 찾으려고 허둥대자 총은 이불 속에 들어있다고 하며 총 있는 곳을 가리킬 정도로 태연하고도 위엄이 있었다. 과감한 행동으로 일제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이들이 체포될 때의 광경을 당시 동아일보에서는 동 의거에 주도적 역할을 한 최양옥 지사의 체포에 대하여 “백여경관 포위하고 작일 미명에 돌입포박 최후까지 대담한 최양옥”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다.

上海에는支部成立  
共鳴團本部는布哇

泰然히取調에應對

○최양옥이 하잡한세사람은  
侵入情報는  
바든지오래

搜索本部前에  
悠悠히下車

한시어파라고시내를회맹  
崔養玉李善九大膽

최양옥 지사 체포 당시의 보도. 상단에는 '上海에는支部成立'과 '共鳴團本部는布哇'라는 제목이 있고, 그 아래에는 '泰然히取調에應對'와 '○최양옥이 하잡한세사람은' 등의 문구가 보인다. 본문에는 '侵入情報는 바든지오래'와 '搜索本部前에悠悠히下車'라는 문구가 눈에 띈다. 최양옥 지사의 체포 과정과 그의 태연함을 보도하고 있다.

공명단원 체포기사 (동아일보 1929.04.22.)

主人은房에서  
變服하고外出

일복입고들어와서변복하고  
외출하고돌아가자다가잡혀

首犯留宿한主人談

시내머부동(廳前)일복입는(崔養玉)  
다에가데포인 최양옥(崔養玉)  
과그집파의관계되는사실은그  
집주인의말을들어면  
지나시날오후두사경에 일  
복입고돌아남자한양의 작  
년부터집에서류숙하고있는  
최양옥(張子宗靜)씨를차와  
그의방에돌아가버는조  
친을찾고들어보고싶다시나간것  
을보았으나 그후로는 다시들  
어와자는것도몰라스며 드최  
상할씨는이심일에집에서나  
니하였다가이심일일 오지아  
간후로그날밤에는들어오지아  
한사경에집에들어오것말바  
로중도외출사가 살고있는데  
최양옥씨도평소에 무엇을하  
는사람인지모르며 권의는원  
주은(原州銀行)지배인이었  
스며 한수원전에 한복입었  
(崔養玉)이가차와갔다는것  
파 두터는처로한말가관계가  
된다는것을개모를나타 말하  
더라

최양옥 지사의 변복 외출. 상단에는 '主人은房에서變服하고外出'와 '일복입고들어와서변복하고 외출하고돌아가자다가잡혀'라는 제목이 있고, 그 아래에는 '首犯留宿한主人談'이라는 문구가 보인다. 본문에는 '시내머부동(廳前)일복입는(崔養玉)'과 '다에가데포인 최양옥(崔養玉)' 등의 문구가 보인다. 최양옥 지사의 체포 과정과 그의 태연함을 보도하고 있다.

최양옥 지사의 변복 외출 (동아일보 1929.04.22.)





면회하러 온 최양옥 지사의 가족 (매일신보 1929.05.01.)

중범의 최양옥 가족(첫째 동생 양길, 어린 딸, 어린 동생, 제수, 백모, 여동생 양옥)들이 그의 얼굴이나마 보고자 며칠을 걸어 강원도 산골 멀리서 왔으나 면회를 시켜주지 않아 경찰부 앞에서 떠돌고 있다는 기사 내용이다.



공명단원 최양옥, 이선구, 김정련 송국 광경 (동아일보 1929.05.11.)

# 海外某團體와聯絡

## 拳銃等武器輸入

◇사건의내용은복잡다단◇

### 崔養姬事件真相

지난이월우중에서사내동대문맛창 데포하는동시에 계속하여 대할이나 사건의병위가 어느정도까  
 신동(昌信洞)동백구십삼번디를 중중인데 람뎀한바에의하면 권지나 화대되는지는이상일후가아  
 정기도경찰부고등과원이포의하 총을해외모단원으로부리마랐다 니면 알수없다 되 여하간단순한  
 그 세상을 볼때이름공명단(共 가사내모에게 맞겨문것은사실사건만은아니라더라

鴉團)사건의수범 최양옥(崔養  
 玉)의친매(親妹)최양희(崔養  
 姬)(女)를검거하여 자동차로호  
 송류치한후 임중취조중이라 하였  
 은그보하여가나와 동인의해와  
 모단체에서 모 중대계획을 세우  
 고무기(武器)를운반하는데조력  
 하여 자기손으로 권총(拳銃)몇  
 자루를맡았다가 또다시사내모의  
 집에맡겨두었다는사실을어떠한  
 자가도 경찰부에 투서를한까닭에  
 에그라카리 할양하여 최양희를(崔養  
 會)는박람회신진기타그정리으로 그정비는일반민간의기부

### 朝博協贊會

### 會計漸次紊亂

매년설치등에도불공평

一般의注目을集中

조선박람회(京城協)에대한 모든권리를마라보는것

최양옥 여동생 최양희의 무기 수입 (동아일보 1929.07.06)

당시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세상을 놀라게 했던 공명단 사건 수범 최양옥의 친매(親妹)를 검거하여 자동차로 호송 유치한 후 임중 취조중이라 하였으며 해외 모 단체에서 모 중대계획을 세우고 무기를 운반하는데 조력하여 자기 손으로 권총 몇 자루를 맡았다가 또 다시 사내 모의 집에 맡겨 두었다는 사실을 어떠한 자가 경찰부에 투서를 한 까닭에 그 자와 같이 최양희를 체포하는 동시에 계속하여 수사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또한 공명단 사건의 수범 최양옥 누이가 해외 모 단과 연락 혐의로 네 명을 또 검거하고 10여명을 취조 중이라고 하였다.



# 崔養姬事件益擴大

## 警察部徹夜活動

◇ 재작야에 네 명을 또 검거 ◇  
現在十餘名取調中

이도경찰부고등과에서 이삼삼씨에게 또다시 무슨 단서를 어  
 일권부러서내창신동(昌信洞) 뒷승인지동괴원이데이호자동차  
 양옥(崔養玉)의 친매 최양회 를타고시내수은동(授攄洞)금옥  
 崔養姬)를동하야 극추에 개최 러관(金玉旅館)주인 한창현(韓  
 조선과양회를 기회로 모종매 章鉉)을 검거하야 한창현(韓  
 것을 일으키고거 해외모단데 와서밤의검도훈련하는일방  
 서무기(武器)를 들여보내어 형사매를 또다시말방으로라견  
 모에게전케한사실이 동경찰 하여대활동중인데이외에도이삼  
 고등과에어선사람의투사로발 인을더검거하얏다하며동사건으  
 되어 이래다수한사람을 검거 로방금류취되어취도를받는사람  
 고계속활동중이라함은 그보 은조항(趙光)리항호(李恒鎬)조  
 약거나와지난이십이일 오후일 숙인(續淑仁)등십여명이라더라

道名 植付濟 植付濟  
 步合 面積  
 京畿道 九九三〇,三三三

최양희 지사 친매(親妹) 사건 관련 4명 검거, 10여명 취조 중 (동아일보 1929.05)



얼굴이나 한번 보고자 멀리서 찾아 온 최양옥 지사의 가족 모습  
그러나 면회를 시켜주지 않았다 (동아일보 1929.12.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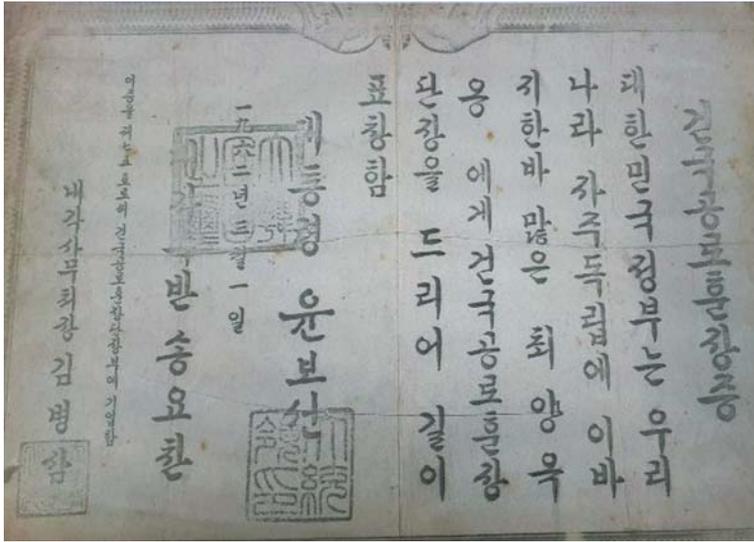


공명단원 최양옥, 김정련, 이선구 입장 모습 (동아일보 1929.12.07.)



쇄도한 방청객 (동아일보 1929.12.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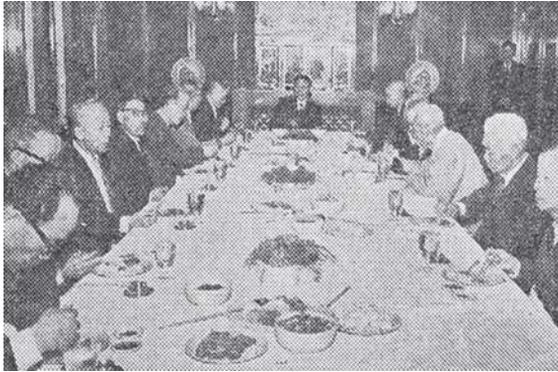
## 6. 애국지사에 대한 포상



평생의 독립운동 공로로 1962년 3월 1일 윤보선 대통령으로부터 건국공로 훈장을 받음



1962년 건국공로훈장을 받을 당시의 최양욱 지사의 모습



대통령의 건국공로자 최양옥 지사 외 20명 초청 (1962.03.03.)

## 7. 노후생활



1982년 횡성 갑천면 전촌리 자택에서 독립운동 당시를 회고하고 있다.<sup>14)</sup>  
고향마을에서 부친의 묘소를 아침저녁 돌보면서 노후를 보냈다

14) 박순엽, 1982년. 8.1 횡성군 갑천면 전촌리 최양옥 지사 자택에서 녹취.



### III. 결론

#### 1. 최양옥 애국지사 발자취가 말해 주는 3.1운동 100주년의 교훈

일제 강점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빼앗긴 조국을 찾고자 항거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분들을 항일 애국지사라 부르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공적이 지대한 분들은 역사교과서에 실려 행적을 알게 하고 거룩한 뜻을 후세 사람들이 이어받도록 하고 있다. 때로는 영화, 만화, 전기집에서도 접할 수도 있으나 이는 매우 극소수에 불과하며 제한적이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2019년은 중앙 정부뿐 아니라 각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100주년 행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든 것을 바친 항일 애국지사들의 주도하에 3.1운동이 치열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 분들 가운데에는 교과서에 실려 있는 분들 못지않게 치열하게 독립운동의 길을 걸었던 잊혀진 분들이 많이 있지만 당연히 알아야 할 향토의 애국지사는 지역민들이 모르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많은 분들 중에 우선 최양옥 지사의 독립운동 행적을 살펴 애국의 길을 유추해 볼 수 있게 하였다.

3.1운동 100주년 행사는 많은 준비 기간을 거쳐 기념식, 분향, 만세 부르며 하는 시가행진, 일제의 만행규탄 등 격앙된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묻혀있는 애국지사의 발자취를 연구 조명하여 3.1운동 100주년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였다.

특히 황성출신 최양옥 지사는 학생신분으로 서울 탑골공원에서 3.1운동 참여, 4월 1일 황성 4.1만세운동 주도, 대동단원으로 전남지역에서 독립군 자금 마련하다 7년형 옥고, 중국에서 조직된 대한독립공명단 단장으로 활동하다 10년 옥고를 치렀다.

이 과정에서 개인적 고통은 말할 수 없었다. 8남매의 장남으로서 가족들은 고난의 길을 걸어야 했으며 1차 옥고를 치른 후 출소하여 더 큰 독립운동에 몸바

치고자 이혼 후 중국으로 건너가 본격적인 독립운동의 길을 걸었다. 이 와중에 경기도 양동으로 갓 시집간 딸은 최양옥 지사를 체포하기 위하여 잠복한 왜경에 떠밀려 척추가 부러져 세상을 떴고 여동생 최양희는 오빠의 권총 등 무기를 숨겨주었다가 모진 고문을 받는 등 가족까지 수난을 당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는 오직 빼앗긴 나라를 찾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신들려 있었다고 회고하였는데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깊은 뜻은 최양옥 지사와 같은 그 불굴의 정신을 이어받을 각오를 새롭게 하는데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각 지역마다 잊혀지거나 묻혀있는 치열하게 살다 간 무명의 항일 애국지사를 발굴, 스스로를 강하게 하고 그 뜻을 이어받는 것이 애국지사의 희생이 헛되게 하지 않게 하는 길일 것이다.

## 2. 3.1운동 100주년 가치 정립을 위한 애국지사 행적 조명

- 최양옥 애국지사를 소재로 한 토크 콘서트, 뮤지컬 공연 (2019.03.27.)
- 횡성 4.1만세운동 100주년 기념 전국 한글백일장 (2019.03.30.)
- 횡성 4.1만세운동 재현시가행진행사 (2019.04.01.)
- 3.1운동 100주년 가치 정립을 위한 관련 도서 발간 및 증보 발행 :
  - 횡성과 3.1운동(조동걸 저. 증보 발행),
  - 아! 1919 삼일의 불길(서사시, 김성수 저),
  - 횡성지역에서의 의병전투와 독립운동(김동정 저),
  - 횡성 3.1운동 주도인물 재조명(김동정 저),
  - 횡성인 최양옥의 독립을 위한 몸부림(김동정 저).
- 최양옥 애국지사 공적비 및 묘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양옥 애국지사 묘역 및 유적지 탐방.
  - 3.1운동 100주년 가치 정립을 위해서는 전시적, 형식적 행사보다는 묻혀있는 애국지사의 발자취를 발굴 증거를 확보, 다시는 아픈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역사에서 교훈을 찾아 일본을 규탄하기 보다는 열정과 끈기로 자강(自強)에 그 의미를 두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강대덕 · 박정수 · 최창희, 2003, 「횡성민족운동사」, 횡성문화원.
- 국가기록원, 「1921 최양옥 광주지방법원 형사부 판결문」.
- 국사편찬위원회, 1969, 「한국독립운동사」3.
- 김동정, 2016, 「횡성인 최양옥의 독립을 위한 몸부림」, 횡성문화원.
- 김동정, 2018, 「횡성 3·1운동 주도인물 재조명」, 횡성문화원.
- 김후경 · 신재홍, 1971, 「대한민국 독립운동 공훈사」, 한국민족운동 연구사.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6, 「독립운동사자료집」.
- 박순엽, 2003.7.1, 「횡성독립운동가 최양옥지사 강월일보사」.
- 서중석, 2001,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역사시평사
- 조규태, 2002, 대한독립공명단의 조직과 활동, 한민족독립운동사 연구33.

## II. 생활문화와 전통윤리



\* 선진 생활문화를 위한 시민의식 제고 방안 | 현원명

\* 유학의 도통 | 이병곤

\* 역사를 통해 교훈과 지혜를 | 김인규

# 선진 생활문화를 위한 시민의식 제고 방안



현 원 명  
(황성문화원 이사)

## 1. 문화강국이 세계를 제패한다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고, 선 그 자리에서 최고가 되라! 우리 청소년들은 미래에 한국을 짊어질 경쟁력 있는 시민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국영수 주지교과의 공부도 중요하지만 교육도 문화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주인의식 함양과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시화 될 수 있다. 본립도생(本立道生) 근본이 바로서야 인간의 도리가 나온다. 우리가 고전(古典)에 주목하는 이유이다.

김구선생님은 백범일지에서 “나는 우리나라가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는 우리를 행복하게도 하고 남에게도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라고 갈파했다. 이는 문화가 국력이고 문화대국을 이상적인 국가의 기준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 고(故) 피터 드러커는 “21세기 최후의 승부처는 문화산업이다” 라고 말했다.

1960년대 한국은 세계에서 최고 후진국(GNP 87달러)으로 아프리카 가나와 함께 경제 원조를 받는 나라였지만, 오늘날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했지만, 가나는 여전히 최빈국이다. 문화가 결정적인 요인이다. 한국인들은 교육과 문화를 중요한 가치로 생각했지만, 가나는 그렇지 않았다. 문화강국이 세계를 제패한다. 과거 정부에서도 문화융성을 4대 국정기조의 하나로서 국민의 창의성, 아이디어와 기술 결합으로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창조경제시대를 열겠다고 하였다. 따라서 청소년의 지도에서 창의력에 바탕을 둔 학교 안팎의 문화교육 패러다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한다.

## 2. 문화운동을 시작하자

우리나라는 매년 수많은 세계적인 행사와 대회를 치루고 있다. 특히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월드컵 등 4대 메이저 스포츠를 개최하여 스포츠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세계 5번째 스포츠 선진국이다. 이런 국제적인 행사는 물론 국내 크고 작은 연례적인 행사와 경기대회에서 애국가 제창을 하는데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그나마 악대연주나 녹음반주가 있어서 간신히 분위기를 유지한다. 애국가를 소리 높혀 불러야 애국심도 생기고 식장 분위기도 고양될 것이다. 그리고 각종 국경일에 가정이나 기관에서 태극기 게양이 소홀하다. 나라가 있어 내가 있다. 태극기를 게양하는 문화가 절실하다.

언제나 우리는 주인의식과 국가 정체성을 갖고 문화 국민답게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 다음은 각종 축하식에 박수이다. 박수는 상대방에게 격려 화합 칭찬의 표시를 손 맞춤으로 상대에게 답하는 예의인데 박수에 인색하다. 감사와 칭찬할 일이 생기면 박수와 칭찬 그리고 감사의 말을 전달하는 문화가 시급하다. 나라사랑 이웃사랑은 애국가 부르기, 태극기 게양, 박수치기, 칭찬 감사의 표시 등으로 돈도 들어가지 않는 애국심과 따뜻한 배려와 소통의 실천이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결속시키는 힘ियो, 문화 운동이며 선진 시민의식이다.

## 3. 청소년 문화교육의 사례

달튼 외국인학교 심옥령 교장은 학부모들이 자녀를 가장 보내고 싶은 사립 영훈초등학교에서 31년간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다. 심교장의 영어교육의 성공비결은 영어를 학문이 아닌 문화로 접근했기 때문이다. 즉 **영어 몰입교육으로 영어를 매개로 과학이나 사회공부를 하면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며 소통하는 것이다. 영어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다.**

벤처마킹에서 퓨처마킹의 시대가 왔다. 선두기업의 장점을 배워 재창조하는 벤처마킹에서 2020년을 살지만 즉 2030년 즉 10년 뒤의 미래 사람들에게 감동

을 주는 일이 퓨처마킹이다. 프랑스 파리는 밤낮없이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인가? 파리 사람들의 가슴속에는 ‘불편한 것은 얼마든지 참아도, 아름답지 않은 것은 절대로 못 참는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아름답지 않은 것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지만, 불편한 것은 절대로 못 참는다.’ 그 생각의 차이이다. 퓨처마킹의 중요한 키워드는 탁월한 아름다움이다. 스티브잡스의 경영철학에 아름다움이 있어 “미칠 정도로 멋진 제품을 창조하라, 아니면 세계를 감동시켜라.” 프랑스처럼 아름다움을 추구하면 학교와 우리 고장이 깨끗해질 것이다. 우리처럼 아름다움에 무관심하며 불편함을 못 참으면 지저분하고 무질서해질 것이다. 이 점이 바로 문화적 충격이다. **아름다움, 감동, 상상력, 감성, 창의성, 소통, 융합이 미래시장의 동력이며 문화 교육의 현주소이다.**

#### 4. 문화시민의 화법(話法)

##### \* Be(You)메시지 vs Do(I)메시지

학교, 가정에서 학생들에게 잘못된 대화법을 쓴다. 현명한 부모 및 교사의 메시지 전달법이 있다. Be(You) 메시지 는 학생의 성격, 인격적인 부분을 지적하는 말이다. “**너, 텔레비전 그만 봐!**” 라고 보통 말한다. 직접 너, 당신 등을 주어로 명령 비난하는 공격적인 말로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 감정의 대화는 단절로 이어진다. Do(I) 메시지는 주어를 나로 하며 상대방의 현재 행동만을 지적하거나 가르쳐 준다. “**나는 네가 텔레비전을 그만 보면 좋겠어, 내일 시험을 망치면 네가 속상해 할까 걱정돼**” 이런 말은 상대방의 인격 존중과 문제된 행동을 깨닫도록 해준다. 평화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 Be(You)메시지를 지양하고, Do(I) 메시지의 언어로 서로를 인정하고 화합, 용서하는 대화법이 필요하다. Do(I) 메시지는 아이에게 생각할 여지를 준다.

Do(I) 메시지의 대화법을 쓰면 학생 부모 친구와의 관계가 원만하여 사랑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Do(I)메시지 화법은 잘못된 행동의 결과에 대해 그 사람

의 행동과정을 설명하고 그 잘못에 대해 스스로 반성을 구하는 화법이다. Be(You)메시지 화법은 잘못된 결과를 일방적으로 단정하여 상대로 하여금 반감을 일으키는 화법이다. 항상 어디서나 누구나 Do(I) 메시지 화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 감정싸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 나나주의 vs 도도주의

대화에서 자신감이 없어 ‘나 할까’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항상 자신에 찬 목소리로 오늘은 ‘~도 하고, ~도 하고, ~도 해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 두 가지 표현을 다 쓰는 사람은 드물다. 대화속에 표현이 그 사람의 정신 상태를 반영한다. 항상 대인관계에서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화법을 사용해야 한다.

## 5. 문화 충격(culture shock)

이제 외국인은 낯선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외국인의 문화나 습관은 우리와 다른 점이 많다. 소위 문화 충격이다. 그런 차이를 인정해 주고 배려하는 것이 세계화 시대에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지혜이다. 외국인을 접할 때 편견 없는 시선으로 보고 정중한 사과와 감사를 하며 친절과 성의를 나타내야 한다. 국제화, 세계화에 따라 외국 문화가 빠르게 교류되고 있다. 우리 고유의 것을 계승하고 정체성을 가지면서 서도 외국의 문물을 습득하여 세계인으로서 손색없는 국제적인 국민이 되어야 한다. 또한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 선진 문화의 시민의식이다.

### 가. 일본

- ▷ 소식(小食)하고 밥과 국그릇을 들고 먹는다.
- ▷ 자기 젓가락으로 상대방에게 음식을 집어 주는 것은 결례이다
- ▷ 선물은 짝수를 좋아하나 4개는 피하며 흰색포장, 흰꽃 등은 피한다.

▷ 2차 대전 이야기는 금지하고 등 뒤에서 손뼉을 치지 않는다.

## 나. 홍콩

▷ 청색과 백색은 장례식 색깔로 사용하지 않는다.

▷ 죽음을 상징하는 시계는 선물하지 않는다

## 다. 중국

▷ 박쥐는 행운을, 학과 거북은 사람을 바보 취급하는 말로 여긴다.

▷ 술자리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떠드는 버릇이 있다.

▷ 자기가 사용했던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주는 습관이 있다.

▷ 괘종시계는 장례식 의미가 있어 선물하지 않는다.

▷ 술을 마실 때 보통 건배를 하며 작은 일에도 박수를 친다.

▷ 사업가는 개인적 우정을 중요시 한다.

## 라. 태국

▷ 불교 국가로 불상, 승려를 신성시하며 왕가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어 이를 욕되게 하는 언행은 용납되지 않는다.

▷ 머리를 신성시 하여 어린이 머리를 쓰다듬어서는 안 된다.

▷ 이름을 부르는 것이 정식이어서 이름 앞에 'Mr'를 붙여 호칭한다.

▷ 인사는 두 손을 턱 밑에서 모아서 '와이(wai)'라고 말하면서 한다.

## 마. 말레이시아

▷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며 개도 가까이 하지 않는다.

▷ 왼손을 부정한 손으로 여겨 식사나 악수, 물건을 건넬 때 오른손을 쓴다.

▷ 사람의 머리를 만져서는 안 된다.

## 바. 인도네시아

- ▷ 돼지고기나 술을 입에 대지 않고 왼손을 부정하게 생각한다.
- ▷ 어린이 머리를 쓰다듬지 않는다.

## 사. 인도

- ▷ 남자와 인사는 악수, 여자와 인사는 합장하면서 허리를 약간 숙인다.
- ▷ 힌두교는 쇠고기를 먹지 않으며 소를 신성시한다.
- ▷ 음식을 전할 때는 오른손을 쓴다.
- ▷ 시크교도는 터번을 쓰고 담배를 피우지 않으며 쇠고기를 먹지 않는다.

## 아. 중동

- ▷ 회교도에게는 술은 절대금물이며 라마단의 기간(회교력 9월, 단식기간)중 금식규칙을 철저히 따른다.
- ▷ 음식을 먹을 때 명함, 선물을 전할 때 오른손을 사용한다.
- ▷ 여성을 낮추어 생각하고 여자가 몸을 보이거나 다리를 꼬는 것을 싫어한다.
- ▷ 회교도는 1일 5번, 즉 메카를 향해 해 뜰 때 1번, 낮에 3번, 해질 때 1번 기도한다.
- ▷ 차도르(얼굴 가리는 천)를 한 여성을 사진 찍는 것은 큰 실례이고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한다.
- ▷ 음식을 먹을 때 오른손을 사용하는 데 이유는 왼손은 생리적인 일에 사용하므로 불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 일상 업무는 목요일 끝나고 금요일은 휴식일이며 토요일은 다시 업무를 시작한다.

## 자. 미국

- ▷ 인종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피한다.

- ▷ 흡연 제한 규칙 및 식사, 음주 예절 등을 지켜야 한다.
- ▷ 점심을 가볍게 하고 저녁을 주된 식사로 여긴다.
- ▷ 선물 교환을 보통 상징적인 것으로 한다.
- ▷ 동료나 친구사이에 소개받은 후 이름을 바로 부른다.
- ▷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고 이유 없이 쳐다보는 것을 싫어한다.
- ▷ 공공의 장소에서 시끄럽게 하는 것을 큰 실례로 안다.

## 6. 생활문화의 기준 비교

### 가. 중산층의 기준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중산층의 기준이 다르다.

우리나라 : (부)동산, 고연봉 수입, 고급주택, 고급자가용, 저축액수, 명예, 신분, 직업 등 가시적인 측면이 강하다

프랑스 : 악기연주 실력, 외국어 사용능력, 요리자격, 외국여행 경험, 봉사활동 수준 등 개인능력이나 보람 있는 일.

프랑스는 물질적 행복, 황금만능주의에서 정신적 행복, 개인역량 강화,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질 개선 등에 두고 있어 우리나라와 대조를 보인다. → 물질보다 정신, 마음의 평화, 이타주의, 공존, 마음의 평화, 보람이 더 중요하다.

### 나. 성공(행복)의 기준(재산→좋은 부모)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지가 설문으로 조사한 통계치

미국(상위권) ① 좋은 부모가 되는 것 ② 행복한 결혼 ③ 원만한 인간관계 ④ 건강

미국(하위권) ① 권력을 갖는 것 ② 부자가 되는 것 ③ 명예를 얻는 것

행복의 기준이 한국에서는 부자가 되는 것, 권력을 갖는 것, 좋은 직장, 건강

등으로 미국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물질적인 면보다 정신적인 풍요로움이 값지다.

좋은 부모를 원하면 착한 자녀가 되어야 하고, 착한 자녀를 원하면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도 정신적 풍요가 중요하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행복한 기준의 공통은 건강이었다.

### 다. 과거와 현대 오복(五福) 문화

#### ♣ 과거의 한국인 5복

1. 오래 사는 것(수壽) 2. 부자로 사는 것(부富)
3. 건강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강령康寧)
4. 덕을 좋아하여 즐겨 행하여 닦음(유호덕攸好德)
5. 천명을 다하고 죽음을 맞이함(고종명 考終命)

#### ♣ 현대인의 오복(五福)

1. 부부 다 같이 건강한 것. 2. 부부의 취미가 같은 것
3.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는 것 4. 자녀들이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는 것.
5. 부부가 앞서거나 뒤서거나 1, 2년간에 자녀 앞에서 임종하는 것.

### 라. 지식 중심 교육에서 역량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미래 한국인의 핵심 역량 증진을 위한 10가지가 있다.

1. 대인관계능력 2. 자기관리능력 3. 의사소통능력 4. 진로개발능력 5. 정보처리능력 6. 문제해결능력 7. 창의력 8. 시민의식 9. 기초학습능력 10. 국제사회문화이해력 등이다.

대한민국은 2018년 말에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국가 G7으로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뒤를 이어서 7번째 나라로 30-50 클럽(1인당 국민소득 3

만 달러, 인구 5천만 명 이상)에 영광스럽게 진입하였다. 이제 자랑스러운 선진국 대열에 대한민국이 들어간다. 선진국의 국민답게 우리는 높은 시민의식을 갖고 국제화 시대에 살아가야 한다.

공정한 규칙, 정정당당한 행동, 페어플레이 정신이 선진 시민의식을 만들고 위대한 성공과 승리, 성장의 밑거름이다. 과거 서양 중세기에는 적과 싸우다가 적이 칼을 손에서 떨어뜨리면 칼을 집어서 적에게 쥐어주고 정정당당하게 싸웠던 기사도 정신이 있어 예의, 신의, 명예를 존중하고 약자를 도우며 무슨 일이나 공명정대했다. 인생에서 공정한 법(法)을 제거하는 것은 세상에서 태양을 제거하는 것과 같다.

사람이란 개인이 아니라 관계로 이루어진 존재이다. 사람을 한자로 인간(人間) 즉 ‘사람사이’ 라고 부르는 까닭이다. 상대방과 제대로 관계를 맺을 때라야 참사람이 된다는 의미이다. ‘NQ로 살아라. 공존지수인 NQ는 타인과의 관계를 맺고 남을 배려하여 자신과 상대가 함께 성공하는 개념이다. 21세기가 추구하는 인간형은 부드럽고 어울리기를 좋아하며, 지성적이고 인간관계가 좋아서 팀워크를 잘 살려나가는 인간형(돌고래형, 기러기의 아름다운 비행 등)이다. 공존을 넘어 상생의 시대이다. 공존은 함께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생은 서로 용기를 북돋으며 상호 윈윈(win win)하는 관계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관계이다. 상생하는 것이 선진 시민으로 가는 길이다.

## 마. 바른 인격의 주인이 되자

소크라테스는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하였다.

어디에 사느냐? →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아느냐? → 무엇을 실천하느냐? 어떤 옷을 입었느냐? → 어떤 정신을 가졌느냐?

무엇을 소유하느냐? → 어떤 인격을 소유하느냐?가 보다 중요하다.

## 7. 위계질서(位階秩序)가 선진문화이다

위계란 ‘위 아래, 앞 뒤, 먼저 다음’ 과 같은 차례이며, 질서는 그 위계를 원만하게 지켜서 대우하는 방법이다. 사회생활에서 아버지 위에 할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밑에 아들이 있는 것처럼 위계는 분명히 있다. 위계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 가. 가정

가족 간에 세대차와 출생 선후차에 의한 위계가 있다. 아버지와 아들 세대차가 위계이고, 형과 아우는 출생 선후차의 위계이다.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세대는 윗세대이고, 아들 딸과 같은 세대는 아랫세대이며, 형제자매는 같은세대이다. 윗세대는 아랫세대를 사랑하고 아랫세대는 윗세대를 모시는데 이를 부자자효(父子子孝)라 하고, 형은 아우와 우애하고 아우는 형에게 공순하는데 이를 형우제공(兄友弟恭)이라 한다.

부부는 무춘, 부모와 나는 1촌, 형제끼린 2촌이다. 중국 춘추시대에 형제간 출생순서로 맹중숙계(孟仲叔季)-맹(만이),중(둘째),숙(셋째),계(넷째)의 위계질서는 흔들림이 없어야 하였다.

### 나. 사회

첫 번째는 나이가 많은 위 어른과 나이가 적은 아랫사람이고, 두 번째는 지위가 높은 상급자와 낮은 하급자, 그리고 나이가 같은 친구와 지위가 같은 동료가 있다. 웃어른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경장애유(敬長愛幼)라 하고, 상급자를 섬기고 하급자를 지휘하는 것을 사존사비(事尊使卑)라 한다. 조직 사회에서는 직급을 최우선으로 하고(朝廷 莫如爵), 일반 사회생활에서는 나이를 최우선으로 하고(鄉黨 莫如齒), 세상을 바르게 하고 백성의 어른이 되는데는 학문과 덕성을 최우선으로 위계를 정한다. 세대차이, 연령차이, 직급차이와 전

혀 상관없는 위계가 있다. 즉 가르치는 선생님과 배우는 제자,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앞선 사람과 뒤진 사람과 같은 경우이다. 학문과 덕망이 있어 남의 모범이 되고 존경받는 사람은 웃어른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랫사람으로서 모두 그를 본받고 배우며 존경해야 한다.

## 다. 국가

한 국가의 기본 질서를 지키는 것이 성숙한 국민의 태도이며 국가에 대한 바른 예절이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방법으로 성실히 일을 하여 돈을 버는 것도 질서 있는 태도요,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도 질서 있는 자세이다. 공중도덕을 지키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한 예절이다. 내가 내 나라의 질서를 잘 지키고 예의를 다할 때 외국인들도 우리나라를 그만큼 존중해 줄 것이다. 우리나라가 질서를 잘 유지하면 주변 국가들로부터 신뢰를 얻게 될 것이다. 만약 나라가 무질서하면 외국과의 교역이나 협력이 어려워질 것이다. 국가의 기본질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8. 동서양 예절(매너)의 개념

### 가. 동양의 예절(매너)

공자(孔子)는 예기(禮記)에서 “사람을 바로 하는 법 가운데 예(禮)보다 필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하였고 사회 관습상 예의를 지켜야 하지만 그 때문에 인간 행동이 너무 번거로워져서는 안된다고 하여 의례나 의식의 지나침이 없도록 간소하게 하라고 하였다. 예로부터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이었다. 고려시대 과거에서는 당대의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해결하는 방식으로 예기(禮記)를 시험과목으로 삼기도 하였다. 성종 시대에는 ‘국조오례의’를 완성하게 되고 15세기 퇴계 이율곡 선생 등의 향약 역시 사회의 필요성에 대응하는 공동체 사회 예절의 형식이라 할 수 있다. 16세기를 예학시대라고 부르는 만큼 한국적 사회에 맞는

예학의 성립을 보기도 하였다. 이후 실학시대에도 예학은 학자가 당연히 알아야 하는 기본 덕목이 되었다.

한국예절에서 가장 본격적으로 예절에 관심을 기울여 성과를 거둔 사람은 사계 김장생 선생과 한강 정구의 예학이다. 또한 주자(朱子)의 ‘가례’는 한국적 실정에 맞도록 적용시키는 한국적 예절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동양에서는 예절이 법률보다 개인생활과 사회생활에서 더 광범위하고 큰 영향을 미쳤다. 동양에서는 공자에 의하여 인(仁)안에 예(禮)와 악(樂)이 위치하여 실천의 방법으로 정착되었고 올바른 정치의 한 방법이 예치(禮治)로서 정립된다. 예절은 심신 수양론과 아울러 사회화의 핵심 범주에 포함되었다. 서양에서는 최초의 생활예절의 저서가 1503년 에라스무스가 쓴 ‘청소년들의 예절론’이지만 동양에서는 200년 앞선 우리나라의 ‘상정고금예문’의 책으로 개인, 사회, 정치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예서가 쓰여졌었다.

예절의 내용을 보면 동양에서는 죽은 자에 대한 의식과 정신이 예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관혼상제 중에서도 상례는 예로부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었다. 서구에서는 숙녀(lady)의 사회생활에 관한 예절이 발달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예절로 여성의 사회생활이 어려웠던 관계로 가정예절 곧 태교 육아 집안 일, 어른 모시기, 제사 같은 점이 매우 발전했다.

## 나. 서양의 매너(manner)

예절이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약속해 놓은 생활방식이다. 예절을 행하지 않는 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예는 사회계약적 생활규범이다. 생활하는 방식을 약속해 놓은 것이 생활예절이고, 생활예절의 하나인 가정의례는 가정에서 행하는 의식절차를 약속해 놓은 것이다. 사람과 사람의 교류와 접촉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

이것을 흔히 동양에서는 ‘예(禮)’라 하며, 서양에서는 ‘에티켓(불

어:etiquette)', 또는 매너(영어:manner)' 라고 한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는 '예'나 '에티켓'은 하나의 사회적 불문율로서의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것인 반면 '매너'는 에티켓을 행동으로 나타낸 것이라 한다. 동양에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법도인 예(禮)와 경(敬)을 잘 지키는 사람을 군자(君子)라고 하였다. 프랑스는 보통 문화의 나라, 예술의 나라, 낭만의 나라, 매너가 좋은 사람들의 나라, 세련된 나라, 우아함을 간직한 나라 등으로 투영된다. 18세기 이전 유럽지역의 모든 나라들은 프랑스에 경의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교양과 문화에서 기인했다. 발달된 문화의 한 형태로 인식되는 매너(manner)가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 사회와 사회간의 관계,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서구사회에서 매너(manner)는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극히 필수적인 덕목으로 인식되었고 가정, 학교, 직장 생활에서 교과서 역할을 해왔다. 서양에서의 매너는 적극적인 자기생활의 방편이며 자기보호의 수단이었다.

## 9. 이미지 메이킹(Image Making)

### 가. 이미지(Image)란 무엇인가?

부어스틴은 이미지라는 단어의 어원은 라틴어 'imago'이며, 동사형인 라틴어 'imitari'는 '모방하다(imitate)'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사전적 의미로서 Image는 형체나 모양, 느낌, 영상, 관념 등으로 정의되고, 'Imago'는 정신분석학적인 용어로 양친 등의 면모나 영상 등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따라서 이미지는 '어느 대상, 특히 사람의 외적 형태의 인조적 모방 또는 재현'이라고 정의된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 중의 하나이다. 전 인류 역사를 통해 사람들은 항상 타인의 눈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알아내고 그것을 향상시키는 일에 많은 시간과 경제적 가치를 투자해 왔다.

누구나 자기만의 이미지가 있다. 이미지는 자신의 내부에 잠재한 여러 가지

자질을 아름답게 조화시켜 외적으로 훌륭하게 연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삶에 있어 중요한 하나의 과제가 되었다. 모든 사람들은 성별 연령 직업에 따라 각기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인물 체격 음성 종교 취미 기호 등이 결합되어 개인의 독특한 이미지가 형성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시각으로 나의 어떤 면을 보았느냐에 따라 개인의 이미지는 실제와 다르게 왜곡될 수 있다. 개인의 이미지 메이킹(Image Making)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가. 자기 개발

많은 기업들이 다른 기업과의 차별화를 위해 CIP(Corporate Identity Program)를 출구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군중 속에서 나를 차별화하기 위해 개인 PIP(Personal Identity Program)가 필요하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부각시키려면 자신의 개성을 시간(Time), 장소(Place), 상황(Occasion)에 맞게 연출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 \* 이미지 메이킹 5단계

1. 자신을 알라(Know yourself)
2. 자신을 개발하라(Develop yourself)
3. 자신을 포장하라(Package yourself)
4. 자신을 팔아라(Market yourself)
5. 자신에게 진실하라(Be yourself)

### 나. 얼굴을 펴면 인생길이 펴진다

사람을 만날 때 첫인상은 대단히 중요하다. 첫인상은 보통 3초 안에 결정된다고 한다. 첫인상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연구가 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과 교

수인 알버트 메라비안에 의해서 행해졌다. 그는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언어적인 요소(말하는 내용)가 7%, 외모, 표정, 태도 등 시각적인 요인이 55%, 그리고 목소리 등 청각적인 요인이 38%를 차지한다고 했다. 이러한 원칙은 첫 만남에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다고 한다. 그의 연구를 웃음의 측면에서 보면 웃는 얼굴과 웃음소리가 첫 만남의 93%를 지배한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얼굴이라는 책으로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오른 미국의 과학 저널리스트 대니얼 맥닐은 그의 저서를 통해, 판사들은 재판에 임할 때 공평무사하게 판결을 내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재판 중에 미소를 짓는 피고인에게 더 가벼운 형량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가장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곳이어야 할 법정에서도 웃음과 미소가 최고의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 \* 이미지 힐링(Image Healing)

### 1. 아픈 부분을 이미지화 한다.

신체의 일부를 반복적으로 생각하면 훨씬 강한 효과가 있다. 단거리 선수 토마스는 어깨수술을 받고 한 시즌 훈련을 쉬어야 했다. 근육 힘을 잃지 않기 위하여 그는 체육관에 가는 생각을 하면서 웨이트트레이닝을 하는 상상을 했다. 그는 예상보다 빠른 회복을 보였고 수술 전처럼 훈련이 가능하게 되어 스코틀랜드 국가 대표 팀에 선발되었다. 사람이 아플 때 완벽한 건강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는다면 건강회복에 큰 도움이 된다. 신체 재생력을 믿어야 성공하고 효과가 더 좋아진다. 신시내티 의과대학의 물리치료 및 재활부서의 연구진은 6주 동안 뇌졸중 환자들의 동작을 회복시키는 신체운동과 이미지 힐링을 병행한 경우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 2. 이미지 힐링 요법

이미지 힐링의 핵심은 몸속에서 진행되는 치유과정을 상상하는 데 있다. 자

기 몸속에 아주 작은 사람이 있어 소위 미니 미(Mini-Me)가 있어 치료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피부에 베인 곳이 있다면 미니 미가 상처를 잘 꿰매어 아물게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 이런 상상 중에 상처 부근 세포들이 자극을 받고 상처 부위를 관장하는 뇌도 자극을 받아 치료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 또한 상처가 완벽히 아물거라는 상상을 했기 때문에 효과가 지대하다. 예를 들어 종양이 흑인데 얼음으로 된 흑으로 생각하고 그 얼음 흑이 일정하게 녹아내리는 장면을 며칠 몇 주 동안 마음으로 계속 그리면서 흑이 점점 작아지거나 아예 녹아 없어지는 장면을 상상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흑 부위와 관련된 뇌 영역이 활성화되어 화학적 변화가 생성된다. 더 큰 위력을 느끼려면 상상의 장면을 실감나게 만들면 된다.

### 3. 규칙적 이미지 힐링

하루 세 번씩(아침 점심 저녁) 마음의 약을 먹는다. 더 자주해도 좋다. 마음의 회복가능성, 믿음에 따라 상황은 바뀐다. 자기 몸이나 세포, 장기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물어볼 수 있다. 우선 이완상태에서 마치 최면술사처럼 자신의 무의식과 소통하라. 그러면 살아가면서 어떤 형태의 변화를 도모해야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가령 병든 장기가 특정 음식의 영양소가 필요한지, 몸에 유해한 물질을 함유한 특정음식을 끊어야 한다고 말해 줄 수 있다. 그 사람이 낮고자 하는 욕구가 필요한 변화를 일으키도록 동기부여를 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 4. 확신하라

자기 질병에 부정적인 사람으로 '절대 낮지 않을 거야' 이런 말은 뇌의 해당 영역의 뉴런들을 자극해서 생물학적 수준에서 질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때 화학물질이 분비되고 유전자의 수위치가 켜지거나 꺼진다. 그 병과 연관된

세포들이 단백질을 비롯한 다른 물질을 생성하면서 병이 더 오래가게 된다. 반대로 ‘나는 회복되고 있어, 낫고 있어’ 또는 ‘완전히 낫기로 결심했어’ 라고 확신의 말을 거듭하면 신경 연결망이 형성되고 신경 펩티드가 분비돼 세포와 DNA에 접속해서 치료를 돕게 된다. 보다 더 열정적으로 확신의 말을 할 때 더 빨리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 5. 사랑은 치유의 기적을 부른다.

사랑은 사물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꾼다. 기적이 있는 곳은 우리 마음속이다. 사랑은 마음속에 닿아 영혼을 흔들어 놓는다. 사랑의 빛이 우리 삶을 비추는 순간, 삶은 전혀 다른 모습을 띠게 된다. 사랑을 경험할 때 마음 정서 신체가 치유된다. 진정한 사랑은 심각한 질병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자신과 화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된다. 우리 자신으로부터 달아나지 않는 이 지점에서 진정한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다.

## 10. 격식(格式)

### 가. 자동차의 상석

운전자가 있는 차량에 4명이 승차할 때는 뒷좌석의 오른쪽이 제일 상석이고 그 옆이 2순위, 조수석이 3순위 좌석이 된다. 운전자가 있는 차량에 5명이 승차할 경우에는 4명이 승차할 때와 같으나 1순위와 2순위 자리의 사이가 4순위 좌석이 된다. 이때 4순위 좌석에는 여성을 앉히는 경우는 없다. 서양에서 차주인이 직접 운전할 경우 운전대 옆자리 즉 주인의 옆자리가 상석이다. 지프인 경우 운전자 옆자리가 언제나 상석이다. 승차시는 상위자가 먼저, 하차시는 반대로 하위자가 먼저 하는 것이 관례이다. 단체버스는 운전석 뒤편 왼쪽부터 1,2번 좌석이 되고, 그 뒤가 3,4번 좌석, 운전석 뒤편 오른쪽 창쪽으로 5,6번 그 뒤가 7,8번

좌석으로 정해지고, 3열부터는 운전석 쪽부터 9,10, 반대편 창쪽으로 11,12번 순서로 이어진다.

## 나. 성별과 방위

일상생활을 할 때나 예절행사를 할 때에는 위계에 맞게 상 하석을 찾아서 위치하고 좌석을 정해야 한다. 또한 의식과 목적에 합당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생활이나 의식절차에서 방향을 말할 일이 많은데 예절에서 방향을 말하려면 전후좌우라고 하지 않고 동서남북이라고 한다. 여러 사람이 각기 향한 곳이 다르면서 전후좌우라 말하면 누구의 전후좌우인지 분간할 수 없어 혼란을 막기 위해 동서남북이라고 말한다. 예절에서 말하는 동서남북은 자연의 동서남북과 관계없이 예절을 하는 장소에서 제일 윗자리인 상석(上席)이 북(北)쪽이고, 상석 앞이 남쪽이며 왼쪽이 동쪽이고 오른쪽이 서쪽이다. 그 이유는 상석에 웃어른이 앉아야 하는데 언제든 웃어른은 남향으로 앉아야 하기 때문이다.

태양광선은 생명의 원천이므로 생명이 있는 것은 태양광선을 가장 잘 받는 남쪽을 향하는 것이 정칙이다. 남쪽을 향하면 왼쪽이 동쪽이고 오른쪽이 서쪽이다. 동쪽은 해가 뜨니까 양(陽)이고 서쪽은 해가 지니까 음(陰)이다. 남자는 양(陽)이니까 남자의 방위는 동쪽인데 그 동쪽이 왼편에 있으니까 남자는 좌(左)이고, 여자는 음(陰)이니까 여자의 방위는 서쪽인데 그 서쪽이 오른편이므로 여자는 우(右)이다. 남좌여우(男左女右)란 남자는 동쪽, 여자는 서쪽이라는 말이다. 즉 남동여서(男東女西)이다.

## 다. 서희장군 vs 소손녕 장군

고려 6대 성종왕 12년 거란의 총사령관 소손녕이 80만 대군을 거느리고 우리나라를 침입했다. 고려 명장 서희장군은 홀몸으로 소손녕과 담판했다. 담판 좌석을 북쪽에 소손녕, 남쪽에 서희장군을 배치하자 서희장군은 즉시 나라간의

전은 우열없이 대등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전상 북쪽이 상석이고 남쪽이 하석이라 응할 수 없다고 하여 끝내 동쪽 서쪽으로 대등하게 배치하고 당당하게 담판을 하였다. 서희장군은 거란이 고려와 수교를 원하자 압록강 부근 여진족이 길을 막고 있다. 여진을 몰아내고 옛 고구려 땅을 되돌려준다면 수교를 받아드리겠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결국 소손녕은 서희장군의 요구를 받아들여 80만 대군을 철수시켰고 서희장군은 국난위기를 영토확장의 기회로 반전시킨 외교의 달인이자 명장으로 고려외교의 금자탑을 이루었다.

## 11. 국제 비즈니스의 선진문화 의식 실천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한다. 2018년 말 우리나라는 7번째 나라로 30—50 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 명 이상)에 영광스럽게 진입하였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선진문화 시민의식으로 글로벌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지구촌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시대에 부합한 선진화된 의식으로 외국의 문화와 전통, 인습을 알고 언행을 하여야 하겠다.

- 중동과 극동 지역의 사람들은 누군가를 부를 때 손바닥을 아래로 하여 손짓한다. 이것은 서구인에게는 반대의 의미이다.
- 한국과 일본에서는 손가락으로 만드는 링 사인은 돈으로 해석되지만 남부 프랑스에서는 무가치함을 의미한다. 또한 미국이나 서유럽에서는 OK표시로, 브라질 등 남미에서는 음탕하고 외설적인 사인으로 간주된다.
- 일본인에게 선물할 때는 흰색 종이로 포장하지 않으며, 흰 꽃도 선물하지 않는다. 흰 색은 죽음으로 생각한다.
- 동양인에게 선물할 때는 4개는 피하며, 서양인에게는 13개는 피한다.
- 일본인에게 여우를 묘사하는 선물은 풍부함을 의미하며 오소리를 묘사한 선물은 교활을 의미한다.
- 유럽에서 손바닥을 바깥쪽으로 하여 V자를 그리면 승리를 의미하지만, 그

리스에서는 지독한 욕이 된다.

- 일본인이나 대만인의 등 뒤에서는 손뺌을 치지 않는다.
- 유럽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손바닥을 상대방에게 보이며 손을 흔드는 것은 안녕이란 의미지만, 그리스에서는 ‘네가 하는 일이 안되길 바란다.’란 뜻이므로 유의한다.
- 손가락을 교차시키는 것은 유럽에서 방어나 행운을 의미한다.
- 홍콩 사람에게 선물할 때는 한개 보다는 두개가 좋다.
- 중동의 국가에서는 손가락으로 사람을 가리키며 말하는 것은 매우 무례한 행동이다.
- 주먹을 쥐채 엄지손가락을 위로 올리는 행동은 ‘매우 좋다’는 의미지만, 호주에서는 매우 무례한 행동이다. 이는 그리스에서는 ‘입 닥쳐’란 의미로 쓰이며, 러시아의 일부지역에서는 동성연예자의 사인이다.
- 라틴 아메리카 인에게는 칼은 단절을 의미한다.
- 머리를 위 아래로 끄덕이는 것은 긍정의 뜻인데 불가리아와 그리스에서는 이것은 부정의 뜻이다.
- 라틴계 사람들은 상담을 바로 시작하지 않는다.
- 독일인에게 빨간 장미는 구애를 뜻한다.
- 프랑스인들은 카네이션을 장례식에 많이 사용함으로 선물하지 않는다.
- 유럽에서는 흰 국화는 죽음을 의미한다.
- 유럽에서는 짝수는 불행을 가져온다고 생각한다.
- 멕시코와 브라질에서는 자줏빛 꽃은 죽음을 상징한다.

## 12. 선진 생활문화를 위한 시민의식 제고 방안

### 가. 자기완성 + 관계완성

공자의 인(仁)은 충서(忠恕), 즉 충(忠)은 가운데를 뜻하는 중(中)과 마음을 뜻

하는 심(心)이 결합된 글자로 ‘마음의 한 가운데’를 뜻하여 가장자리나 변두리에서 헤매지 않는 한 개의 마음으로 자기완성이다. 참고로 환(患)은 한 가운데 마음이 두 개가 되어 근심 환자이다. 자기완성이란 목표를 성취하여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다.

서(恕)는 같음을 뜻하는 여(如)와 마음을 뜻하는 심(心)이 결합된 글자로 나의 마음이 타인의 마음과 같다는, 혹은 같아야 한다는 의미로 관계완성이다. 인간은 자기를 완성하고 친구로서 관계를 완성해야 행복한 삶을 이룬다. 상하의 인간관계 3종류 즉 부모와 자식, 상사와 부하, 교사와 학생 관계와 삼친(三親)으로 세상에서 가장 친한 3대 인간관계란 부부, 부모 자식, 형제 자매가 서로 원만하고 상호 이해 협력하는 분위기를 위해 모두가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을 버리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이타심을 가져야 한다. 예로부터 군군신신 부부자자(君君臣臣 父父子子)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는 말로 각자의 본분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다하여야 원만한 관계가 형성되어 성숙한 선진시민 의식이 고양된다.

생각은 세계적(global)으로 하고 행동은 지역적(local)으로 해야 한다고 한다. 21세기는 지구촌의 시대이다. 빈번한 국제교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선진화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국제적인 감각과 문화를 익히고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부단히 국가 간의 문화 관습, 국제 매너 등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지식 중심사회에서 역량 중심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의식, 자기관리 의사소통, 대인관계 창의력,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야 하겠다.

## 나. 자기관리

인간의 신체는 25세 전후로 성장을 멈추지만 정신적인 성숙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지속된다. 인간의 자세, 동작, 표정 등은 마음에 의한 것이므로 마음이 가난하면 가난한대로, 풍요로우면 풍요로운 대로 변화한다. 정신적인 면은 육

체적 성숙과는 달리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개발하지 않으면 성장하기 힘든 본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관리 측면에서 정신적인 성숙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

자기관리란 자기개발 과정에서 정신적 성숙을 실현하는 인격적인 면의 자기관리와 지식, 기능을 연마하는 직능적인 면의 자기관리로 분류된다. 창조적인 인생설계를 통한 지속적인 자기개발은 인격적인 관리와 직능적인 자기관리가 동시에 추진될 때 비로소 성취될 수 있다. 자기관리가 잘 되면 시민의식을 향상시킨다.

#### 다. 적시성과 적소성

어떤 행동이든 적시성(適時性)과 적소성(適所性)을 바로 얻는 것이 인생의 지혜이다. 제 때, 제 자리를 바로 알고 제 때, 제 자리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 즉 적재적소가 중요하다. 세 가지 앎(三知) 즉 족함을 알고(知足), 자기 분수를 알고(知分), 멈춤 줄을 아는(知止)데 있다. 내던지 않고서야 멈춤을 모르고, 한 걸음이라도 행해봐야 족함도, 분수도 알게 된다. 분수란 사리를 분별하는 지혜, 자기의 신분에 맞는 행동, 자기의 한계를 깨닫는 것이다. 작은 걸음, 작은 출발이 소중한 까닭이다. 세상의 출발은 한 걸음이다. 21세기 우리 모두는 문화시민답게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또한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선진문화 시민의식으로 자기 역량을 다하는 1등 국민이 되어야 한다.

# 유학의 도통



이 병곤  
(황성향교 전교)

옛부터 중국에서 우리민족은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칭하며 한국의 문화와 가족 제도를 높이 평가하였다.

고려시대는 왕가와 민중들이 불교를 숭상하였으나 점차 부패와 연결되어 사회질서가 문란해지자 고려왕조는 망하고 조선이라는 새로운 국가가 세워지자 국가 통치이념을 유학에 기초하고 각 고을마다 향교를 새우게 하고 유학경전(논어, 맹자, 중용, 대학, 시경, 역경, 주역,)을 배우게 하고 경전에 기초한 정치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는 600년 동안 이어오면서 조선 사회의 지배세력과 백성들의 삶에 그대로 녹아 역사를 이어오다 일제강점기와 서양식 교육제도가 도입되고 최근 국민 소득이 증가하고 출생인구가 감소하여 자녀교육은 입시 위주가 되고 인성과 예절교육이 부족하여 사건사고와 더불어 함께 생활하는 소통과 화합이 부족한 시대이므로 춘추 전국시대에 덕치주의를 실현하여 태평성대를 이룩하고자한 성현들의 역사를 알아보고자 한다.

## 1) 유학의 연원(淵源)

### ① 유학의 전통

유학은 공부자의 교학(敎學)사상을 계승하여 가르치고 배우는 동북아시아의 전통학문이다. 대학의 3강령인 명 명덕(明明德) 친민(親民) 지어지선(至於至

善)과 8조목인 격물(格物) 치지(致知)성의(誠意) 정심(正心) 수신(修身) 제가(齊家) 평천하(平天下)을 통하여 수기치인(修己治人)을 달성하고 덕치주의(德治主義)를 실현하여 요순(堯舜)시대와 같은 태평성대를 이룩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춘추시대(BC 771~403) 공자가 집대성(集大成)한 유학이 증자와 자사를 거쳐 180년 뒤의 맹자에게 전수되었다. 맹자는 인의(仁義) 사상을 바탕으로 왕도정치와 정의사회 실현을 제창하면서 7웅(七雄)이었던 위나라 양혜왕과 제나라 제선왕에게 유세하였지만 전국시대(BC403~221) 개막으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진시왕이 천하를 통일할 때까지 무려 180여년간의 참혹한 전쟁이 중원 대륙을 휩쓸었다.

진시왕이 통일한 진나라 역시 무거운 세금과 혹독한 부역으로 민심이 이반하면서 초나라 수비병으로 있던 진승과 오광이 반란을 일으켜 중원대륙은 15년만에 또다시 전쟁의 소용돌이로 빠져들었다.

이 당시에 항우(項羽)와 유방(劉邦)도 함께 일어나 진나라를 타도하게 되면서 천하를 통일한지 불과 15년만에 진나라는 멸망하였고 각축전에서 승리한 한고조(劉邦)가 한(漢)나라를 세움으로서 중원 대륙은 200여년 만에 겨우 안정기로 접어들어 공부자의 교학사상이 다시 꽃피우기 시작하였다. 한나라 유학자로는 동중서, 사마천, 사마상여, 양웅, 마용, 반고, 허신, 공안국 등이 활약하였다.

후한 말기 12대 헌제(BC184년)때에 거록 지방에서 황건적(黃巾賊) 장각(長角)이 태평도(太平道) 교도들과 난을 일으켜 조조, 유비, 손권이 등장하는 삼국시대가 45년간 전개 된 후 사마염에 의하여 다시 진(晉)나라가 세워졌다가 마침내 5호(흉노, 갈, 선비, 저, 강)와 16국으로 갈라져 남북조시대가 300여년간 지속되면서 꽃 피우기 시작한 유학은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했다. 남북조 시대 말기에 수(隋)나라가 진시왕 때와 같이 5호 16국으로 갈라졌던 중원대륙을 또 다시 통일하였지만 3회에 걸쳐 만리길의 고구려를 침략한 후 38년만에 다시 멸망하고 말았다.

이때에 수나라 조정에 있던 이연과 이세민 부자가 반란을 일으켜 당나라를 세움으로서 한나라가 멸망한지 400여년 만에 유학이 한층 꽃피우기 시작하였는데 당나라 유학자로는 한유, 유종원, 공영달 등이 활약하였으며 이때부터 한시(漢詩)가 성행하여 이백(시선 詩仙)과 두보(시성 詩聖)가 활약하고부터 후세에 당음(唐音)으로 전해졌다. 당나라와 우리나라 삼국시대 신라와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설총이 이두(吏讀)를 만들고 최치원 등이 당나라 유학을 다녀왔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유학이 전통학문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오늘날 문묘에 우리나라 18현 유학자를 종향(從享)위에 모시게 된 것이다.

당나라 말기에 왕실이 쇠약해 진 후 다시 5대(후량 후당 후진 후한 후주)와 10국이 난립하면서 60여년간 혼란기로 접어들었다가 조광윤(趙匡胤)이 송나라를 세움으로서 공부자의 교학사상이 1500여년 만에 중원대륙에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송나라 유학자로는 주돈이, 정호, 정이, 장재, 소옹, 주희(송조6현)가 출현하므로 교학사상에서 한걸음 나아가 우주간의 사물과 인성을 연구하는 성리학이 발전하였고 마침내 고려시대 안향을 통하여 성리학이 우리나라에 도입하게 되었으며 고려 말 이색, 정몽주, 길재를 거쳐 조선조의 김숙자, 김종직에 이어 김굉필, 이언적, 이황, 김인후, 이이, 성혼, 김장생, 조헌, 김집, 송시영, 송준길, 박세채 등 18현을 문묘에 종향(從享)하기에 이르렀다.

## ② 유학의 경전

유학 경전은 주나라(BC 1121년)가 창업하기 이전부터 『시경』, 『서경』, 『역경』, 『악경』, 『예기』 등이 있었지만 명료하고 정밀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 공부자(BC551)가 시경을 305편으로 편집하였고 역경에 단전상전 계사전 등 10익(十翼)을 서술하여 주역을 상세하게 체계화 하였으며 훗날 송대에 이천(정이)이 역전을 보완하여 오늘날의 주역으로 완성되었다. 13여년 이상을 주유천하

하다 68세에 노나라로 돌아오신 공자는 71세에 『춘추』를 지으시고 73세에 세상을 떠나셨다.

공자가 돌아가신 뒤 제자였던 증참(증자)과 유약(유자)이 생전의 스승님 말씀을 수집하여 『논어』를 저술하였고 증자가 다시 『대학』을 지으시고 공자의 손자 자사가 『중용』을 지으셨는데 원래 대학과 중용은 『예기』 총 49편중 42편과 31편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여 보완한 것이다. 이후 1000여년이 지난 송대에 와서 공자 이전의 6경과 공자 이후의 『대학, 논어, 맹자, 중용』 4서를 4서 6경이라 이름하여 유학의 기본교재로 활용되었다.

후한시대 사마천이 『사기』를 편찬하였고 북송시대 사마광(사마온공)이 『자치통감』을 편찬하여 역사서를 완성하였다. 5대 10국 시대 후량의 주홍사가 가장 기초적인 『천자문』을 지어 어린이 교재로 활용하였고 남송시대 주자와 여조겸이 주돈이, 정호, 정이, 장재의 문집을 정리하여 『근사록』을 편찬하고 성리학을 집대성하였으며 주자의 문인 유자징이 『소학』을 저술하고 신덕수가 『심경』을 편찬하였으며 명나라시대 법립본이 널리 알려진 『명심보감』을 저술하여 4서 6경에 입문하기 이전의 기초 교재를 완성하여 동북아시아의 학문으로 자리잡았다. 우리나라도 1910년까지 중국과 똑같은 학문을 연구하고 가르쳐 정치, 사회, 문화, 윤리, 철학 등 모든 분야에 지식을 닦았고 학문을 평가하는 과거제도를 실시하여 인재를 등용 하였으며 선정(善政)을 펼쳤다.

이후 1406년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여 한자와 병용하여 오다가 1961년 5.16군사정변 이후에 한글 전용화 정책에 따라 한자 사용이 전문분야 외에는 단절되었다. 이러한 유학의 연원과 경전 발달 과정을 살펴본다면 유학을 동북아시아의 문자이자 전통 학문일 뿐 절대적 종교(유교)라고 볼 수가 없다는 논리가 명백해 진다.

우선 종교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절대적으로 숭배하는 신(神)이 있어야 하고, 둘째 신앙하는 신도(信徒)가 있어야 하며, 셋째 예배하는 교회와 법당이

있어야 하고, 넷째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내세관(來世觀)이 있어야 하며, 다섯째 규정적인 교리(教理)가 있어야 한다.

### ③ 유학의 의미

유(儒)자는 자원(字源)을 찾아 보면 사람인 변에 구할수. 기다릴수(需)자의 상형문자를 결합한 형성(形聲)자이다. 또 기다릴수(需) 자는 회의자로서 비가오기를 비는 머리털을 깎고 수염을 기른이(而)자 형태가 마치 기우제를 지내는 제사장의 모습으로서 옛 농경사회가 하늘에 제사지낼 때 가장 덕망 있는 학자의 신분을 뜻하였다. 그러므로 유(儒)자를 세상의 계도와 교화에 요구되는 학자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다.

- ◆ 유학(儒學) : 공부자의 교학(敎學)사상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문, (4서6경)인 유가 경전을 말한다.
- ◆ 유교(儒敎) : 유학의 가르침(인의仁義)을 말하며 교육기관으로 도성에는 성균관 및 5부 학당과 지방에는 향교가 담당하였고 향리에는 서원과 서당이 있다.
- ◆ 유도(儒道) : 유학의 가르침을 실천하도록 계도하고 교화하는 사회활동을 말한다.
- ◆ 유가(儒家) : 유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파를 말한다.
- ◆ 유림(儒林) : 유학의 가르침을 따르는 선비단체를 말한다.
- ◆ 유자(儒者) : 유학을 전공한 학자를 말한다.
- ◆ 유생(儒生) : 유학을 배우는 학도를 말한다.

## 2) 춘추의 수사학(洙泗學)

### ① 공자의 정치 사상과 사회적 배경

공자는 BC 551년 주나라 영왕시대에 태어났다. 당시 중국의 고대 사회는 짧은 기간의 안정기를 거친 후 다시 혼란에 빠져든 시기였다. 5천년의 문자기록을 갖고 있는 중국의 역사로 볼 때 이때는 중기에 속한다. 서주(西周)시대는 중국사회가 봉건사회로 전환되는 역사시기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

첫째, 토지소유자가 국가소유로부터 개인소유로 전환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모든 토지가 천자의 소유였으나 농업의 발달로 제후국들이 토지를 소유하게 되면서 차츰 토지매매가 이루어졌다.

둘째, 땅을 경작할 때 소를 이용하고 철재 농기구가 보급되면서 농업생산이 증대되었으며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토지사유제를 촉진 하였는데 중국 고대부터 실시한 정전제(丁田制)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 사방1리에 하나의 정전을 두고 900무(畝)로서 100무는 공전(公田)이고 800무는 8가구가 100무씩 사유화하고 8가구가 공동으로 공전100무를 가꾸었다. 이때에 하나라 상(은)나라 이래의 노예제 사회는 붕괴되고 봉건사회가 탄생하였는데 사회발전에 진일보 한 것이다.

주나라가 창업되고 서주시대 토지 사유제가 정착되고부터 그동안 농업에 종사하던 노예는 일정한 토지를 소유하는 농민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그들은 안정된 삶을 원했으며 안정된 사회는 생산을 증대시켰고 사회는 비교적 안정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때를 서주(西周 장안도읍)시대 라고 한다. 봉건(封建)이란 말은 천자가 토지를 분봉(分封)하여 나라를 세운다는 의미로 봉후건국(封侯建國)의 줄인 말이다.

당시의 주나라 천자(天子)는 광활한 국토를 다스리기 위하여 수많은 고을 별로 지역을 나누어 그 땅을 형제 종친 또는 개국공신들에게 나누어 주고 제후로

봉하여 나라를 세워 다스리게 하였으므로 때문에 제후국은 매년 천자에게 공물을 바쳐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형제 종친들의 우의는 멀어지고 더욱이 각자가 일정한 군사력을 갖게 되면서 인구와 토지 경제력에 따라 자연적으로 제후국간에 격차가 생기게 되었다. 우월한 군사력을 갖게 된 제후국은 차츰 약소국을 넘보면서 사회는 다시 혼란의 시기로 빠져들어 전쟁으로 이어졌다

기록에 의하면 진목공(秦穆公)은 20개 나라를 멸망 시켰고 제환공(濟桓公)은 35개 나라를 병탄하였으며 진헌공(晉獻公)은 17개 나라를 병탄한 후 38개 나라를 항복 받았고, 초장공(初莊公)은 26개 나라를 병탄하였다. 낙양으로 천도한 동주(東周)초기에는 100여개 제후국으로 축소되었다가 결국 칠웅(七雄)만이 남아서 중국 통일의 길로 치닫고 있었다.

국력이 막강해진 7웅의 나라들은 차츰 주나라 천자를 무시하게 되고 천자는 힘없는 허수아비 신세가 되었으며 매년 천자에게 바치던 공물도 끊기게 되면서 주나라 왕권은 쇠퇴해져 갔다.

이러한 시기에 공자는 봉건질서가 무너지가는 현실을 개탄하고 인(仁)의 마음을 일으켜 안정된 사회로 되돌리고자 주유천하 하면서 제후국들을 설득하며 나섰다. 때문에 유학사상은 모든 사람에게 정의롭게 살기를 권고하는 학문이었다. 특히 군왕의 자질과 역할론을 강조하면서 태평성대로 돌아갈 것을 설득하였지만 한번 소용돌이 치기 시작한 역사의 물결은 도도하게 흘러갈 뿐이었다.

공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혼란의 시초라면 180년 뒤의 맹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건잡을 수 없는 중국대전의 전성기였다.

맹자는 위나라 양혜왕과 제나라 제선왕에게 왕도정치를 역설하였지만 그들은 몇 대에 걸쳐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을 지속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아무리 왕도정치를 실현 한다고 해도 나라를 통째로 잃을 판인데 정의사회란 구호에 불과하고 오직 상대나라를 멸망시키고 살아남는 목적만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전국시대가 BC 403년 위사와 조적과 한건이 진(晉)나라를 3분하여 소유하고 나라를 세워 각축전을 벌이면서 BC 221년 진시왕이 통일할 때까지 무려 180여년을 대를 이어가면서 전쟁 국면으로 일관 하였으니 인류 역사상 참혹하기 이룰데 없는 시기였다.

그러므로 공자와 맹자가 인의 정치를 표방하며 제후국들을 설득하려 했지만 도덕사회 정의사회란 처음부터 요원한 구호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결국 공자와 맹자는 세상에 무너져 가는 봉건질서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노년에 고향으로 돌아가 후진 양성에 전념하면서 교학사상을 뿌리내리기 위하여 온힘을 다 바쳤다.

특히 공자는 후대를 위하여 시경과 서경을 정리하고 역경(주역)의 10익을 저술하였으며 역사서인 춘추를 서술하였다. 때문에 공자를 춘추시대 집대성(集大成)하신 종사(宗師)로 문묘(文廟)에 신위를 봉안(奉安)하고 후세의 학자들이 만고의 성인이자 위대한 스승으로 존경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안다면 감히 종교로 인식하지 말아야 하고 2500여년의 유구한 역사를 점철해온 동아시아 전통 학문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기 전 1910년 까지는 분명코 유일한 전통학문이었음을 자각하고 유림들이 앞장서 노력하면서 계승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공자께서 이룩하신 교학사상과 경전만큼은 국가적 차원에서 전통학문으로 계승하고 장려 해야만 한다.

### 3) 송나라 정주학(程朱)

#### ① 정이(程迋, 1033~1107)

자는 정숙(程叔), 호는 이천(伊川), 명도(明道) 정호(程顥)의 동생. 주돈이(周敦頤)의 제자. ‘北宋五子’ 중의 한 사람. 18세인 1050년 호원(胡瑗)이 태학(太學)의 주교(主教)를 맡고 있으면서 시험문제로 안자(顔子)가 좋아하였던 학문이 무엇인지를 묻는 ‘안자소호하학론(顔子所好何學論)’을 내었는데 이천의 훌륭한

한 답안을 보고 찬탄하면서 학관(學官)에 천거하여 임명하였다.

27세 때 정시(庭試)를 포기하였으며 부친의 추천으로 여러 번 관리가 될 수 있었으나 모두 친지에게 양보하고 처사(處士)로 자처하였다. 형인 명도가 죽은 후 벼슬길에 나섰고, 1086년(哲宗)평민의 신분으로 임금의 부름을 받아 승정전설서(崇政殿說書)가 되어 황제에게 항상 근엄한 자세로 강의하였으며, 1087년 관구서경국자감(管勾西京國子監)으로 파견되었다.

철종의 소성(紹聖:1094~1098) 연간에 소식(蘇軾) 일파 등의 미움을 받고 관직에서 쫓겨났으며 결국 신당피들의 참소로 사천(四川) 부릉(涪陵)으로 귀향 갔다. 1100년 휘종(徽宗:1101~1125)이 즉위한 뒤 해배(解配)되어 낙양으로 돌아왔다. 승녕(崇寧:1102~1107) 연간에 그의 저술에 대한 비판상소가 있자 그가 관리가 된 뒤의 모든 글을 없애 버리고 감사에게 그가 지은 책을 검열하라는 조치가 내려졌다. 뒤에 다시 서경국자감(西京國子監)에 복직되고 그의 학설이 올바르게 인정되었다.

묘소는 낙양 남쪽(1시간 30분 소요) 이천현(伊川縣)에 있다. 남쪽으로 더 내려가면(1시간 소요) 이천고리(伊川故里)가 있는데 이천의 사당과 양시(楊時)와 유초(遊酢)의 정문입설(程門立雪)의 유적이 남아있다. 저서로 『주역정씨전(周易程氏傳)』 등이 있으며, 제자들이 명도의 글과 함께 엮은 『이정전서(二程全書)』가 있다. 1220년(嘉程13)에 정공(正公)이라는 시호를 받았음. 1241년 이종, 순우(理宗, 淳祐1) 이양백(伊陽伯)에 봉해지고, 공묘(孔廟)에 “낙국공(洛國公) 정이”로 배양되었다.

**(성격)** 자신에 대하여 매우 엄격하고 장중하였으며 매우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성격이었다. 한주(漢州)에 있는 한주사(漢州寺)에 갔을 때 스스로 그 기상이 형인 명도 선생보다 못함을 깨닫고 탄식하였다. 그러나 만년에 부드러워지고 부동심의 경지에도 이르렀다.

**(사상)** 이천은 인간의 본성을 곧 이(理)라는 ‘성즉이설(性卽理說)’을 주장하여

인간의 선험적이고 보편적이며 도덕적인 이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인성에 대한 기(氣)의 영향을 중시하여 본성을 말할 때는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을 함께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경(敬)을 수양의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하면서 외면적 행동거지와 용모를 가다듬는 “정제엄숙(整濟嚴肅)”과 정신을 집중하는 “주일무적(主一無敵)”을 새롭게 주장하였다. 특히 이천은 수양의 중심을 외적인 양기(陽氣)공부보다는 내적인 양심(養心)에 두어 내적 수양으로서의 주경(主敬)을 강조하였다.

## ② 주희(朱熹, 1130~1200)

송대 이학(理學)의 집대성자 자는 원희(元晦)·중희(仲晦), 호는 회암(晦庵), 회옹(晦翁), 고정(考亭), 시호는 문공(文公), 원적은 휘주(徽州) 무원(婺源)(현재의 장시성江西省에 속함)이었으나, 부친인 주송(朱松, 1097~1143)이 복건성(福建省)에서 벼슬하였으므로 그 곳에서 살게 되었다. 복건성 우계(尤溪)에서 태어나 숭안(崇安)과 건양(建陽)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강학하였으므로 그의 학과를 “민학(閩學)”이라고 부른다. 14세(1143) 부친이 임종 시 가족을 유면지(劉勉之)에게 부탁하여 가르침을 받았으며, 뒤에 유면지의 딸과 결혼하였다. 뒤에 유자휘(劉子翬)의 문하에 들어가 수학 하였다.

19세(1148)때 전시(殿試)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었으며, 복건성 천주(泉州) 동안현(同安縣)의 주부(主簿), 서기관(書記官)에 임명되어 지방학교를 감독관리, 동안현에서 돌아온 뒤 이동(李昉)에게 수학하면서 도학(道學)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 뒤 추밀원의 편수관, 비서성의 비서랑, 강서성의 남강(南康)과 복건성의 장주(贛州) 호남성의 담주(潭州: 현재의 장사長沙)등에서 행정 책임자로 많은 업적을 쌓았다.

37세(1166, 丙戌) 남현(南軒) 장식(張栻)의 영향을 받고, “병술지오(丙戌之悟)”로 불리는 중화구설(中和舊說)을 확립하였다. 즉 성체심용(性體心用)의 입장에

서 미발의 마음과 이발의 마음을 이원적으로 분리하였던 것이다. 40세(1169, 기축己丑) 채원정(蔡元定)과 논쟁하면서 “기축지오(己丑之悟)”로 불리는 중화신설(中和新說)을 확립하였던 것이다.

44세(1173) 주돈이의 『태극도설』에 주석을 달은 『태극도설해』를 완성. 『이정외서(二程外書)』를 편찬하였으며, 46세(1175) 동래(東萊) 여조겸(呂祖謙)과 함께 『근사록』(14권, 622편)을 편찬하였다. 50세(1179) 3월부터 1181년 3월까지 2년간 남강군지사(南康軍知事)를 역임하였는데, 이때 강서의 여산(廬山) 아래에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을 중건하였다. 58세(1187) 주자의 주관 아래 『소학』을 편찬하였다. 61세(1190) 장주(臘州)에서 지방관으로 재임하면서 정이의 제자인 여대균(呂大)이 기초한 여씨향약(呂氏鄉約)을 보완 실시하여 지역공동체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1194년 7월 광종(光宗, 1190~1194)의 뒤를 이어 영종(寧宗, 1195~1224)이 즉위하였을 때는 항주(抗州)에 있다가 시강(侍講)에 임명되어 『대학』을 강론하였으며, 12월 복건(福建) 건양현(建陽峴)의 고정(考亭)으로 돌아와 죽림정사(竹林精舍)를 세웠다. 당시 태황태후(太皇太后)의 비호아래 한탁주(韓侂胄)가 전권을 휘두르고 있었는데, 주자가 당시 권력계층을 비판하자 학문탄압이 시작되었다.

한탁주를 비롯한 호굉(胡宏)등은 당시 승상이었던 조여우(趙汝愚)를 살해하고, 채원정(蔡元定)을 도주(道州)로 유배시켰으며, 도학을 위학(僞學)이라고 하여 금지령을 내리고, 주자는 좌천되었으며, 주자의 문인들도 핍박하였다.

중요한 저서로는 『사서집주(四書集註)』, 『사서혹문(四書或問)』, 『주역본의(周易本義)』, 『주자어류(朱子語類)(164권)』, 『주자문집(朱子文集)(120권)』 등이 있다. 주자가 몰한 뒤인 1201년 위학 금지령이 해제 되었으며, 1202년 조정에서 주자를 높였다. 1208년 문(文)이라는 시호가 내려졌으며, 1230년에 휘국공(徽國公)에 봉해졌다. 1241년 이종(理宗), 순우1(淳祐1) 공묘에 “휘국공(徽國公) 주희(朱熹)”로 배향하였다.

때문에 유학의 집대성(集大成)은 공자이고 성리학의 집대성은 주자로서 집대성(集大成)이란 모든 이론을 집약하고 정리하여 성대하게 완성시켰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공자 맹자의 학문을 수사학(洙泗學)이라 하고 정자 주자의 학문을 정주학(程朱學) 또는 성리학(性理學)이라고 하여 1900여년간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 문화에 근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 4) 우리나라 성리학(性理學)

##### ① 퇴계(退溪) · 이황(李滉)

###### ◆ 출생과 유년시절

이황은 1501 연산군(燕山君) 7년 11월 25일 출생하여 1570 선조(宣祖) 3년 12월 8일에 향년 70세로 세상을 떠났다. 이름은 황(滉), 자는 경호(景浩), 호는 퇴계(退溪) 또는 청량산인(淸涼山人)이라고도 하였으며 시호는 문순공(文純公)이다.

퇴계는 경상북도 안동군 도산면 온혜리에서 진사 이식의 8남매 중 막내아들로 태어났으나 7개월 후인 다음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므로 어머니 박씨는 32세에 넉넉하지 못한 살림과 8남매를 양육해야하는 고초를 겪어야 했다.

어머니는 농사와 양잠을 하면서 어려운 집안 살림을 꾸려가며 학비를 마련하여 취학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고 학문뿐만 아니라 몸가짐과 행동을 성실히 하도록 가정교육을 철저히 하여 남보다 100배 이상 노력 할 것을 독려하셨다.

퇴계는 뛰어난 학문과 근엄한 인격과 성실한 행동은 바로 어머니 박씨 밑에서 자란 교훈의 덕뿐이었다. 그러므로 6세부터 글을 배우기 시작하여 12세에는 숙부로부터 논어를 배웠다.

###### ◆ 과거급제와 출세

퇴계는 20세에 주역을 배웠고 21세에 부인 허씨를 맞이하여 23세 아들 준(鵠)

을 낳았으며 그 해에 성균관에 입학하였다. 27(1527년)세에 향시에 합격하여 생원(生員)이 되었고 그 해에 둘째 아들 채(棗)를 낳은 후 부인 허씨가 별세하였다. 그러나 그는 더욱 정진하여 진사(進士)시험에 합격한 후 30세에 다시 부인 권씨를 맞이하여 아들 적(寂)을 낳았다. 32세에 문과 초시(初試)에 합격하였고 34세에 과거에 급제하여 승문원 권지부정사에 올랐다.

퇴계는 원래부터 벼슬에는 뜻이 없었지만 벼슬을 하게 된 이유는 가난한 살림과 어머니 봉양을 위하여 가족들의 권유로 과거를 보게 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알 수가 있다.

33세 때 한양에서 공부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여주 이호촌에 은거하고 있는 선배 김안국을 찾아간 일이 있었는데 34세에 과거에 급제하자 당시에 세도가였던 김안로가 동향이라는 친분으로 불렀으나 퇴계는 끝내 만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퇴계는 김안로의 감정을 사게 되었고 그 후 벼슬살이에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퇴계의 벼슬살이에 연연하지 않는 면모를 볼 수 있다.

37세에 어머니 박씨의 상을 당하여 고향으로 내려가 3년상을 마쳤다. 39세(1535년)에 홍문관 부수찬에 이어 경연검토�관을 겸직하였다. 이때는 간교했던 김안로가 실각하였기 때문에 관직을 수행하는데 방해는 받지 않았다.

그 후 중종이 승하하고 이어 인종이 승하하자 명종이 즉위하는 혼란한 시기에 이기의 횡포가 심해지면서 퇴계의 벼슬살이가 순탄하지 않았고 46세에 두 번째 부인 권씨마저 세상을 떠나자 낙향하여 학문을 닦는데 관심을 두게 되었다.

### ◆ 학문을 위한 은퇴 시도

48세 때 외직으로 단양군과 풍기군수를 지낸 후 50세에 퇴계(退溪)의 서쪽에 한서암(寒棲庵)을 짓고 학문에 열중하면서 후진 양성에 심려를 기울였다. 그 때

에 지은 시에서 그의 심경을 엿볼 수 있다.

퇴계는 이렇게 은퇴와 자성을 다짐 하였으나 60세까지 조정의 부름으로 상경이 잦았으며 성균관 대사성, 형조참의, 병조참의, 첨지중추부사 등의 벼슬을 제수 받았으나 오래지 않아 사퇴하곤 하였는데 이유는 건강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 ◆ 노년의 학문열정

66세 때 퇴계는 임금의 하명을 받고 영천까지 갔으나 신병으로 사퇴의 뜻을 아뢰고 명을 기다리기로 하였는데 명종은 다시 자헌대부 공조판서겸 예문관 제학을 제수하였다. 명종의 승하하고 선조가 등극한 뒤에도 의정부 우찬성을 제수하였지만 신병을 핑계로 간곡하게 사면을 청하였다.

그 뒤 학문에만 정진하면서 경연(經筵)에서 성학(聖學)을 풀어 올렸고 만년의 결정체인 성학십도(聖學十圖)를 선조에게 올렸다. 그 후에도 퇴계는 69세에 고향으로 돌아와 심경『心經』등을 강론하였고, 70세 되는 해 12월 8일 해화 화분에 물을 주게 하고 꽃을 바라보면서 영면하였다.

다음해 선조4년(1571년) 건지산에 장사 지냈으며 후에 도산서원을 세워 위패를 봉안하였다.

### ◆ 퇴계의 학문

퇴계의 학문은 정자(程子)와 주자(朱子)의 성리학(性理學)을 표준으로 삼아 경(敬)과 의(義)를 바탕으로 지(知)와 행(行)을 일체로 삼았다. 퇴계의 학구정신은 임금에게 올린 무진육조소(茂辰六條疏)에 잘 나타나 있다.

“성학(聖學)을 돈독히 하여 덕치의 근본을 세우십시오.” 어떻게 학문을 닦고 덕을 이루는 것으로 다스림의 큰 근본으로 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일집중(精一執中)이 학문의 가장 큰 법도입니다. 이 법도를 나라의 근본을 세우면

정치는 저절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경전의 진리에 따라 참으로 알고 실천하게 되면 태양이 중천에 떠올라 누구나 볼 수 있고 대로가 앞에 있어 누구나 갈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로지 걱정스러운 것은 세상의 임금된 분으로서 이러한 근본에 뜻을 가진 분이 많지 않다는 점이고 간혹 뜻을 가졌다 하더라도 시작만 있고 끝이 없는 임금이 많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통이 전하여지지 않고 덕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퇴계는 치지(致知)의 네 가지인 박학(博學) 심문(審問) 신시(慎思) 명변(明辯)과 아울러 성실히 실천할 것을 간곡히 아뢰었고 사람 사람마다 마음을 바로잡아야 덕치의 교화가 실현될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따라서 퇴계는 현실을 도피하려는 불교와 모든 가치와 질서를 무시하는 노장(老莊)사상을 이단으로 간주하고 배척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퇴계는 영면하기 몇일 전 제자들을 불러 모은 후 죽음을 앞에두고 제자들을 아니 볼 수야 있겠는가! 하고는 의관을 갖추고 정좌하며 말하기를 평소의 나의 틀린 식견으로 그대들에게 종일토록 수년간 강의했지만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다. 라는 겸허하고 양심적인 자취에 빛나는 스승으로서 귀중한 말을 남겼다.

특히, 퇴계의 학문은 정자(程子)와 주자(朱子)를 기준으로 한 성리학을 계승하여 전하였고 위로는 정몽주 길재 김종직 김굉필 정여창 김일손 김안국을 추모하였으며 고봉 기대승과 변론을 주고 받으면서 사단칠정설(四端七情說)에 대하여 주리적(主理的) 이기(理氣) 2원론을 주장하면서 사단의 마음은 리(理)가 일으킨 것이고 칠정의 정(情)은 기(氣)가 일으킨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이와 같이 퇴계의 학설은 당시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특히 영남학파의 거두로서 훗날 율곡의 기호학과와 우리나라 성리학의 양대계파로 성장해 나갔다.

## ② 율곡(栗谷) · 이이(李珣)

### ◆ 출생과 유년시절

율곡은 중종 1536(中宗31)년 12월 26일 강원도 강릉 북평촌(오죽헌) 외가집에서 태어났다. 어렸을 때 이름은 현룡(見龍), 자는 숙헌(叔獻), 본관은 덕수(德水)이고 성장 후 이름은 이(珣), 호는 율곡(栗谷)으로 경기도 파주가 고향인 율곡촌의 마을 이름을 따온 것이다. 아버지 이원수(元秀)와 어머니 사임당 신씨 사이에 4형제 중 셋째이다.

율곡은 어릴 때부터 총명하여 세 살 때 벌써 말과 글을 함께 배우기 시작했으며 여섯 살때 어머니를 따라 강릉 외갓집에서 서울로 올라와 어머니로부터 공부를 하게 되었다. 13세에 진사 초시에 합격한 후 16세에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19세에 집을 떠나 금강산으로 들어갔는데 원래부터 불경에 관심이 있다가 어머니의 별세로 절을 찾게 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1년 만에 하산하여 다시 유학에 정진하였는데 아마도 불교에서는 진리 탐구와 실천 윤리가 유가와는 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2세에 성주 목사 노경린의 딸에게 장가를 들었고 23세에 영남의 퇴계 이황에게 방문하여 도를 들은 후 더욱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이때 퇴계선생은 58세였다.

29세에 대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명종(19년) 정5품 호조좌랑에 오르고 사간원의 정언과 이조 좌랑을 지냈으며, 33세에 사헌부 지평과 성균관 직강과 홍문관 부조리를 지냈고, 35세에 홍문관 교리를 거쳐, 38세에 홍문관 직제학을 지냈으며, 39세에 우부승지를 거쳐, 40세에 홍문관 부제학과 44세에 사간원 대사간을 지냈고, 47세에 이조판서, 형조판서, 병조판서를 지내면서 내직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외직으로는 36세에 황해도 관찰사와 39세에 청주 목사를 지내기도 하였으며

명종과 선조대를 거치면서 많은 벼슬을 하였고, 특히 40세(선조8년) 홍문관 부제학으로 있을 때 지어 올린 성학집요『聖學輯要』와 47세에 이조판서로 있을 때 지어 올린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과 48세 병조판서로 있을 때 지어 올린 시무육조계『時務六條啓』 등을 저술하였고 또 경연에서 십만양병론『十萬養兵論』을 역설 하였지만 그럼에도 선조와 대신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의 정치상황은 동인과 서인들이 당쟁에 몰두 하면서 봉당으로 인하여 극도로 혼란해 졌으므로 율곡은 중립적 태도를 견지하며 당쟁을 무마하려 하였으나, 도리어 양편으로부터 의심의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되어 마침내 동인들은 서인을 두둔하는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선조에게 율곡 파면을 요청하기까지 이르렀다. 이때 동인들의 태도에 분개한 우계(牛溪) 성혼(成渾)이 상소하여 율곡을 변호하고 왕에게 주청하여 동인 우두머리 세 사람을 귀양 보냈다.

그러나 율곡은 모든 것을 단념하고 벼슬을 떠나 학문에 전념하고 있었는데 다시 왕의 부름을 받고 서울로 올라와 이조판서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지병이 악화되어 1584년(선조17년) 1월 16일 49세로 세상을 떠났다. 율곡은 이미 1년 전 자신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예감이나 하였던 듯 1583년 2월에 시무육조계『時務六條啓』를 지어 올리고 선조에게 10만대군 양병을 청하기도 하였는데 불과 9(1592)년 후 과연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말았다.

### ◆ 율곡의 학문과 사상

율곡은 퇴계와 함께 명종과 선조시대에 대현(大賢)으로 정치가이자 학자였다. 16세기 후반의 조선은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 파탄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때에 이러한 대세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분이 바로 율곡이었다. 그러나 선조마저 끝내는 믿어주지 않았고 사람들도 도와주기는 고사하고 적대시 하며 방해하기에 바빴다.

율곡이 평소에 존경했던 분이 정암 조광조와 퇴계 이황이었으나 성리학에 있어서의 퇴계와 조금 다른 견해로 이기일원론(理氣一元論)을 주장하면서 우리나라 학문의 양대 계파인 기호학과(畿湖學派)를 형성하였다.

율곡은 주자나 퇴계처럼 이치와 기운을 가지고 우주를 해석하여 우주의 삼라만상이 이치와 기운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결국 그것에 의해 우주가 형성되고 삼라만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그는 이치와 기운을 두 가지 본체와 두 가지 물질로 규정하고 있는 주자와 퇴계의 순수 2차원론에는 반대 입장을 취했다.

율곡은 이치를 형이상(形而上), 무위(無爲), 무변(無變)의 것 또 기운을 형이하(形而下), 유위(有爲), 유변(有變)의 것으로 인식하고 모든 사물 즉 물질 현상과 동적(動的)인 현상의 총화(總和)를 기운으로 보는 동시에 기운 자체 안에 있는 기본 원리와 원인을 이치라고 규정했다.

그리하여 이(理)와 기(氣)를 일체양면(一體兩面)인 것으로 보아 분석할 때는 둘이 되지만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 보면 이치와 기운이 결합하여 한 물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치는 기운에 의해 천태만상의 개별성과 차별성을 낳게 되면 기운은 그 자체 안에 있는 주재적(主宰的)인 이치가 아니면 나타날 수 없다는 논리이다.

율곡은 이러한 인과관계를 요약하여 “발하는 것은 기운이고 발하게 되는 까닭은 이치로서 기운이 아니면 발할 수 없고 이치가 아니면 발하게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아울러 이후 성인이 다시 나온다 해도 이 말은 고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 ◆ 정치 사상

수기(修己)와 치인(治人)은 유가의 기본 사상이다.

자기 인격의 완성을 위한 노력은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평화로

다스려 이상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때문에 정치사상의 기본은 도덕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도덕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따라서 올바른 정치를 펼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시대적 상황은 봉당정치로 인하여 정의가 오히려 박해를 받거나 세상 밖으로 밀려나는 현실에서 정암 조광조의 전철이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실과 이상은 다르기 때문에 수많은 학자들이 은둔하면서 학문에 전념하였는데 퇴계 이황도 대표적인 인물이다.

하지만 율곡만은 예외로서 기울어져 가는 국운을 바로 잡고 외세로부터 침략을 막아 진정한 수기치인의 결실을 거두고자 의욕적으로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동분서주하였다.

옛 춘추시대에 공자와 맹자가 자기를 써줄 임금을 찾아 주유천하 했던 일은 임금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정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맹자가 위나라 양혜왕과 제나라 제선왕에게 기대를 하였듯이 율곡도 선조에게 기대를 걸고 육조시무계『六條時務啓』를 올렸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중요한 저서로는 격몽요결『擊蒙要訣』을 지어 어린 학도들을 가르쳤으며 1910년 일제 강점기까지 명심보감 계몽편 동몽선습과 함께 기초 교과서로 남았다.

# 역사를 통해 교훈과 지혜를



김 인 규  
(강원도향교재단 이사장)

우리민족은 유학 경전을 통해 지식과 철학을 배웠고 역사를 통해 교훈과 지혜를 얻었다.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지만 다시 한 번 재조명하여 올바른 인식과 올바른 판단으로 융성했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확고했던 정통성을 보전함으로써 공부자의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에 의한 지혜와 정명론(正名論)에 근거한 정신을 본받아 정의사회와 도덕사회를 구현하는데 사명감을 다해야 한다.

성균관 역사(略史) : 성균이란 이기성기휴 균기과불급(以其成其虧 均其過不及) 예기집설에 완성된 것과 어그러짐을 바로잡아 이루게 하고 지나침과 모자람을 고르게 하여 예약과 교화의 조화를 균등하게 한다는 의미이다.

고구려시대 태학(太學) 신라시대 국학(國學) 고려시대 국자감 성균감 성균관(國子監 成均監 成均館)으로 개칭되어 왔으나 1894년 갑오개혁(김홍집내각 국기무처설치) 이후부터 1904년 외교 재정 경무에 대한 일본의 고문(顧問)정치와 1907년 정미조약에 의한 차관(次官)정치를 통하여 내정에 직접 간섭하기 시작하였다.

1910년 한일병탄으로 본격적인 식민지화에 착수하면서 1911년 성균관을 경학원으로 강등시킨 후 1930년 경학원 부설로 명륜학원을 설립하고 1939년 명륜전문학원으로 승격시킨 다음 1942년 다시 재단법인 명륜전문학원으로 인가했다가 일본의 태평양 전쟁 시작으로 폐교 조치되고 말았다.

1945년 광복을 맞이하여 명륜전문학교가 부활되었고 경학원을 성균관으로 환

원하였으며 미군 군정 1946년 명륜전문학교를 학린사(學隣舍)와 통합하여 성균관 대학교를 설립함으로써 오랜 세월 동안 국가 중추교육기관의 기능이 근대 신교육으로 바뀌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으므로 성균관의 약사를 살펴본다.

### ◎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 대학(太學) 설립

- 주례 대사악 장성균지법전 이시건국지학정  
(周禮. 大司樂. 掌成均之法典. 以始建國之學政)
- 양양왕 11년(600) 이문직(李文直)을 대학 박사로 삼다.

### ◎ 백제 근초고왕 29년(374) 고흥(高興)을 박사로 삼다.

### ◎ 신라 선덕여왕 12년(643) 김춘추가 당나라로부터 석전례를 보고 돌아와 처음으로 석전례를 올린다.

- 신문왕 682년 국학(國學)을 세우고 경(卿) 1명을 두다.
- 효소왕 원년(692) 설총이 이두(吏讀)을 지어 9경을 해석하다
- 성덕왕 13년(714) 김수충이 당나라로부터 5성위와 공문 10철의 초상화를 태학에 모시다.

### ◎ 고려 태조 13년(930)서경에 학교를 세우고 박사관을 두다

- 성종 2년(983) 임성노가 당나라로부터 문선왕묘 그림과 제기도와 72현의 기록을 가져오다.
- 성종 6년(987) 경학박사를 두다.
- 성종 11년(992) 국자감(國子監)을 설립하고 전장(田庄)을 하사하여 유생의 식량을 충당하도록 하다.
- 현종 11년(1020) 신라 문창후 최치원을 문묘에 종사
- 현종 13년(1022) 신라 홍유후 설총을 문묘에 종사

- 현종 22년(1031) 국자감 시험을 처음으로 실시
- 예종 7년(1112) 왕이 국자감에 행차하여 석전례를 올리고 경학을 강론하다.
- 인종 5년(1127) 처음으로 지방에 향교 설립을 명하다
- 충렬왕 33년(1307) 안향의 건의로 섬학전(瞻學錢)을 설치하고 김문정을 원나라에 보내 72현의 초상과 제기와 악기와 6경과 제자(諸子) 서적을 구해오고 이진(李眞)을 경학 교수로 삼았고 강릉 안찰사 김승인이 강릉향교를 세움.
- 충숙왕 6년(1319) 고려 문선공 안향을 문묘에 종사
- 공민왕 17년(1368) 성균관을 승문관 옛터에 세우고 대사성에 이색 박사에 정몽주를 임명함으로써 대사성 관직은 최초이다.

### ◎ 조선 태조 4년(1395) 한량관(閑良官)들을 향교 훈도로 임명

- 태조 6년(1397)한양 숭교방에 성균관 건립을 명하고 제주(祭酒)에 민안인 제조(提調)에 정도전과 권근을 임명
- 태조 7년(1398) 명륜동에 성균관을 완공
- 정종 2년(1400) 문묘 화재로 소실
- 태종원년(1401) 성균관 제주(祭酒)를 사성(司成)으로 약정(樂正)을 사예(司藝)로 개칭
- 태종 7년(1407) 문묘 재건
- 태종 9년(1409) 묘정비를 세우다.
- 태종 11년(1411) 6품 이상은 교수관으로, 7품 이하는 훈도관으로 호칭
- 세종원년(1419) 도성에 4부학당과 지방에 향교설치를 명하다. 지방에 교수관 훈도관 부족으로 수령이 생원 진사를 관찰사에게 추천하여 임명하도록 하다. 이종무에게 명하여 대마도를 정벌하다.
- 세종 7년(1425) 예조에서 소학 100권 수입
- 세종 11년(1429) 경연에서 강독하던 효경 250권 인쇄 보급

- 세종 23년(1441) 소학 200권 인쇄하여 향교에 보급
- 문종 원년(1451) 예조와 각도의 감사가 향교의 교육을 감독하도록 하고 성균관과 4부학당에 노비를 두다.
- 세조 5년(1459) 관찰사의 업무 중 향교 교육을 중점으로 명하다.
- 세조 8년(1462) 각 수령의 향교 장학사업을 관찰사가 관리하도록 명하다.
- 세조 10년(1464) 예조에서 성균관 9재(齋)학규 제정, 소학 대학 논어 맹자 중용 시전 서전 춘추 주역
- 성종 7년(1467) 안동권씨 족보를 시작으로 전국 확대
- 성종 16년(1485) 경국대전(經國大典)반포 태조부터 세종까지는 조선경국전 경제6전을 편찬해 사용해 오다가 보완 필요성에 따라 세조 6년(1460) 시작하여 25년 만에 완성한 경국대전은 조선의 최종법전임. 내용은 리. 호.례. 병. 형. 공. 전(吏. 戶. 禮. 兵. 刑. 工 典)으로 6조(曹)의 직제와 품계를 세분하여 기록하였고 이 법전에 의하여 체계적인 국가기관 직제제정.

### ◎ 리전(吏典)편 성균관 직제

- 대사성(大司成) 1인(정3품), 사성(司成) 2인(중3품), 사예(司藝) 3인(정4품), 직강(直講) 4인(정5품), 전적(典籍) 13인(정6품), 박사(博士) 3인(정7품), 학정(學正) 3인(정8품), 학록(學錄) 3인(정9품), 학유(學諭) 3인(중9품) 총 35인의 교직원을 두고 200명의 생원진사 유생을 숙식시키며 고급관리 양성을 위한 교학(敎學)기관임을 명시.

### ◎ 예전(禮典)편 부(府) 목(牧) 군현(郡縣)향교의 교관

- 경기도 교수(중6품) 11명, 훈도(중9품) 26명
- 충청도 교수(중6품) 4명, 훈도(중9품) 50명
- 경상도 교수(중6품) 12명, 훈도(중9품) 55명

- 전라도 교수(종6품) 8명, 훈도(종9품) 49명
  - 황해도 교수(종6품) 6명, 훈도(종9품) 18명
  - 강원도 교수(종6품) 7명, 훈도(종9품) 19명
  - 함경도 교수(종6품) 13명, 훈도(종9품) 9명
  - 평안도 교수(종6품) 11명, 훈도(종9품) 31명
- 계 교수(종6품) 72명, 훈도(종9품) 257명, 총 329명

### ◎ 학령(學令)규칙

1. 노자 불가 제자백가(諸子百家)의 서적을 읽는 자
2. 조정을 비방하는 자
3. 5륜을 범한 자 등은 벌함
4. 고과(考課)는 대통(大通), 통략(通略), 통조(通粗), 통통(通通)으로 구분하여 조통(調通) 이하는 벌함
5. 매월 8일 23일은 정기휴일(세탁일)
6. 매년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우수한 2인을 천거(薦)등용

※ 위와 같이 이전편 예전편 학령을 규정함에 따라 성균관은 성현을 봉사(奉祀)하는 사모적(祠廟的) 기능을 겸비한 고급관리를 양성하는 교학(敎學)기관임을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명시하고 있어 조선시대 성균관 직제를 비교해 보고 올바른 인식과 판단으로 유학의 정통성을 보전하고 종교 운운하는 왜곡을 증식하는데 목적이 있음.

- 중종 12년(1517) 고려 문충공 정몽주를 문묘에 종사
- 명종 7년(1552) 이황을 대사성에 임명
-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으로 문묘소실
- 선조 34년(1601) 문묘 중건

- 광해 2년(1610) 문경공 김굉필, 문헌공 정여창, 문정공, 조광조, 문원공 이언적, 문순공 이황을 문묘에 종사
- 숙종 8년(1682) 문성공 이이, 문간공 성혼을 문묘에 종사
- 영조 32년(1756) 문정공 송시열, 문정공 송준길을 문묘에 종사
- 영조 40년(1764) 문순공 박세채를 문묘에 종사
- 정조 20년(1796) 문정공 김인후를 문묘에 종사
- 고종 20년(1883) 문렬공 조헌, 문경공 김집을 문묘에 종사
- 고종 21년(1884) 안자 증자 자사 맹자를 씨(氏)로 개칭.
- 순종 2년(1908) 칙령 제76호 성균관직제 제10조에 의하여 성균관장 교수 직원으로 직제개정(일제차관정치).

#### ◎ 일제 강점기 1911년 대제학 부제학 사성 강사 직원으로 직제개편.

#### ◎ 미군 군정 1947년 관장 부관장 전의 전학사의 전교로 명칭 변경.

- 대한민국 1949년 전국 유림대회에서 심산 김창숙관장의 발의로 중국 113현을 매안(埋安)한 후 5성위 송조2현 우리나라 18현의 위패를 대성전에 봉안하고 춘추석전 대신 공부자 탄강일 음력8월 27일에 기념 석전을 거행하기로 결의함.
- 1961년 전국 유림대회에서 공문 10철과 송조4현을 복위하고 춘추2월 8월 상정일에 석전을 봉행하기로 결의함.

#### ◎ 극동지역의 열강진출 시도

- 1668년 네덜란드 사람 하멜이 표류로 14년간 조선에 억류되었다가 탈출하여 표류 기행문을 발표함으로써 조선과 일본이 서방에 알려지는 계기가 됨.
- 1854년 미·일 화친조약
- 1858년 일본이 미국·영국·프랑스·네덜란드·러시아와 통상조약 체결

- 1861년 미국 남북전쟁(링컨)
- 1868년 일본 메이지 유신(무츠히토 정한론征韓論 대두)(근대화개혁)
- 1875년 일본의 운양호 피격사건(강화도)
- 1876년 강화도 조약(병자丙子수호조약)
- 1884년 갑신(甲申)정변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등 급진개화파 3일 천하)
- 1894년 갑오(甲午)개혁 (김홍집, 어윤중, 김윤식등 온건개화파 군국기무처 설치)  
동학농민운동(전봉준)  
고종 청나라에 진압군 요청(이홍장)  
일본이 청나라와 주도권 다툼으로 청일전쟁 돌입(1895까지)
- 1895년 김홍집내각 성균관제 공포(예조관할에서 의정부학부관할로)
- 1896년 을미사변(乙未事變) (민비시해 사건)(김홍집내각 붕괴) 고종 러시아 공관 피신 아관파천(俄館播遷)
- 1897년 고종황제 대한제국 선포(연호 광무光武)
- 1904년 러·일 전쟁(1905까지)
- 1904년 1차 한일협약
- 1905년 7월 도쿄에서 일본은 미국과 비밀협정을 맺고 미국이 필리핀을 일본이 대한제국의 지배를 인정하는 가쓰다 다로 총리와 윌리엄 태프트 육군장관이 밀약.
- 1905년 8월 일본은 영국과 제2차 동맹을 맺음.
- 1905년 9월 미국의 군항 도시인 포츠머스에서 미국의 중재로 일본과 러시아가 종전하기로 협상하는 강화회담이 열렸다.
- 1905년 11월 2차 한일 을사늑약(乙巳勒約) (외교권 박탈, 통감부설치 외교재정 경무 고문顧問정치)
- ※ 그러므로 가쓰다-태프트 밀약과 러·일간 포츠머스 협약은 사실상 일본의 조선 식민지화를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이준열사를 파견하여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려고 하였으나 일본은 이미 미국·영국·프랑스·네덜란드·러시아와 동맹 및 통상조약을 맺고 있었으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일본은 을사늑약 위반이라며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킴(연호 융희隆熙)
- 1907년 7월 3차신협약 정미(丁未)조약을 체결하여 차관(次官)정치 시행으로 사실상 국권 상실됨
- 1909년 만주 하얼빈역 이등박문(이토 히로부미)저격(안중근의사)
- 1910년 한일병탄
- 1918년 제1차 세계대전 종전(연합군 승리)
- 1919년 3·1 독립 만세운동
- 1919년 면우 곽종석(俛宇 郭鍾錫) 선생대표로 137명이 서명한 독립을 청원하는 파리장서(巴里長書)를 제1차 세계대전 종전에 따른 파리 강화회의에 보내기 위하여 심산 김창숙(心山 金昌淑)선생이 상해 임시정부로 떠났지만 성과는 볼 수가 없었다. 그 이유는 일본이 이미 열강들과 각종 협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약소국의 청원은 처음부터 불가능이었다.
- 1939년 독일과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주축국과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 등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 사이에 참혹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남.
- 1941년 12월 일본은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함으로써 태평양 전쟁으로 확대되어 패망 자초함.
- 1945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세계 최초 원폭 투하로 일본은 마침내 항복하고 우리나라는 36년 만에 광복을 맞이함.
- 1946년 일제강점기의 무단(武斷)정치 횡포로 활약하지 못했던 유림들을 심산 김창숙 선생이 결집하여 유도회를 최초로 창립하고 성균관 대학교를 설립하였으며 성균관(경학원)을 복원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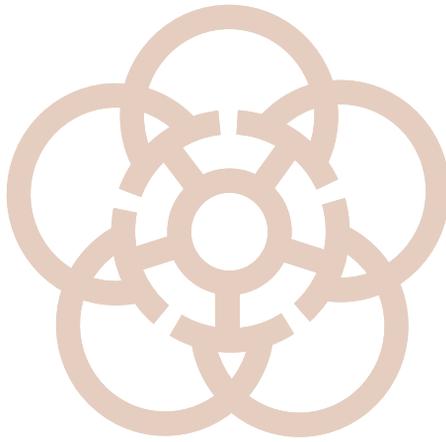
유구한 성균관의 유래와 근대에 야기되었던 한반도 주변 정세의 변화를 살펴본다면 일맥상통(一脈相通)으로 이어온 전통학문(유학)을 더 이상 종교 운운하는 과오는 종식되어야 하며 다만 천명사상(天命思想)을 존중했던 생활 철학으로 계승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제국주의가 팽창하는 시대에 일제강점기의 식민지화 책략으로 한민족의 교육체계를 말살하고 오직 순화시켜 협조하게 하는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변질시켜놓은 유림 조직 체계와 관행을 이제는 과감하게 중단하고 정통성을 바로 세워야 한다.

문묘석전도 김창숙선생이 추진 하셨던 공부자 탄강일(9월 28일)로 한정 하는 것이 시대정신에 맞을 것이며 중국도 이미 시행하고 있다.

조선 건국 초기부터 조선경국전과 경제6전을 거쳐 경국대전(經國大典)(1485)을 완성하게 된 근본 취지를 다시는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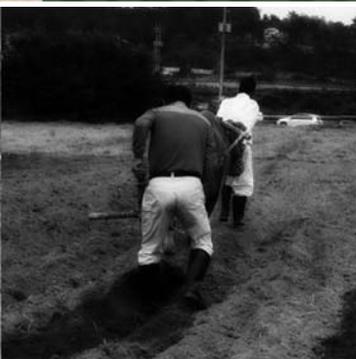
이제는 대망의 2020 경자년을 맞이하여 교학사상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는 원년으로 삼아 분산된 유림조직(재단, 성균관, 유도회)을 대통합하고 공약이 아닌 실천하는 유림으로 거듭나야 하겠다. 이제는 지식보다 실천이 중요하고 존재보다 역할이 중요한 시점임을 인식해야 한다.



[www.hs-culture.or.kr](http://www.hs-culture.or.kr)



### Ⅲ. 횡성사람, 횡성이야기



\* 횡성의 새 | 한상균

\* 횡성의 소물이꾼을 찾아서 | 정재영

\* 횡성평화의 소녀상 | 박현숙

# 황성에서 보는 새



한상균

## I. 들어가는 말

올해는 운이 매우 좋았다. 새사진을 찍기 시작한 지가 20여년이 넘었지만 큰유리새를 만났을 때처럼 기뻐던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나무위에 앉은 파란색의 큰유리새를 보았을 때 얼마나 황홀하든지 지금도 생생하다. 하지만 그 때의 황홀한 색깔을 사진으로 옮기지 못한 것이 더 안타깝다. 그 후에도 또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섬강둘레길을 걸었지만 만날 수 없어 많이 아쉽다. 그것도 다 망원렌즈를 새로 구입한 덕에 새로운 새를 생생하게 촬영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 II. 황성에서 보는 새

2011년 황성문화원에서 발행한 “황성문화 통권 제 26 호”에서 ‘황성에서 보는 새’라는 제목으로 10목 31과 45종의 새를 소개하였다. 이번에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황성에서 촬영한 5목 12과 19종을 소개한다.

### 가. 기러기목

#### 1. 오리과

##### 1) 청둥오리-*Anas platyrhynchos* Linnaeus, 1758

2016년 4월 10일 오전 11시쯤 갑천면 구방리 황성호수길 제1구간에서 촬영하였다. 호수에서 무리지어 헤엄치고 있었는데, 경계심이 강하여 접근이 힘들었다. 몸길이가 약 60cm, 수컷은 머리가 녹색을 띄고 암컷은 갈색 얼룩이 있다. 집오

리의 원종이며, 한국에서는 가장 흔한 겨울새이자 대표적인 사냥용 새였다고 하는데, 러시아, 일본 등지에서 번식하고, 9~11월에 남쪽으로 날아와서 겨울을 보낸다. 낮에는 물위, 제방, 모래톱 등에서 쉬다가 밤에 나와 풀씨, 곤충, 새우, 게 등을 잡아먹는 잡식성이다. 평소에는 대개 무리생활을 하지만 번식기에는 암수 한 쌍이 생활한다. 수컷은 몸 빛깔이 화려하게 바뀌는데, 4월 하순에서 7월 상순까지 한배에 6~12개의 알을 낳아 28~29일 동안 암컷이 품는다. 수컷은 암컷이 알을 낳으면 둥지를 떠나 수컷만의 무리를 만들며, 새끼를 키우는 것은 암컷이 전담한다. 수명은 야생에서 약 30년이다.



물에서 쉬고 있는 모습 2016년 4월 10일 갑천면 구방리

## 나. 딱따구리목

### 2. 딱따구리과

#### 2) 오색딱따구리-*Dendrocopos major*, Linnaeus, 1758

삼일공원에서 2019년 5월 28일부터 6월 3일까지 암수가 함께 새끼 키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오래된 참나무 구멍에 새끼를 쳤는데 사람이 접근하면 머리

를 좌우로 흔들면서 소란스럽게 경계음을 내는 모습이 애처로웠다. 굴속의 새끼를 직접 볼 수 없는 것이 안타까웠다.



오색딱따구리 수컷 2019년 5월 28일 황성읍 삼일공원



오색딱따구리 암컷 2019년 6월 1일 황성읍 삼일공원



새끼 키우는 모습 2019년 6월 1일 황성읍 삼일공원

오색딱따구리는 크기 약 23cm 이며, 흰색·검은색·진홍색·연갈색 등 다채로운 몸 빛깔을 가진 것에서 이름 붙여졌다. 산지 숲속에서 단독 또는 암수 함께 생활할 때가 많은 혼한 텃새이며 딱따구리류 중 가장 수가 많다. 단단한 쉰피를 이용해서 나무줄기에 세로로 앉는다. 밤에는 나무 구멍 속에서 잔다. 나무줄기를 두드려서 구멍을 파고 긴 혀를 이용해서 그 속에 있는 곤충류의 유충을 잡아먹는다. 곤충류와 거미류 및 식물의 열매를 먹는다. 번식기가 되면 숲속 나무줄기에 구멍을 파고 그 속에 둥지를 튼다. 5~7월에 4~6개의 알을 낳는다. 알을 품는 기간은 14~16일이며 새끼는 부화한 지 20~21일만에 둥지를 떠난다. 번식이 끝나면 가족단위로 무리 짓는다. 수명은 약 10년이다.

## 다. 매목

### 3. 매과

#### 3) 황조롱이-*Falco tinnunculus*, Linnaeus, 1758

북천리 섬강변에서 촬영한 황조롱이는 농약과 공장폐수 그리고 그 밖의 오염 원으로 농축(濃縮)된 새나 짐승과 그 밖의 동물성 먹이를 주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번식률의 저하와 서식환경의 파괴, 그리고 남획까지 겹들여져 그들의



생존을 크게 위협받고 있어, 1982년 11월 4일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323-8호로 지정되어 있다. 몸길이 30~33cm인데 전국적으로 흔히 관찰할 수 있는 텃새이다. 번식기 외에는 단독생활을 하며 먹이는 주로 땅위의 목표물 위에서 낮게 날거나 정지비행을 하다가 급강하하여 날카로운 발톱으로 사냥한다.

먹이감을 찾는 모습 2016년 4월 3일

먹이는 들쥐, 두더지, 작은 새, 곤충류, 파충류 등을 먹는다. 산지에서 번식한 무리가 겨울에는 평지로 내려와 흔히 눈에 띄나 여름에는 평지에서 보기 어렵다. 번식기인 4~5월 사이에는 암수가 짝을 지어 생활한다. 주로 강가 산림에서 번식하고, 도시의 아파트, 고층건물에서의 번식이 늘고 있다. 알은 보통 4~6개 정도 낳으며, 색깔은 흰색이나 크림색 바탕에 적갈색 또는 흑갈색의 얼룩무늬가 흩어져 있다. 알을 품는 기간은 약 27~31일 정도이며, 암컷이 주로 알을 품는다. 새끼는 부화 후 약 30일 이내에 둥지를 떠난다. 수명 약 10년이다.

## 라. 사다새목

### 4. 가마우지과

#### 4) 민물가마우지-*Phalacrocorax carbo Linnaeus, 1758*

2016년 5월 8일 소양강에서 처음 보았을 때 ‘까마귀 무리가 물에서?’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민물가마우지였다. 2017년 6월에는 황성에서도 촬영할 수 있었다. 몸길이 89~102cm, 뺨과 목은 흰색이고 나머지는 검은색이다. 시베리아 북극 인근 지역에서 번식하고 늦가을 쫓 주로 남해 거제도과 서해 앞바다 섬에

서 겨울을 나는 흔한 겨울철새였으나 기후변화로 횡성에서도 무리지어 번식하고 있다.



날개를 활짝 편 모습 2019년 4월 20일 횡성읍 섬강



날아가는 모습 2019년 4월 5일 횡성읍 섬강



앉아 쉬는 모습 2019년 4월 5일 횡성읍 섬강



번식 모습 2016년 5월 8일 춘천 소양강

둥지는 암초나 죽은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접시 모양으로 만드는데, 산란기는 5월 하순에서 7월이며, 한배에 낳는 알의 수는 4~5개이다. 알을 품는 기간은 약 34일이며, 부화한 새끼는 약 40일간 둥지에 머무른다.

가마우지들은 잠수를 매우 잘하는 새로, 보통 30초쯤 5~10m 깊이까지 잠수하여 물고기를 잡는다. 중국이나 일본의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가마우지를 이용하여 물고기를 잡는다고 한다. 가마우지는 부리 끝이 갈고리 모양을 한 뾰족한 주둥이를 갖고 있어 물속에서 물고기를 쉽게 잡아챌 수 있는데, 이렇게 잡은 물고기를 삼킬 수 없도록 어부는 목 아랫부분을 실 같은 것으로 묶어 물속으로 들어가 물고기를 물고 올라온 가마우지의 입에서 물고기를 꺼내는 것이다. 먹이를 구하는 곳과 휴식하는 곳의 이동시 기러기처럼 일정한 대형을 유지하며, 무리지어 날아다닌다. 수명 15~20년이다.

## 마. 올빼미목

### 5. 올빼미과

#### 5) 수리부엉이-*Bubo bubo* Linnaeus, 1758

2011년 7월 9일 덕고산에 올랐다가 내려오는 길에 소나무 가지에 앉아있는 수

리부엉이를 보았다. 몸길이 약 70cm의 대형 조류로 머리에 난 귀 모양 깃털이 특징인데 1982년 11월 4일 천연기념물 제324호로 지정되었고, 2012년 5월 31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낮에는 깊고 어두운 숲 속이나 나무 구멍에 숨어 있다가 어두워지면 활동을 시작하여 새벽 해 뜰 무렵까지 활동한다. 쉴 때는 곧게 선 자세로 날개를 접고 나뭇가지나 바위에 앉아 있다가 낮게 파도 모양으로 날며, 밤에는 하늘 높이 떠서 바위산을 오가기도 한다. 다른 야행성 조류와 마찬가지로 깃털이 부드러워 날아다닐 때 거의 날개소리가 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비교적 드문 텃새이나 전국에 걸쳐 분포하며, 수명은 21년이다. 산란은 2월에 하며 바위굴 밑의 편평한 곳, 또는 바위벽 사이의 틈을 이용하여 둥지 없이 한배에 2~3개의 알을 낳는다.



잠자는 모습 2011년 7월 9일 황성음

알을 품는 기간은 34~36일이고, 새끼의 성장 기간은 35일이다. 새끼에게 주로 꿩·산토끼·쥐를 잡아 먹이고, 어미새는 그 밖에 개구리·뱀·도마뱀·곤충 따위도 잡아먹는다.

민속에서는 한밤중에 우는 부엉이 소리가 죽음을 상징하는데, 예로부터 부엉이가 동네를 향해 울면 그 동네의 한 집이 상을 당한다고 하였다. 동양에서는 어미를 잡아먹는 불효조로 여긴다. 또 먹이를 닥치는 대로 물어다가 쌓아 두는 습성이 있어 재물을 상징하기도 한다. 한편 ‘고양이 얼굴을 닮은 때’라고 해서 묘두옹(貓頭鷹)이라고도 불렀다. ‘고양이 묘(猫)’는 70세 노인을 뜻하는 ‘모

(詩) 자와 음이 비슷해 장수를 상징하기도 한다. 그 외에도 부엉이가 울면 풍년이 든다는 말은 수리부엉이가 곡식을 먹어치우는 쥐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생긴 말이며, 부엉이 곳간 같다는 수리부엉이가 새끼에게 먹일 먹잇감을 둥지 주변에 저장해 두는 습성에 빗대어 온갖 재물을 모아 두어 풍족한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부엉이 집 만났다는 ‘부엉이 곳간 같다’와 비슷한 뜻으로 수리부엉이의 둥지를 발견하면 주변에 숨겨둔 꿩이나 토끼 등을 얻을 수 있었기에, 뜻하지 않게 먹을 복이 생겼거나 재물이 생겼다는 뜻이다. 낮에는 물체를 잘 보지 못해 어리석어 이해타산이 분명하지 못한 셈을 부엉이셈이라 한다.

## 6. 참새목

### 6. 까마귀과

#### 6) 까마귀-*Corvus corone orientalis* Linnaeus, 1758



까마귀 1 2009년 6월4일 황성음 덕고산



까마귀 2 2019년 7월 18일 섬강둘레길

까마귀사진은 여러 장 촬영했으나 마음에 드는 사진을 아직도 얻지 못해 안타깝다. 까마귀는 몸길이 50cm로 산지 숲, 농경지, 농촌 인가 부근, 하천부지, 공원에서 무리지어 생활한다. 평소에는 벌씨, 식물의 열매, 곤충, 죽은 동물의 시체, 음식물 찌꺼기 등을 먹지만, 번식기에는 주로 동물성 먹이를 많이 먹는다.

알을 낳는 시기는 3월 하순 ~6월 하순이고, 1년에 한 차례 한배에 4~5개의 알을 낳는다. 암컷이 알을 품는 동안 수컷은 암컷에게 먹이를 날라다 먹인다. 암컷이 주로 알을 품고 수컷은 먹이를 운반하는 역할 분담을 한다. 알을 품는 기간은 19~20일이고 새끼는 부화한 지 30~35일이면 둥지를 떠난다. 어린 새는 둥지를 떠난 뒤에도 오랫동안 어미새와 함께 지낸다. 번식이 끝나면 제각기 무리를 지어 휴식처와 텃세권을 정하고 아침저녁으로 오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까마귀는 다른 종류의 새에 비해 대뇌가 발달해 학습능력이 좋은 새, 영리한 새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까마귀의 집단은 리더가 없는 단순한 집합체인데, 이 때문에 ‘오합지졸(烏合之卒)’이라는 말이 생겼다. 또 까마귀는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지만 영리해서 피해를 막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제주도 신화 ‘차사본풀이’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인간의 수명을 적은 적패지(赤牌旨)를 강림이 까마귀를 시켜 인간 세계에 전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마을에 이르러 이것을 잃어버린 까마귀가 자기 멋대로 외쳐댔기 때문에 어른과 아이, 부모와 자식의 죽는 순서가 뒤바뀌어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죽어 갔다. 이때부터 까마귀의 울음소리를 불길한 징조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 7) 까치-*Pica serica Gould, 1845*

까치도 까마귀처럼 마음에 드는 사진을 얻기가 힘들었다. 몸길이 50~54cm 정도로 까마귀보다 조금 작는데 꽂지가 길어서 26cm에 이른다. 어깨와 배·허리는 흰색이고 머리에서 등까지는 금속성 광택이 나는 검정색이다. 암수 같은 빛깔이다. 날 때 둥근 날개를 펼치며 비교적 천천히 난다. 한곳에서 사는 텃새로서, 둥지는 마을 근처 큰 나무 위에 마른가지를 모아 지름 약 1m의 공 모양으로 짓고 옆쪽에 출입구를 만든다. 일반적으로 둥지는 해마다 같은 것을 수리해서 쓰기 때문에 점점 커진다.



까지 1 2019년 5월 31일 횡성읍 삼일공원

한배에 낳는 알의 수는 2~7개이다. 알을 품는 기간은 약 18일이고, 부화한 새끼는 약 22~27일 후에 등지를 떠난다. 암컷이 알 품기와 새끼 기르기를 전담하고, 수컷은 등지를 비롯한 세력권을 방어하는 등 번식기에는 암수가 역할 분담을 한다. 번식기에는 세력권을 형성하며, 세력권의 크기는 서식지 조건에 따라 다르며 적개는 1ha~10ha 이내이다. 번식기가 아닐 때에는 세력권을 형성하지 않는다. 번식이 끝난 6~8월에는 소수가 무리를 이루며, 월동기인 12월에 가장 큰 무리를 이루어 먹이활동, 천적방어 등을 하며 겨울을 난다. 식성은 잡식성이어서 쥐 따위의 작은 동물을 비롯하여 곤충·나무열매·곡물·감자·고구마 등을 닥치는 대로 먹는다. 나무의 해충을 잡아먹는 익조이기도 하다.



까치 2 2019년 6월 1일 황성읍 삼일공원

또 까치는 머리가 아주 좋아서 대략 6~8세 아이 정도 지능이 있으며, 거울을 알아본다고 한다. 적응력이 강해서 어디에서나 잘 산다고 한다. 인간의 도시에서도 잘 살아가는 편이다. 참새, 비둘기, 제비와 함께 한국인에게 친숙한 새다.

《삼국유사》에는 계림의 동쪽 아진포에서 까치소리를 듣고 배에 실려온 궤를 얻게 되어 열어 보았더니 잘생긴 사내아가기가 있었는데, 훗날의 탈해왕이 되었다는 석탈해신화가 실려 있다. 이로 인하여 까치는 귀한 인물이나 손님의 출현을 알리는 새로 여겨지게 되었다.

《동국세시기》에는 설날 새벽에 가장 먼저 까치소리를 들으면 그 해에는 운수 대통이라 하여 길조로 여겨왔다. 불교에서는 보양(寶壤)이 절을 지으려고 북령에 올라갔다가 까치가 땅을 찌고 있는 것을 보고 그곳을 파보았더니 해묵은 벽돌이 나왔는데 이 벽돌을 모아 절을 세우고 작갑사(鵲岬寺)라 하였다는 설화가 전한다. 이 설화에서 까치는 부처의 뜻을 전하는 행운을 상징한다.

민간 세시풍속에 칠월칠석날 까치가 하늘로 올라가 견우직녀의 만남을 돕고 자 오작교(烏鵲橋)를 놓는다는 전설에서는 성실한 사람을 돕는 선행자의 역할을 맡고 있다. 한편 유난히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을 “아침 까치 같다” 하고, 허풍을 잘 떨고 흰소리 잘 하는 사람을 “까치 뺏바닥 같다” 고 빗대어 말하기도 한다.

까치는 현재 울릉도를 제외한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흔한 텃새이지만, 1989년까지 제주도에 까치가 살지 않았었다. 1963년 국제조류보호위원회에서 한차례 까치 8마리를 육지에서 공수해 제주도 내 산림이 가장 밀집된 삼성혈 수림에 방사하였으나 방사된 개체가 서서히 줄면서 70년대 이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이 같은 현상을 당시 조류학자들은 제주도의 기후조건과 주변 다른 종들과의 관계로 인해 까치가 견디지 못하고 죽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 후 80년대 중반 까지도 제주도에서는 까치를 관찰할 수 없었으나 1989년 아시아나항공과 일간스포츠가 창간 기념행사로 까치 53마리를 제주도에 방사하면서 현재 많은 수의 까치가 제주도에 서식하게 되었다.

울릉도에는 현재까지 까치가 살고 있지 않는다. 1991년 경상북도에서 까치 34마리를 울릉도에 방사하였으나 매년 개체가 줄어들더니 1997년 이후 자취를 감추었고 현재까지 관찰이 되지 않고 있다.

길조로 알려져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까치가 현재는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며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산림 개발 및 도시화를 통해 생태계의 균형이 깨어지면서 까치의 천적이던 맹금류의 수가 줄어들어 번식력이 좋은 까치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된 데 원인이 있다.

봄, 여름에 나무의 유해 곤충을 잡아먹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반해 딸기, 수박, 감귤, 사과 등의 과실을 쪼아 먹어 과수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하고, 비닐 하우스를 쪼아 구멍을 뚫어놓는 등 다양한 형태의 재산피해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선에는 까치의 농작물 피해를 줄이는 다각적인 연구 및 제품을 출시하고 있지만 학습능력이 좋은 까치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작물의 재배시기에 따라 까치를 유해조수로 분류하여 해마다 포획하고 있어 더 이상 길조로 사랑받던 새의 위상은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 7. 되새과

### 8) 되새-*Fringilla montifringilla* Linnaeus, 1758



되새(암컷)의 먹이활동 2016년 4월 2일 황성읍 삼일공원

2016년 4월 20일 아침에 삼일공원을 오르는데 되새를 만났다. 몸길이 약 16cm로 몸빛은 등이 검은색, 허리는 흰색, 배와 어깨는 황적갈색을 띠는 예쁜 새였다. 전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겨울새로, 수십 마리에서 수백 마리씩 무리지어 나뭇가지에 앉아 있다가 일제히 땅에 내려앉아 먹이를 찾는다고 하는데 황성에서는 한 번 밖에 관찰하지 못했다. 무리를 짓는 까닭은 부엉이, 매, 수리 같은 맹금류에 대항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되새(수컷) 2016년 4월 20일 황성읍 삼일공원

10월 초순부터 도래해 한국을 통과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산란, 생육 등의 과정을 관찰할 수 없으나 대개 5월 중순에서 6월 상순 사이 6~7개의 알을 낳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화 후 어미가 물어다 주는 식물, 나비나 나방의 유충 등 벌레를 먹고 자라다가 성숙하면 씨앗도 먹는다. 또한 번식 중 세력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암수 각 쌍이 고르게 흩어져 있으며, 수컷은 자신의 세력권 안에서만 지저귓다. 이 지저귀는 세력권에 대한 점유를 표시하고 배우자에 대한 유인 작용을 한다. 여름에는 주로 곤충을 잡아먹고 겨울에는 나무열매나 풀씨 따위를 먹는다. 주로 유라시아의 북위 55~68° 지역에서 번식하고 남쪽의 온대와 열대에서 겨울을 난다. 되새의 수명은 2~3년으로 길지 않다.

#### 10) 콩새-*Coccothraustes coccothraustes* Linnaeus, 1758



2016년 4월 20일 횡성읍 삼일공원

전국에서 겨울을 나는 흔한 겨울새이다. 몸길이 약 18cm이다. 콩새는 강력한 부리가 특징이다. 부리가 투박하고 목이 굵으며 꽂지가 짧다. 이동 시기에는 10마리 안팎의 작은 무리를 짓고 겨울철에는 작은 무리를 짓거나 단독으로 생활한다. 주로 높은 나무 위에서 생활하지만 땅 위에 내려앉기도 하고 땅 위를 걸 어다니면서 씨앗을 찾아 먹는다. 금속성의 예리한 소리로 우는데, 번식기에는 휘파람 소리를 내며 지저귈다. 낙엽활엽수림 가장자리에서 자라는 관목 또는 하구의 관목 숲에 등지를 틀고 5월에서 6월에 한배에 3~6개의 알을 낳는다. 알을 품은 지 10~11일이면 부화하고 부화한 지 10~11일이면 등지를 떠난다. 새끼는 암수가 함께 기른다. 먹이는 주로 식물성이다. 가을에서 봄까지는 느릅나무과와 녹나무과 나무의 씨앗이나 열매를 즐겨 먹고 여름철에는 장미과 식물의 씨앗이나 복숭아 따위를 먹는다. 단, 번식기에는 딱정벌레를 잡아먹는다.

## 8. 딱새과

### 11) 큰유리새-*Cyanoptila cyanomelana* Temminck, 1829

2019년 4월 20일 섬강둘레길을 걷는데 처음으로 큰유리새를 보았다. 색이 고운 아름다운 새였다. 사진 촬영할 때 마다 조금씩 옆가지로 옮겨 가지만 멀리 날아가지는 않았다. 전국에 번식하는 흔한 여름새라고 하는데 나는 난생 처음 보는 새였다. 이동하다 황성에 잠깐 머무르는 나그네새가 아닌가 생각된다. 한국에서 여름을 보내고 동남아시아에서 겨울을 보내는 여름철새로 몸길이는 16.5cm이다. 수컷은 이마와 머리꼭대기로부터 등까지는 광택이 있는 파란색이다. 얼굴과 가슴 옆구리는 검은색, 배는 흰색, 꼬리는 푸른색이다. 암컷은 등은 연한 녹색을 띤 갈색, 가슴과 목은 회갈색, 배는 흰색이다. 어린 수컷은 암컷과 비슷하나 날개와 허리가 파란색을 띠지만 정도가 다양하다.



큰유리새 1 2019년 4월 20일 횡성 섬강둘레길



큰유리새 2 2019년 4월 20일 횡성 섬강둘레길

대개 암수 함께 살다가 번식이 끝날 무렵에는 어린 새를 데리고 가족무리를 이룬다. 주로 나무 위에서 생활하고 땅 위에는 내려오지 않는다. 수컷은 둥지 부근의 전망이 좋은 나무꼭대기에 앉아 아름다운 소리로 지저귀며 번식기에는 일정한 텃세권을 차지한다. 날개를 퍼덕여서 이 나뭇가지에서 저 나뭇가지로 재빨리 이동하는데, 일단 자리를 잡은 뒤에는 잘 움직이지 않으며 날아다니는 곤충을 잡아먹고는 다시 본래 위치로 되돌아오는 습성이 있다.

4월 하순부터 지저귀기 시작해서 8월 상순까지 계속 지저귄다. 지저귄 때는 먹의 깃털을 약간 세우고 지저귀며 때로는 흰눈썹황금새와 멧새의 울음소리를 흉내낼 때도 있다. 가끔 암컷이 수컷과 비슷한 소리로 지저귄 때는 몸을 다소 흔든다. 깊은 골짜기의 낙엽활엽수림에서 번식하고 바위 또는 절벽의 흠속에 둥지를 튼다. 5~7월에 한배에 3~5개의 알을 낳는다. 포란 후 부화하여 약 13~15 일간의 육추를 거쳐 이소하게 된다. 먹이는 주로 딱정벌레(갑충)·매미·벌·나비·메뚜기 따위를 잡아먹고 그 밖에 거미류나 다지류도 잡아먹는다. 식물성으로는 장미과 식물의 열매를 먹는다. 수명은 4~5년이다.

## 9. 때까치과

### 12) 때까치-*Lanius bucephalus* Temminck and Schlegel, 1845



때까치 1 2016년 4월 21일 황성 섬강둘레길

4월 21일 오후 4시 쯤 섬강둘레길에서 "때때때때때때때때" 하는 새소리가 들려 처음 촬영하였다. 울음소리에서 이름이 생겨난 때까치는 작은 체구에 사냥본능을 가진 귀여운 학살자로 몸길이 약 18~20cm, 수명은 약 7년이다. 마을

주변 야산, 개활지(앞이 막힘없이 탁 트여 시원하게 열려 있는 땅)에서 살며 나뭇가지, 전선 등에 앉아 있을 때 꼬리를 좌우로 흔드는 특징이 있다. 동물성(곤충, 도마뱀, 개구리, 작은 새, 쥐 등) 먹이를 잡으면 나뭇가지의 작은 가지나 가시에 먹이를 꽂아두는 습성이 있으며, 이것을 먹이꼬지라 한다. 높은 나무나 관목림 가지 사이에 부드러운 식물의 줄기나 가지, 나무껍질 등을 이용해 밥그릇 모양의 둥지를 만든 다음 한배에 4~6개의 알을 낳는다. 알을 품는 기간은 약 14일이고 새끼는 부화 후 약 14일 후에 둥지를 떠난다.



때까치 2 2016년 4월 21일 횡성 섬강둘레길



때까치 3 2016년 4월 21일 횡성 섬강둘레길

번식기에 어미새는 평균 130m 이내에서 먹이활동을 하며 최대 200m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번식이 끝나면, 암컷과 수컷은 단독으로 겨울을 지낸다. 때까치도 종종 빠꾸기의 보모새 노릇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모새는 산란 직후부터 알을 품기 시작해서 새끼가 등지를 떠날 때까지 제 새끼가 아닌 다른 새의 새끼를 정성스럽게 키우며 부모 역할을 대신한다. 다른 동물과 새의 울음소리를 흉내 내서 백설조(百舌鳥)로 불리기도 한다.

### 13) 칩때까치-*Lanius tigrinus* Drapiez, 1828



칩때까치 1 2019년 7월 10일 황성 섬강둘레길

2019년 7월 정오쯤 강둘레길에서 "때때때때때때때때" 하는 새소리에 촬영하였다. 몸길이 약 18.5cm로, 수컷의 앞이마부터 눈 뒤까지 큰 검은색 눈선이 있다. 머리와 목은 잿빛이다. 윗면은 적갈색으로 각 깃털에는 가는 검은색선이 있다. 꼬리깃은 옅은 갈색으로 옅은 색의 가로띠가 있다. 전국에 번식하는 여름새이며, 수명은 약 7년이다. 때까치처럼 뾰족한 가지나 철조망 가시에 먹이를 꽂아 놓는 습성이 있다.



취때까치 2 2019년 7월 10일 횡성 섬강둘레길



취때까치 3 2019년 7월10일 횡성 섬강둘레길

잡목림이나 소나무 숲에 등지를 틀고 6월 상순에서 7월 하순에 엷은 청록색 바탕에 엷은 갈색과 올리브 갈색의 얼룩점이 있는 알을 3~6개 낳는다. 알을 품은 지 14~15일이면 부화하고 14일 정도면 새끼는 등지를 떠난다. 한국에서 번식하고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지에서 겨울을 난다.

## 10. 박새과

### 14) 쇠박새-*Parus palustris* Linnaeus, 1758

2007년 4월 7일 8시쯤 섬강둘레길에서 먹이활동을 하는 쇠박새를 처음으로 촬영했다. 쇠박새는 몸길이 약 12cm로 식량 저장고를 가지고 있는 텃새이다. 수명은 약 4~5년이다.

번식기에는 암수 함께 살다가 번식을 마치면 진박새·동고비 등과 함께 무리 지어 산다. 산지나 평지 숲에 살면서 보통 나무꼭대기에 앉아 지내는데, 관목 가지에도 앉는다. 둥지는 주로 소나무에 생긴 구멍이나 딱따구리류가 뚫어 만든 둥지를 이용하는데, 더러는 직접 둥지를 만들기도 한다. 이끼를 많이 사용해서 바그릇 모양으로 틀고 알자리에는 동물의 털을 깐다.



쇠박새 1 2009년 4월 7일 황성 섬강둘레길

4~5월에 한배에 7~8개의 알을 낳아 약 13일 동안 품고 새끼가 부화하면 16~17일 동안 기른다. 먹이는 주로 곤충류이지만 식물성도 먹는다. 소형 조류 중 몇몇 새는 행동권 안에서 종자를 수집하고 그 행동권 안에 나무의 웅이나 틈과 같은 장소에 종자를 저장한다. 쇠박새도 종자를 저장하는 조류이다.

주로 딱딱한 종실을 저장한 뒤 초겨울부터 다음해 봄까지 식량 부족에 대비한다. 저장 행동을 하는 조류 중 더러 겨울 동안 죽는 경우도 있고 식량을 저장해

놓은 장소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하여 저장된 종자가 다음해 봄에 싹을 틔우곤 한다.



먹이활동하는 쇠박새 2 2010년 3월 4일 횡성 섬강둘레길



쇠박새 3

## 15) 진박새-*Parus ater* Linnaeus, 1758



먹이활동 모습 1 2010년 4월 5일 섬강둘레길



먹이활동 모습 2 2010년 4월 5일 섬강둘레길

2010년 4월 5일 8시쯤 섬강둘레길에서 갯버들에서 먹이활동을 하는 진박새 무리를 만나 처음으로 촬영하였다. 약 10~11cm 정도의 크기인데 머리와 목·윗가슴은 검고 흰색 뺨과 날개에 있는 두 줄의 가는 흰색 띠가 두드러진다. 흰

한 텃새로 비번식기에는 다른 종의 새와 섞여 무리를 이룰 때가 많은데, 주로 나무에서 살고 나무꼭대기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먹이를 찾는다. 가느다란 나뭇가지 끝에 매달려 먹이를 찾는 경우도 있다. 번식기에는 암수 함께 살며, 고도가 높은 지역을 선호하는데 수컷들은 나무꼭대기에 앉아 있는 힘을 다하여 계속 지저귄다. 알을 낳는 시기는 5~7월인데, 알은 흰색바탕에 얇은 자색과 붉은 자색의 미세한 얼룩점이 있으며, 5~8개 낳는다. 포란기간은 14~15일이며 새끼는 부화 15~16일 뒤에 등지를 떠난다. 부화 직후의 새끼는 털이 전혀 없다. 먹이는 곤충류, 거미류, 식물의 열매 등을 먹는다. 수명은 약 4~5년이다.

## 11. 오목눈이과

### 16) 오목눈이-*Aegithalos caudatus* Linnaeus, 1758



오목눈이 1 2019년 3월 25일 횡성 섬강둘레길



사랑을 나누는 오목눈이 2 2019년 3월 25일 황성 섬강둘레길

2019년 3월 5일 정오 무렵 섬강둘레길에서 아름답게 지저귀며 재빠르게 옮겨다니는 오목눈이를 처음으로 촬영하였다. 얼마나 빨리 움직이며 먹이활동을 하는지 쫓아다니기가 힘들었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그 덕에 사랑을 나누는 모습까지 볼 수 있어 기분이 좋았다. 몸길이 14cm 정도로 몸이 가늘고 꼬리가 긴 것이 특징이었다. 텃새이며, 사람이 사는 주변 산림에 서식하고, 평상시에는 4~5마리 또는 10마리씩 가족 집단을 형성하는데 다른 종과 섞여 큰 무리를 지을 때도 있다. 한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고 쉴 새 없이 울음소리를 내며 나무와 나무 사이를 이동한다. 번식기 외에는 무리를 지어 생활하며, 박새류와 무리지어 다니기도 한다. 땅 위에 내려앉는 일은 극히 드물고, 비행 시 불규칙한 비행을 한다. 낙엽활엽수림, 소나무 숲, 잡목림, 관목림 속에 둥지를 만든다. 나뭇가지 사이에 이끼류와 거미줄로 엮어 길쭉한 모양으로 만든 후, 지붕을 만들고 옆쪽으로 작은 출구를 만들며 내부에 많은 양의 깃털이나 동물의 털을 깬다. “둥잔 밑이 어둡다”라는 말처럼 오목눈이는 절대 깊은 산속이나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한적한 곳에는 둥지를 만들지 않는다고 한다. 바로 천적으로부터 알과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한다.

4월~6월까지 번식을 하고, 한배에 낳는 알의 수는 평균 7~11개이지만, 많을 때는 15개 이상의 알을 낳기도 한다. 알은 흰색 바탕에 옅은 자색과 붉은 갈색의 미세한 얼룩점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알을 품은 후 13~15일이면 부화되고, 부화 후 14~17일 만에 둥지를 떠난다. 수명은 2~3년이다.

## 12. 지빠귀과

### 17) 개똥지빠귀-*Turdus eunomus* Temminck, 1831



개똥지빠귀 1 2019년 3월 9일 횡성 섬강둘레길

2019년 3월 9일 정오쯤 섬강둘레길 나무위에서 아름답게 지저귀는 개똥지빠귀를 처음 촬영하였다. 몸길이 약 23~25cm 정도인, 개똥지빠귀는 흔한 겨울철새이며 나그네새로 10월 초순부터 도래해 통과하거나 월동하며, 5월 초순까지 관찰된다. 야산 주변의 관목, 강가의 나뭇가지, 땅 위에서 무리를 이루어 생활한다. 노랑지빠귀와 섞여 월동하는데 보통 개똥지빠귀 수가 많다. 비행하거나

먹이를 찾을 때에 자주 울음소리를 주고받는다. 땅에 내려앉아 먹이를 찾을 때 몇 걸음 빠르게 이동하고 잠시 가슴을 들어 주위를 살핀 후에 먹이를 먹는다. 먹이로는 주로 식물의 열매를 먹는데 지렁이나 벌레 따위도 좋아한다. 알을 낳는 시기는 5~6월 중순이다. 알은 청록색 바탕에 붉은 갈색의 얼룩점이 있으며, 4~5개 낳는다.



개똥지빠귀 2 2019년 3월 9일 황성 섬강둘레길

예로부터 선조들은 감나무에 감을 일부러 남겨놓는데 이를 ‘까치밥’이라고 하였으며 개똥지빠귀가 즐겨 먹었다고 한다. 먹이 구하기 힘든 겨울철에 동물에게 제공하는 이러한 풍습은 동물과 인간이 공존을 위한 선조들의 아름다운 미담이다.

### 18) 뉘지빠귀-*Turdus hortulorum* Sclater, 1863

2016년 4월 16일 오후 세시쫄 섬강둘레길에서 먹이활동을 하는 뉘지빠귀를 처음 촬영했는데 사진이 흐려서 무척 아쉬워했다. 그런데 2019년 5월 1일 오전 8시, 3년 만에 같은 장소에서 만나 얼마나 반가웠던지 꿈만 같았다. 뉘지빠귀는 몸길이 약 20cm, 수컷은 등, 턱 아래 부위, 윗가슴이 담황색이고 아랫가슴과 배는 흰색이다. 옆구리는 선명한 밤색을 띤 오렌지색이다. 암컷의 등은 갈색이며

배는 흰색이다. 턱 아래 부위에는 세로무늬가 있고 가슴에는 반점이 있으며 옆구리는 수컷과 같이 밤색을 띤 오렌지색이다. 봄과 가을철 이동 중 우리나라의 숲에 머물렀다 떠나지만 일부 무리는 번식도 하는 여름철새이다. 4월 초순부터 도래해 번식하고, 10월 중순까지 관찰된다. 지렁이와 곤충의 애벌레를 먹으며, 열매도 즐겨 먹는다. 가는 나뭇가지 위에 식물의 줄기와 뿌리 및 흙을 이용해 밥그릇 모양의 둥지를 만들고 내부에는 가는 풀뿌리를 깐다. 한배 녹색색에 적갈색 반점이 있는 알을 4~5개 낳는다. 포란기간은 약 14일이다. 육추기간은 약 12일이다. 수명은 2년이다.



되지빠귀의 먹이활동 모습 1 2019년 5월 11일 섬강둘레길



되지빠귀의 먹이활동 모습 2 2019년 5월 11일 섬강둘레길

9) 흰배지빠귀-*Turdus pallidus* Gmelin, 1789



흰배지빠귀 1 2010년 5월 15일 진부면 수항리



흰배지빠귀 2 2010년 5월 15일 진부면 수항리

2010년 5월 15일 가족과 함께 진부면 수항리로 여행을 갔었다. 숙박지에 짐을 풀고 손주들과 정원에서 놀고 있는데 오후 6시쯤 나무위에서 아름다운 새소리가 들려 촬영하였다. 아직 횡성에서 촬영을 못해 많이 아쉬워지만 언젠가는 만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이 책에 신기로 했다. 흰배지빠귀는 몸길이가 약 23cm이다. 여름에는 암수 함께 살고 이동할 때에는 많은 수가 무리 생활을 하지만 겨울에는 단독일 때가 많다. 양쪽 다리를 교대로 움직여 땅위를 뛰어다니면서 먹이를 찾는다. 되지빠귀보다 경계심이 강하다. 숲속 나무꼭대기에 앉아서 되지빠귀와 비슷한 소리로 운다. 봄과 가을에 한반도를 지나가는 흔한 나그네새이자 한반도 중부 이남에서 번식하는 여름새이고, 남해 섬과 제주도 및 울릉도 등지에서는 겨울을 나기도 한다. 무주 구천동과 지리산에서 흔히 볼 수 있다. 6월에 4~5개의 알을 낳는다. 장미과 및 포도과 나무의 열매와 식물의 씨를 먹거나 낙엽 밑에 숨어 있는 딱정벌레·지렁이·거미류·다지류 따위를 잡아먹는다. 둥지는 땅 위에서 높지 않은 나뭇가지 위에 나무뿌리, 마른풀, 솔잎 등을 이용해서 밥그릇 모양으로 만든다. 알을 낳는 시기는 6월이다. 알은 옅은 녹색색 바탕에 붉은 갈색과 잿빛 쥐색의 얼룩점이 있으며, 4~5개 낳는다. 수명은 2년이다.

### Ⅲ. 나가는 말

먼저 보잘것없는 새 사진을 공개하게 되어 죄송스러운 마음이 앞선다. 나로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혹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알려주기 바란다.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네이버카페 회원님들께 감사하고, 앞으로 더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하며, 내년에는 어떤 새로운 새를 만날 수 있을까 기대해 본다.

새는 척추동물의 한 강(綱)으로 앞다리는 날개로 변형되어 날 수 있고, 입은 부리로 되어 손을 대신하는 구실을 하며, 온몸이 깃털로 덮인 온혈동물이다. 모두 난생이고, 폐에 이어 지는 기낭이 있고, 시력이 발달하였다. 전 세계의 새는 29개 목 158과로 분류되며 총 8,600종에 이른다. 조류학자들에 의하면 우리나라

라에는 372종(텃새 48종, 철새 266종, 미조 90종 등)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제는 200여종 밖에는 관찰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렇게 종이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인지 확실히 모르지만 언젠가는 아름다운 새소리를 황성에서 못들을 때가 오지 않을까하는 쓸데없는 걱정을 해본다. 또 철새가 텃새로 변하고 남쪽에서 살던 새가 황성에서도 보이는 현상은 기후 변화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열대지방의 새들도 황성에서 볼 날을 상상하며 이 글을 마친다.

〈참고도서〉 한국의 새 123. 서정화, 박종길. 신구문화사. 2010

Photo Essay

# 횡성의 소리꾼을 찾아서 다래골 흥진수 소리꾼



글/사진 : 정 재 영  
(소설가, 횡성 문인협회 회장)



오죽 했으면  
그 당시 돈 안 드는 의무교육기관  
국민학교 조차도 못 마치고  
겨우 3학년 1학기에  
본인 스스로 학교를 접었을까 ..



어려운 가정 형편에 1학년에 입학도 못하고  
2학년에 공근국민학교에 입학해  
겨우 1년 몇 달 다닌 게  
홍진수씨 가방끈의 전부다.

그래서  
평생  
화인(火印)처럼  
못 배움의 한이 그를 따라다닌다.



아버지는 심장병으로  
비탈진 발 조금만 올라도 숨이 차 ‘헉-헉’ 거리셨고  
오롱조롱 6남매의 만이로  
그는 도저히 나 몰라라 하며  
학교를 다닐수가 없었다.

그렇게  
3학년을 중도메이 논 채로  
그는 자기 키보다 큰 지계를 지고는  
그길로 농사꾼이 됐다.  
오직 가족과 동생들을 위해.

당시 동네 한문서당 일 년 학채는 쌀 닷 말  
3년 만 배우면 제 앞가림은 한다고 주위에서 권유했지만  
그는 쌀 닷 말이 없어서  
3년 학채 쌀 한 가마 반이 없어서  
서당 문턱도 눈으로만 바라봐야만 했다.



**‘홍진수**

**'1937년. 정축생, 소띠.**

올해

우리 부르는 나이로 여든.

나이 무색하게 아직도 한창 바람이시다.

**남양 홍씨 36대 손.**

원래 이름은 **‘학표’** 였다.

‘표’ 자 돌림.

어릴적 하도 돌림병 마을에 창궐해 아들 오래 살게 하려고

돌림자 버리고 **‘진수’** 라고 이름 지어주셨다.

아버지가.

그 이름 덕분에 지금도 여든의 나이에든 불구하고

건강하게 농사일하며 살고 있다.

이름값 하는가 보다.



원래는 신촌 검문소 뒤편에서 태어났다.  
6남매의 맏이로.  
애시당초 내 땅이라곤 한 꼬레이도 없는 터라  
지금 살고있는 다래골이 골도 깊고 화전도 용이 해  
그가 어릴 때 부모 따라 이사를 왔다.

그 당시만 해도  
임자 없는 국유림에는 알음알음 화전을 해먹어도  
정부에서는 짐짓 모른 체했다.

그는 아버지를 대신 해  
화전밭을 일구고,  
부지런히, 아니 죽을 힘을 다해 농사일을 했다.  
줄줄이 동생 다섯 그리고 심장병으로 골골하는  
아버지의 생존이 오로지  
그에 손에 달렸기에.



새벽이면  
그는 지게에 낭구를 한 짐 지고  
장지고개를 넘어 황성장,  
이 십여리 길을 나섰다.  
낭구를 팔러.  
쇠리도 갔다 팔고,  
참낭구 장작도 갔다 팔고.  
낭구 한 짐에 옥시기 3되.  
그 옥시기를 맷돌에 타개 8식구 하루 밥을 해결했다.  
낭구를 팔고 오지 못하면 그날 식구들은  
꿈쩍없이 굶어야 했다.



소처럼 일했다. 그는.  
아니 소보다 더 몇 배 일을 했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어떤 일도 마다 않고.

워낙 부지런하고 또 손끝도 야무져  
어린 나이였지만 마을에서는 병든 아버지를 대신 해  
농사 품앗이에 끼워 주었고,  
그는 어깨너머로 소 쟁기질을 배우고,  
소몰이 소리를 배웠다.  
그는 못 하는 소리가 없다.  
겨리 소리,  
호리 소리.

논 삶는 소리,  
모심을 때 부르는 단허리 소리,  
논매는 소리,  
낭구 하러 갈 때 지게 목발 두드리면 하는  
횡성 어러리 타령,  
어깨에 무거운 목도를 메고 부르는 목도소리 까지



그는 천상 타고 난 소리꾼이다.  
청도 좋고 소리 꺾음도 남다르다.  
마라, 안 소 두 마리 말래를 태우며  
그가 유장하게 소몰이 소리를 다래골에 뽑아 올릴라치면  
들녘에서 일하던 모든 사람들은  
일손을 멈추고 귀를 세우곤 했다.  
길 가던 길손들은 가던 길 멈추고.



내 소를 가지는 게 소원이었다.  
어린 진수 농사꾼에게는.  
하지만 소 한 마리 값이 논 다섯 마지기를 웃도는 형편이라  
언감생심 어림 반 푼어치도 없는 터수 였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게 '걸립소'  
이웃 사람 송아지를 얻어 다 2년 동안 열심히 키워주고  
그 소 한테서 송아지가 태어나면  
그 송아지를 얻는 그런 형태가 '걸립소' 다.

그는  
자기 몸보다 더 끔찍이 '걸립소' 를 거두었다.  
그야말로 자기는 굶어도 비 노배기를 하고서라도

소꼴을 베어 날랐다.

아침저녁으로.

그의 바람대로 걸립소는 하루가 다르게 반드레 윤이 났고

뺏속에는 곧 태어 날 송아지가 꿈틀댔다.

희망처럼.



Photo by / jae young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

덜컥 6.25 가 터지고

그 다음 해 겨울

중공군과 인민군이 갈가마귀 떼처럼

다래골로 몰려들었다.

그의 나이 열네 살 때였다.

먹거리 귀한 겨울철이라

그놈들은 외양간에 매어 져 있는 그의 목숨보다 더  
애지중지하는 소를 끌고 나왔다.  
공출이라는 명분으로.  
그는 울며불며 다른 건 다 가져가도 이 소만은 안 된다고  
그들 앞을 가로막았다.  
끌려 나오는 누렁이소 커다란 두 눈에는  
'그럼~그럼' 눈물이 고였다.



그는 텃밭에 지천으로 나뒹구는 방명이 수류탄 한 개를  
주머니에 넣고는 얼음 '꽝꽝' 언 개울로  
소를 끌고 가는 그놈들을 뒤쫓아 갔다.  
수류탄을 까 그놈들에게 던지고 소와 함께 죽기로.

그러나 모진 게 사람 목숨인가 보다.

그에게는  
 오롱조롱 다섯 동생과 골골거리는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가 있었다.  
 그는  
 ‘꺼이~꺼이’ 목을 꺾으며 다래골 눈덮힌 산을 올랐다.  
 싸늘한 수류탄 품에 넣은 채.



산 위에 올라 그는  
 골짜기를 향해 안전핀을 뽑고 수류탄을 냅다 던졌다.  
**“펑”**  
 조용하기만 하던 산골타데이로 굉음을 내며  
 눈 파편들이 꽃잎처럼 떨어져 내렸다.  
 그 소리에 인민군과 중공군 놈들은  
 혼비백산 산으로 튀었고.



저녁 어스름.

마을로 내려온 그에게는

그놈들이 먹다만 누렁이 뼈들만이 싸늘하게 식은 채  
헝겂그레 눈발 위를 나뒹굴고 있었다.

누렁이가 사라진 빈 외양간에는

아침에 먹다 남은 소여물만

싸늘히 구유에 얼어붙어 있었고.



그의 나이 스물둘 되던 해,  
 치악산 자락 활골 사는 그보다 한 살 적은  
 이정례 씨를 각시로 맞아 장가를 갔다.  
 쓰리코터 얻어 타고,  
 엄동설한 1월 29일이었다.

시어른, 시동생, 시누이,  
 거기다 올망졸망 다섯 명의 자식들.  
 무려 열네 명의 대식구의 맘며느리가 된 이정례 씨.  
 그때는 다 그렇게 사는가 보다 하며  
 낮에는 남편 따라 화전밭을 일구고,  
 삼시 세끼 밥을 하고,  
 밤에는 열네 식구 빵구 난 양말을 꿰매고,  
 번한 날에는 식구들 입성을 위해 길쌈을 했다.



정말 억척스럽게 살았다.  
그녀에게는 달리 방법이 없었기에..

내 땅 한 꼬레이 없는 그에게는 농사만 지어 가지고는  
 도저히 열네 식구 호구지책과  
 자식들 교육비를 댈 재주가 없었다.  
 그는 농사일 틈틈이 흔히 노가다로 불리는 막일을 했다.  
 닥치는 대로.  
 정말 그는 안 해 본 일이 없었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그중에서도 무거운 짐을 여럿이 목에다 메고 나르는  
 목도일이 가장 큰돈이 됐다.  
 다른 일에 비해 위험했지만  
 그는 그걸 따질게 못했다.  
 아름다리 산판 낭구 목도를 했고,  
 산꼭대기 까지 돌비석을 목에 지고 날랐다.  
 이때 배운 소리가 목도소리.



photo by / jae young

“제 목 뒤 좀 보세요.  
 닦타 등처럼 흑이 보이시죠?”

이제 그동안 목도를 하면서 까치고, 피 나고,  
아무는 과정에서 생긴 꾸덕살입니다.  
제 인생의 훈장이죠.  
여기는 바늘로 찔러도 바늘 안 들어가요”



“아버지는 윈. 겨우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평생 달고 살던 심장병으로.  
제가 일등병 이었을 때죠.  
그 후로 혼자되신 어머니 참 고생 많이 하셨죠.  
어찌 그 고생 말로 다 할 수가 있겠어요.  
번 한 세월 한번 못 보시고  
십여 년 전 어머니도 가셨어요.  
여든 다섯.  
어머니도 소리 참 잘 하셨어요.  
속예 응어리진 한 많으면 저절로 소리가 되어 나오나 봐요.”



“아 - 네  
지금부터 15년 전 2001년이던가요?  
제가 ‘형성의 구비문학’ 채록하면서  
어머님 뵙고 소리 들었어요.  
아라리 한 자락 해 주셨었는데  
어찌나 청이 좋으시던지요  
지금 제 서랍에 그 녹음 테잎 있구만요.”  
“허-  
사람은 가도 결국 소리는 남았군요  
작가님 덕분에”  
“네-  
오늘 어르신 해 주신 소리도 잘 보관해 놓을게요.”



“지가 얼마 전 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오늘 그냥 맨 정신에 소리를 할려면  
 멋쩍어 쇠주 한 잔 해야 되겠구먼요  
 ㅎㅎ  
 하나님 오늘 하루는 눈 감아 주실거죠?”

그는  
 찬장을 뒤져 간단한 안주를 장만해 술상을 준비하고는  
 소주 한 잔 ‘벌컥’ 들이키고  
 술상 위로 소리를 쏟아 놓기 시작했다.

유장한 소리들이  
 흥진수 씨의 목울대를 타고  
 방안으로 쏟아져 내렸다.

난

녹음기 REC 버튼을 살며시 누르곤

술상을 두드리며 그의 소리에 추임새를 넣었다.

좋다.

홍진수 어르신 소몰이 소리는.

언제 들어도.



논 삶는 소리

이러! 어디여!

이러이러!

말래말래 어디어디여

물은 많고 말래를 몰르겠는데

너가 잘 찾아간다  
 이러 이러 어디 어디여  
 어어치 이러이러! 어디 어디 어디여  
 말래말래 어디여  
 말래를 잘 타고 나가야 논이 잘 익는다  
 이놈의 소야  
 잘 한다 이러이러! 어디 어디 어디어디어 이러 어치  
 어디여 말래는 너가 나보다 더 잘 타는 구나 이러이러  
 탑손 만 쥐고 그냥 걸어가도 되는 구나  
 이러! 어디여 반달 같은 닷 마지기 다 넘어 간다  
 넘어서라 이놈의 소  
 저쪽 넘으로 넘어가서 삶아야 된다  
 이놈의 소야 이러 어치  
 어디여 잘도 간다 채찍질도 잘 받고 이러이러!  
 어디어디어 어치! 두렁 밑에 들어서거라  
 고만가자 이놈의 소야  
 어치 한 발짝 더 가면 너두 다리 아프고 나두 다리가 아퍼  
 어치 잘 두 들어선다 이놈의 소.  
 어디 어디여! 말래 말래  
 고만 쉬어서 하자 나두 목이 마른다  
 거 그릇 부신 물이래두 좀 땀물 좀 갖다줘요!  
 어후!

홍진수 (남.1937년생)소리 / 채록: 정재영



“어르신 여전하시네요  
 그리 세월 흘렀건만  
 물 흐르듯 해요 어르신 소리는”  
 “웬걸요 이젠 다 늙어 빠져서  
 가사도 아슴아슴 잊혀져 가고  
 소리도 영 아니구먼요.  
 예전 같지않구먼요”  
 “ 어르신  
 목도소리 한 번 들려주세요  
 어영차 어영 -  
 그 신명 나는 소리”  
 “ 예  
 작가 선생님

그럼 모강지에 목도 한 짚 짚어지고  
허정허정 목도소리 한 자락 뽑아 볼까요”

목도소리(허영차 소리)

이저 이저 이저차 이영  
힘이 들어도 발을 맞춰야지  
이저 이저 이저차 이영  
길 가는 저기 저 여자 넓적다리가 다 나온다  
이저 이저 이저차 이영  
술 한 잔 없어도 물이라도 한 잔 먹고 하자  
이저 이저 이저차 이영  
옆으로 가자 옆으로 이영 이영 이영  
이저 이저 이저차 이영

홍진수 소리 / 채록: 정재영

# 횡성에 평화의 소녀상을 세우다



박 현 숙  
(횡성평화의소녀상 사무국장)

햇살은 세상을 따스하게 밝혔는데,  
아~~, 대지위에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다.  
입동!!

그래서인가, 어제보다 더 많이 나무는 낙엽을 내려놓았다.

갑천 호수길을 돌아 가을을 벗어나려는 풍경을 내 마음에 담으려 핸들을 잡았다. 울곧게 피어난 가을 풍경이 호숫가에 잔잔한 물결 따라 그대로 영롱한 모습으로 그려진다.

한참을 돌아 햇살이 내리쬐는 대지위엔 낙엽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다.

가을은 점점 깊어만 간다.

발길을 돌려,

만세공원에 내려 평화의 소녀상 앞에 섰다.

차가운 기운이 더, 쓸쓸하게 느껴지는 행한 공원 안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얼어있는 소녀의 모습이 내 안에 아픔으로 밀려든다.



2018년 11월. 황성평화의소녀상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고 11월 28일 군민 중 한사람이 모금의 첫 시작을 알렸던 그날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다.

‘시작이 반이다’ 라는 일념으로 매섭도록 추운 겨울, 황성장날 첫 버스킹 공연을 시작했고, 매 장날마다 공연과 홍보로, 캘리그라피 작가를 통한 엽서, 카드 홍보, 9개 읍면을 발로 뛰며 평화의 소녀상을 세워야만 하는 우리 사명임을 강조하며, 드디어 4월 1일 평화의 소녀상을 세울 수 있었다. 의지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고, 늦은 출발에 죄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마음이었다. 어느 민족이고 슬픈 역사를 갖지 않은 민족은 없을 것이다.

그럴수록 슬픈 역사를 가슴에 간직하고 아픔을 기억하며 사는 국민이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고 민족을 번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요즘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해 한창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하고 있다.

과거사에 대한 가해자의 사죄와 배상 없이 세월이 지남에 따라 적반하장격의 일본을 본다.

국내 또한 친일파를 제대로 단죄하지 못함도 답답하기만 하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일본으로부터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독립하여 일본의 경제 의존도를 낮춰 나라의 방향을 바꿔야함을 절실히 온 국민이 느낄 것이다.

지금 소녀상 앞에 있으면서 가슴이 아프다.

할머니의 그림자 속의 하얀 나비와 교감하고 싶다.

늦었지만 우리도 할머니들을 가슴 속 깊은 곳에 묻고 있다가 이제, 형상을 세워 황성에 모시게 된 것이다.

조형물을 옮겨 만세공원에 안착할 때, 그 마음, 그 모습은 뜨거운 눈물을 삼킬 수밖에 없었다.

-죄송합니다. 이제야 모셨습니다.-

이제 몇 분 남지 않은 생존해 계시는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아직도 사과할 생

각조차 없는 섬나라 일본, 사과를 커녕 오히려 왜곡된 역사를 주장하는 일본, 우리는 꼭 잊지 않고 기억할 것입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2011년 12월 14일 1,000회가 되는 수요시위를 기념하여 평화의 비를 기획하고 김서경, 김운성 작가에게 의뢰하여 최종적으로 소녀상형태의 조각상으로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되었다.

### -소녀상 내용-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소녀는 불규칙하게 잘라진 단발머리로 의자 위에 손을 꼭 쥐 채 발꿈치를 살짝 든 맨발로 앉아있다. 소녀의 왼쪽어깨에는 새가 앉아있고 소녀상이 있는 바닥에는 할머니 모습의 그림자가 있다. 소녀상 옆에는 빈 의자가 놓여있다. 단발머리는 부모와 고향으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하며 발꿈치가 들린 맨발은 전쟁 후에도 정착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상황을 상징한다.

새는 세상을 떠난 피해자들과 현실을 이어주는 매개체이다.

소녀상 옆에 놓인 빈 의자는 일반인이 앉을 수도 있다. 아픈 과거, 문제를 해결해야 할 현재, 함께 평화를 지향하는 미래 등의 상징을 담아 형상화한 것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 명예와 인권 회복, 그리고 평화지향의 마음을 담았다.

평화의 소녀상은 첫 제작 이후 여러 군데에 세워졌는데, 형상이 동일하지는 않다. 서있는 모습도 있고, 한중평화의 소녀상처럼, 중국인 소녀와 조선인 소녀가 함께 있는 것도 있다. 나눔의 집에 설치된 <뭇다 핀 꽃>은 김순덕 할머니의 그림을 기초로 피해자를 형상화한 첫 작품이다. 이 외 여러 작가들에 의해 기념비가 만들어졌고 국외에도 세워져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의미를 세계에 알리고 있다.

우리 횡성은 일제강점기에 항일운동이 가장 강력히 일어났던 고장 중 한곳이다. 1919년 3월 1일을 기하여 강원도에서 가장 치열하게 범민족항일운동으로 횡성에서는 1919년 3월 12일부터 독립선언서를 배부하여 3월 27일 첫 만세운동을 벌였고 이후 4월1일과 4월2일 3차에 걸쳐 횡성읍내 장터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한다.

그 함성은 강원도 전역으로 들불처럼 번져 나갔던 자랑스런 선열들이 있는 애국애족의 고장인 것이다.

이렇게 100주년이 되는 날로 4.1만세운동 기념식 과 4.1만세운동 기념 선포식, 그리고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을 거행하게 된 것이다. 화합의 올림, 평화의 날개짓으로 평화의 소녀상 기림의 표현을 마음껏 펼쳤다.

100년이 흐른 지금도 우리 횡성군민들은 독립이라는 단어에 뚝뚝 뭉치고 화합했음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다.

어린이도 학생들도 어른도 할 것 없이 굳은 의지로 횡성의 가치를 높이고 있었다. 이에 선열들의 고귀한 뜻을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 알리고 부국강민의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4.1만세운동 100주년을 기해 “군민 1인 1만원으로 횡성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게 되었다.

어린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1,700여명 정도의 군민들이 참여해서 흥상을 안치했고, 아직 표지석은 완성하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애국의 고장 군민들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횡성의 자랑스런 가치를 발휘하게 하였다.

곧 참여한 횡성군민들의 이름으로 표지석도 준비 중에 있다.

2019. 10. 08일자 횡성 희망신문에 갑천면 포동리에 거주하시는 어느 분께서 “만세공원 소녀상”에 대한 기고하신 글을 읽고 가슴이 뭉클했고, 이 지면을 통해서 따뜻한 사랑과 관심에 감사를 드리고 싶다.

이제 표지석을 완성하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할 일을, 몇 분 남지 않으시고 하



황성평화의 소녀상 앞에 매주 지역의 각 단체들이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동참을 하는데 함께 협력해 주시는 각단체들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온갖 정성을 쏟으신 추진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황성군민들 한분 한분에게도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이 아픈 것은, 침묵 속에서 살다 가신 스스로 말할 수 없는 그분들이 얼마나 많았겠는가. 가난하고 고달픈 삶의 여정을 표현 할 수 없는 그 깊이 아픈 마음을...

이 한 많은 분들의 증언을 우리는 어찌 상상할 수 있을까.

모두는 소녀상 옆 빈 의자에 앉아 생각해 봐야만 한다.

**“부산을 떠나던 날의 기억은 희미하다...**

**30년 가까운 세월을 한국에서 살았지만 애착을 가질만한 집과 재산이 없었고 이별을 아쉬워 할 만큼 사랑하는 사람도 없었다.”**

배봉기 증언

가와다후미꼬지음. 오근영 옮김, 『빨간기와집』 2014

“전쟁 때 총알 한발로 죽었으면 이런 고생은 하지 않았을 텐데.”

가와다후미코지음. 오근영 옮김, 『빨간기와집』 2014

“돈 많이 벌고 좋은 데가 있으니  
가지 않겠느냐고 하길래...” (이용녀)

“하루는 일본군대가 수군수군하길래 왜 그러나 했더니  
군기를 태우겠다 하더구만요.

어, 그래서 군기를 태우면 인자 다 일본놈들이 지게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조선여자들 몇이 있는거 하고 일본여자 들하고 우리는 뛰자.

그래서 거기서 도망쳤습니다.”

1998년 5월7일 박영심 증언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목적자들

가슴이 너무 아프다.

침 없이 눈물만 난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힘이 없던 나라의 비참한 현실을 잊지 않겠습니다.

나라가 바로서야 함을 우리 온 국민은 알아야합니다.

겨울비가 자주 내리는 것 같다.

소녀상에 빗물을 닦아보며 평화의 그 날을 속삭여 본다.

## IV. 문화유산을 찾아서



- \* 2019 관외 향토문화 비교답사  
(남해, 사천, 진주 일원) 소감문 | 윤병철
- \* 덕혜옹주를 생각하다 | 김미애
- \* 충북 단양을 다녀오다 | 김종성
- \* 횡성호숫길에서 네 번 깜짝 놀란 이유 | 이연숙
- \* 2019 관외 전통문화 현장학습  
(거제, 진주, 부산 일원) 소감문 | 손진경
- \*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낫다 | 김철수
- \* 민사고 답사 후기 권기수, 오다은, 박지영
- \* 횡고 답사 후기 | 신준섭

2019 관외 향토문화 비교답사를 다녀와서

## 남도문화권 (남해 · 사천 · 진주 일원)



윤 병 철  
(황성문화원 부원장)

황성문화원에서 주관하는 2019년도 관외 향토문화 비교답사를 다녀왔다. 당초계획은 남해와 여수 일원의 문화유산을 답사할 계획이었으나 호우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을 변경해서 여수일정을 줄이고 진주일정을 추가해서 다녀왔다. 조금 아쉬움이 남았지만 나름 의미있고 뜻깊은 답사가 되었다.

- ◆ 일 시 : 2019. 6. 26.(수)~6. 27.(목) / 1박2일
- ◆ 장 소 : 남도문화권(남해, 사천, 진주 일원)
- ◆ 참가인원 : 총 26명(황성문화원 임원 및 직원)
- ◆ 주요일정 - 1일차 : 금산 보리암(남해), 해오름예술촌(남해)  
2일차 : 항공우주박물관(사천), 진주성(진주) 등

학창시절에 수학여행을 출발하던 날처럼 설레이는 마음으로 집결장소인 황성문화원으로 향했다. 아침 7시, 문화원 임직원 26명이 들뜬 마음으로 황성고속관광버스에 몸을 싣고 답사지로 떠났다. 출발할 때 황성날씨는 맑고 좋았는데 4시간을 달려 경남지역에 들어설 때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12시30분 목적지인 남해에 도착했을 때에도 비는 계속 내렸다. 중식을 멸치요리 전문식당에서 멸치쌈밥정식을 먹었는데 멸치도 다양한 요리의 별미로 변신하는 모습을 맛볼 수 있었다.



점심식사 후 우리나라 4대 관음기도처(낙산사 홍연암, 강화도의 보문암, 여수의 향일암)의 하나인 금산 보리암을 답사했다. 버스주차장에 도착했는데 비가 점점 세차게 내리고 금산 꼭대기에 있는 보리암까지 도보로 40~50분 소요된다 하여 미니버스를 대절해서 보리암 가까운 주차장까지 가서 도보로 또 20여분을 더 걸어서 보리암에 도착했는데 비와 안개로 절경이라는 경치는 만끽할 수 없었다.

보리암은 대한불교조계종 제13교구 본사인 쌍계사(雙溪寺)의 말사이다. 683년(신문왕 3년)에 원효가 이곳에 초당을 짓고 수도하면서 관세음보살을 친견한 뒤 산 이름을 보광산(普光山)이라하고 초암의 이름을 보광사(普光寺)라 하였다. 그 뒤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가 이곳에서 백일기도를 하고 조선왕조를 연 것을 감사하는 뜻에서 금산이라 하였고, 1660년(현종 1년)에 현종이 이 절을 왕실의 원당(願堂)으로 삼고 보리암이라 개액(改額)하였다. 현존하는 보광전(普光殿)을 비롯하여 간성각, 산신각, 범종각, 요사채 등이 있고, 문화재로는 큰 대나



무 조각을 배경으로 좌정하고 있는 향나무 관세음보살상과 삼층석탑이 있다. 삼층석탑은 신라석탑의 양식을 보이고 있으나 고려초기의 작품으로 감정되고 있으며,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74호로 지정되어있으며, 보리암 앞 바위 끝에 높이 165cm로 세워진 이 탑은 상륜부에 보주(寶珠)만 놓여 있다. 이 밖에도 보리암 주위에는 원효가 좌선하였다는 좌선대를 비롯하여 쌍홍문(雙虹門) 등 38경의 경승지가 있다.

비는 계속 내렸다. 보리암을 하산하여 예정견학지인 남해 독일마을과 파독전시관을 답사할 계획이었으나 시간이 늦어져 '해오름예술촌'으로 향했다.



해오름예술촌은 폐교된 학교와 학교터를 활용한 곳으로 옛 운동장과 학교 주변으로 정원수와 꽃, 조각품들로 잘 정비해 놓았고, 실내에는 학생들이 공부하던 용품과 각종 생활용품, 어선 모형 등 다양한 물건들을 전시하여 방문객들에게 큰 호감과 감명을 주고 있었다.

답사를 마치고 남해를 출발해서 18시 20분에 사천에 도착했다. 사천횃집에서 회정식으로 저녁식사를 맛있게 하고, 삼천포항 해변별장 숙소에 여장을 풀었다. 숙소에서 뒷풀이 시간을 가지고 답사 1일차를 마무리하였다.



답사 2일차에도 계속 비가 내렸다. 8시에 숙소근처에서 바지락해장국으로 조식을 마치고, 당초 탐방예정이던 오동도와 향일암 등을 비로 인해 포기하고 계획을 변경해서 경남 사천에 있는 ‘항공우주박물관’을 견학하였다. 항공우주박물관은 야외전시장과 실내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야외전시장에는 다양한 비행기와 탱크·장갑차·자주포 등이 전시되어 있었다. 특히 우리기술로 최초 제작한 국내1호 비행기인 부활호와 예전 우리나라 대통령 전용기도 전시되어 있어서 특별한 관람을 할 수 있었다. 실내전시관은 항공우주관과 자유수호관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항공우주관은 우리나라 항공발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우리나라의 발전상과 위상을 새삼 느끼고 자부심을 갖게 했으며, 자유수호관에서는 세계2차대전과 6.25전쟁에 대해 전시되어 있어서 자유수호의 의지를 다시금 새겨보는 뜻있는 견학이 되었다.

오전 견학 후 진주로 이동하여 횡성출신 출향인이 운영하는 식당(하연옥)에서 진주냉면으로 점심식사를 하고 진주의 역사와 문화가 깃들여 있는 유서 깊은 진주성(晉州城)을 찾았다. 진주성은 임진왜란 3대대첩(진주대첩, 한산대첩, 행주대첩) 중의 하나인 진주대첩과 의기 논개를 떠올리게 된다. 진주성이 호국충절의 성지로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진주성이 지닌 역사적 의미 때문이다. 임진



왜란이 일어난 1592년 10월, 왜군 2만여 명이 침공했을 때 진주목사 김시민 장군이 3,800여 명의 군사와 성민이 힘을 합쳐 크게 물리친 전투가 진주대첩이다. 그리고 이듬해 설욕을 노린 왜군이 10만의 군사로 재침하자 7만의 민·관·군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최후까지 싸우다 장렬하게 순절한 아픈 역사의 현장이 진주성이다. 이러한 역사를 되새기며 진주성 답사를 시작했다.

먼저 축석루(矗石樓)를 관람했다. 진주성의 남쪽 벵랑위에 우뚝 솟은 축석루는 영남 제일의 아름다운 누각임을 자랑한다. 고려 고종 28년(1241년)에 진주목사 김지대가 창건하였으며, 축석루라는 이름은 강 가운데 우뚝 솟은 바위위에 지은 까닭에 누의 이름을 축석이라 했다고 전해진다. 축석루는 전시에는 진주성을 지키는 지휘본부였고, 평화로운 시기에는 시인묵객들이 풍류를 즐기던 명소로 또 과거를 치르는 고사장으로 쓰이기도 했다.

다음은 의암(義巖)이다. 임진왜란 때 논개(論介)가 순국한 바위를 말한다. 임진왜란 제2차 진주성 전투에서 진주성이 함락되고 7만 명의 민·관·군이 순절할 때 논개도 의암에서 왜장을 끌어안고 남강에 투신하여 순국했다. 이에 논개의 의열을 기리고자 이 바위를 '의로운 바위' 즉 의암이라 부르게 되었다.



순국한 논개의 넋을 기리기 위해 영정과 위패를 모신 사당인 의기사(義妓祠)에도 들러 의기 논개의 충절에 경건한 마음의 예를 갖추었다. 이외에도 진주성 전투에서 순절한 민·관·군 7만 명의 의로운 넋을 기리는 제단인 임진대첩계사순의단(壬辰大捷癸巳殉義壇), 진주대첩을 이끈 김시민 장군 전공비, 임진왜란 제2차 진주성 전투에서의 충정과 전공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세워진 축석정충단비(矗石旌忠壇碑) 등의 문화재를 관람했다.

진주성 견학을 통해 임진왜란 당시 위기에 빠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순국한 수많은 선열들의 얼을 되새겨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진주성이 주는 교훈은 결코 오래전 임진왜란 당시 우리 선조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작금의 상황도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계속되는 일본의 망언과 최근 수출규제를 통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등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일본의 허황된 도발은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도발에 대해 단호하고 현명하게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대처하고 이겨내야 하며, 후손들에게는 쓰라린 역사를 대물림하지 말아야겠다는 의지를 다지면서 진주성 문을 나섰다.

진주성을 나서니 비가 그치고 해가 나기 시작했다. 오후 3시가 넘은 시간이어서 답사를 마치고 복귀하는 버스에 올랐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번 답사의 소감을 돌아가며 이야기하고 서로간의 많은 의견도 교환하였다. 비록 호우로 인해서 이동불편 뿐만 아니라 답사 장소도 변경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모두가 유익하고 보람된 답사였다고 만족해했다. 돌아오는 길에 저녁식사도 하고 저녁 8시에 무사히 황성에 도착했다.

비록 1박2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행사를 준비해 주신 박순업 원장님과 문화원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 답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황성군청 관계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함께 해주신 문화원 임원들도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황성문화원 발전을 위해 임직원이 함께 노력해 주시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답사 소감을 마칩니다.

2019 관외 문화유적답사

## 『덕혜옹주를 생각하다』



김미애  
(횡성문화원 회원)

2011년에 조선의 마지막 황녀 덕혜옹주(권비행) 장편소설을 읽었을 때 대마도를 가보고 싶었으나 기회가 없었고, 여러 여행지들에 의하면 대마도는 한번쯤 가볼만 하다고 했기에 기회가 되면 꼭 한번쯤은 가보고 싶었다.

그렇게 횡성문화원에서 대마도 해외문화 탐방을 하게 되다니, 나는 소풍을 떠나는 초등학생처럼 잠이 오지 않았고 드디어 4월11일 1시 30분에 출발을 했다.

들에 핀 꽃이며 나뭇이파리며 제 마음으로 돌아와 꽃단장 분단장 하던 대마도 섬에서 봄이라는 계절을 그렇게~

대마도를 다녀 온지 5개월이 지나가고 있으며 동백꽃이 남아있는 봄을 보내고 지금은 가을이다.

대마도에도 가을이 와 우리 횡성문화원 회원님들의 다녀갔음을 기억하며 추억이라 할까.

인간과 인간과의 조화, 자연과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 그 조화가 더 자연스런 대마도를 생각해 본다,

사는 게 꿈이구나! 새삼 지난 봄을 생각하면서 모두가 지워지지 않는 「로버트 프로스트」가 『말하는 가지않은 길』 하나를 가져보았으면 좋겠다.

함께 여행을 가 봐야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문화원장님, 사무국장님, 직원분들께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신 덕분에 대마도 해외 탐방을 안전하게 잘 다녀와서 감사하고 내가 횡성에 이사 와서 처음으로

알게 된 동행하시는 분의 친절하고 고마운 배려와 사랑이 탐방을 한 층 더 즐겁게 했으며 큰언니처럼 다정하고 마음 따스한 언니 같은 분이 계셔서 너무 고맙웠으며 서로가 서로를 챙기고 하나 되는 강원도 횡성의 문화원 회원임을 뿌듯하게 생각한다.



대마도가 어떤 곳인가.

아픈 역사의 일부를, 다시 또 전체를 확인하듯 가슴이 아픈 건 많은 한국인들이 이 방문하는 이유 중에 이유라면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민족성이 애잔한 마음에 들어 있었으리라.

동백꽃은, 이별의 꽃 되어 뚝뚝 떨어져 녹을 줄 모르고, 덕혜옹주를 감싸던 바람으로 초록 속으로 들어가는 듯 한데 가미자가 공원의 먼지 묻은 결혼봉축비를 보면서 무엇을 얘기 했던가. 한참을 서성이다가 국가가 약해서 슬프고, 악을 이용하는 그 시절을 다시 보는듯했기 때문에 마음이 아팠다.

그것도 다케유키와 이혼한 후 일본인들이 화가 나서 뽑아버렸는데, 한국인들이 관광을 많이 와서 다시 세웠다는 결혼 봉축비를 우리가 무어라 할 말이 있을까.

다른 공원처럼 예쁘지도 정답지도 않은 그냥 공터에 불과했다. 유년의 시간들이 뛰어 놀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조국을 그리던 한 소녀에서 여인의 환상이 가

을날 잠자리처럼 자유롭게 높은 하늘을 조각구름으로 그리고 있는 쓸쓸한 공터, 남의 나라에서 언제 죽을지 모를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같은 한국인 같은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남의 나라에 가면 모두가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맞는 것 같다. 그 애국애족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또는 그 후에도 변치 않길 스스로 다짐하면서 나는 문화원회원의 일원이라는게 참 좋았다. 황성으로 돌아가면 내가 사는 지역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 유익한 일이 없을까 고민하고 더 열심히 살 것이라고 다짐해보면서 나의 노루꼬리만한 애국심이 모두에게 유익이 된다면 좋겠다. 돌아오는 길에 기도를 한다.



지혜를 달라고 지혜롭게 우리나라를 잘 지켜 가길 말이다. 성숙한 국민에서 성숙한 군민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나의 대한민국이길 말이다. 기준과 조화는 다른 건 분명하다. 시대의 비극은 결국 배운 게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盡人事待天命이라 했던가? 사람 노릇 한다는 게 그리 쉬운 건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래서 국민들 또한 국가관 과 가치관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서로에게 부족하고 모자란 격려가 힘이 되고 응원이 되는 대한민국 강원도 횡성인으로, 대한민국 만세, 강원도 횡성만세, 소리쳐보는 9월 하순에 내 인생의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 않는 길에 풀어 놓는다.

## 가지 않는 길

로버트 프로스트

노란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지  
나는 양쪽 모두를 갈 수는 없었지  
오랫동안 서서 숨곰이 생각했지  
한쪽 길을 멀리까지 바라보았지  
그 길의 덩불 속에서 굽어져 있는 곳까지  
그러다가 똑같이 좋은 다른 길을 택했지  
어쩌면 그 길이 더 나은 것도 같았지  
풀이 더 많았고 발길을 기다리는 듯 싶었기에  
그 길도 다른 길처럼  
비슷하게 닳아 있었긴 했지만  
그날 아침의 그 두길 모두  
아무도 밟지 않은 나뭇잎들이 덮여 있었지  
오! 나는 하나는 다음날을 위하여 남겨 두었지  
하지만 길이 어떻게 길로 이어지는 지 알았기에  
다시 돌아올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

2019년 9월 25일

2019 대마도 해외문화탐방

## 충북 단양을 다녀오다.



김종성  
(횡성문화원 사원)

우리의 전통문화와 우수한 문화유산 등을 폭넓게 접하고 익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고자 5월 9일 화창한 날씨 속에 충북 단양군 관외 문화유적지 답사를 떠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관외 문화유적지 답사를 떠나게 돼서 설레는 마음과 우수한 문화유산을 많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뜻깊은 날이 될 거 같았습니다. 횡성문화원 임직원 및 문화원 가족 140여 명이 1, 2, 3, 4호 차에 나누어 탑승했습니다. 저는 4호 차에 배정을 받아서 4호 차에 올라가 인원 체크를 하고 1호 차부터 차례대로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을 향하여 출발하였습니다. 1시간여를 달려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에 가는 길목에 있는 터널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원래 터널은 기차길이었다고 합니다. 좁은 터널에 있는 레일을 걷어내고 도로를 만들어서 지나갈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지나가고 있는 터널에서 기차가 다녔다고 하니 신기했습니다. 버스로 이동 중에 일정이 변경되어 단양 만천하 스카이워크를 먼저 방문하게 됐습니다.

만천하 스카이워크 만학천봉 전망대는 나무테크 길을 따라 나선형으로 올라가며 사방을 둘러보면서 갈 수 있었습니다. 황성에서 맨날 보던 풍경만 보다가 이렇게 문화유적지 답사를 통해 밖에 나와서 초록빛으로 물든 나무와 강을 구경하면서 사진도 찍으며 올라갈 수 있어서 지루한 일상 속에 즐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600m를 옆에 풍경을 감상하면서 걸어가니 금방 정상에 도착하였습니다. 정상에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과 망원경으로 주위 풍경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정상에 도착하여 바닥을 보니 하늘을 걷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투명한 유리를 통해 보이는 바닥 풍경이 아찔했습니다.

하지만 화창한 날씨 속에 꼭대기에서 바라보는 단양의 아름다운 자연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서 뜻깊은 추억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뒤로하고 우리나라 선사 유적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으로 출발했습니다.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은 단양군 적성면 애곡리에 있는 수양개 선사유물을 전시하는 곳으로, 1983년 충주댐 수몰 지구 문화유적 발굴조사의 일환으로 발굴을 시작하여 중기 구석기시대부터 마한 시대까지의 문화층에서 발굴된 수양개 유적의 유물을 정리하고 연구한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는 전시관입니다.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에 들어가면 제일 처음 보이는 것은 정교하게 만들어져있는 대형 맘모스 화석입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정말 거대했습니다. 구석기 시대에 이렇게 큰 맘모스를 사냥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1전시관은 구석기시대 단양지역의 보존가치가 있는 50개의 동굴에서 나온 유적과 유물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남한강변의 좋은 암질로 만든 중요한 석기들이 많아서 구석기시대 문화상을 유추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양개 유적은 후기 구석기시대의 전형적인 석기가 다량 출토되어 석기 문화의 진수를 보여주는 곳으로 세계적인 구석기 유적지로 손꼽는다고 하니 중요한 역사유적지라고 합니다.

제2전시실은 한대유적인 강한단구에서 발굴해낸 유물들을 전시해놓은 곳이었습니다. 중기 구석기부터 후기 구석기까지 수양개 I·II지구의 구석기 문화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중심 문화층을 이루는 I 지구 후기 구석기시대 유적에서는 50여 곳의 석기 제작소가 조사되었으며, 스펀찌르개, 좀 돌날 몸돌, 밀개 등 정형화된 유물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제3전시실입니다.

집터 26기에서 나온 유물들을 전시해 놓은 곳입니다. 우리나라 중국 내륙지역에서 발견된 대규모의 마한시대 생활유적을 전시한 곳이며 발굴 조사된凸자형 집터의 축소 모형과 주거 유적에서 발굴된 다양한 기형의 토기, 석기류, 장신구, 철기, 곡물 등을 만나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출토된 유물들을 보았을 때 이곳에서는 큰 세력들이 살았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전시관은 단양지역 동굴의 진면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동굴 사진 120점이 지질학적인 설명 자료와 함께 전시되어있어서 사진을 보면서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1층에 모여 단체 사진을 찍고 단양 구인사로 출발하였습니다.

구인사는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1백67만 천태종신도들의 근본 수행 도량입니다. 상월원각 대조사님께서 홍범 호국과 구세 제종의 염원을 펴기 위해 창건한 사찰로 대한 불교 천태종의 총본산으로 우리나라 최대의 영험한 사찰로 소원을 빌면 잘 이루어진다고 하여 더욱 유명하다고 합니다.

구인사로 출발 하는 버스 안에서 장태종 횡성문화원 이사님이 해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절에 들어가면 현판에 쓰여 있는 글자의 끝 자가 전자로 끝나면 무조건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고 방자로 끝나면 스님들이 기거하시면서 행사를 치르는 곳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1700만 불자 중에서 98% 정도의 사람들에게 절에 오면 왜 3번 절을 하는 것인지 알고 있느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저도 부모님 따라서 절에 가면 남이 하나까 결눈질로 따라 하고, 이유도 없이 절을 3번 했던 것 같습니다. 절을 3번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부처님 전에 한번을 하고 두 번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한번 절을 하고 세 번째는 스님에게 마



3층석탑

지막 절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3번 절을 하는 것을 불법승 삼귀의레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귀 기울여 듣다 보니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종교활동으로 원 불교라는 곳에 상점을 얻기 위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불법승 삼귀의레라는 말을 들어본 기억이 났습니다.

즐겁고 유익한 이야기를 들으며 1시간여를 달려 구인사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주지스님이 주차장에서 맞이해주시고 점심 공양을 먹기 위해서는 걸어서 공양 받는 곳으로 올라가는 방법과 구인사에서 제공해주는 25인승 버스를 타고 법당까지 올라가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저는 공양 받는 곳으로 전을 가지고 올라가 세팅을 하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구인사는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5만명 이상이라고 해서 엄청 크겠구나 했지만 버스를 타고 올라가면서 보이는 건물들의 모습이 현대식 콘크리트 건물이어서 크기가 크고 이색적인



비석

모습이라서 제가 알고 있던 절의 모습과 달라서 신기했습니다.

법당에서 내려 5분여를 걸어서 올라가면 공양을 먹을 수 있는 건물이 나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인사를 방문하여 공양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엄청 많아서 불비지는 않을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답사를 온 날 사람들이 별로 없어

서 편하게 공양 받는 곳으로 가서 맛있는 점심 공양을 하고 바로 아래에 있는 자판기 앞에 모여서 대조사전에 대한 설명을 듣고 대조사전을 보기 위해서 계단을 올라가서 광명전이라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광명전 안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절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광명전에서 나오자마자 보이는 상월 대조사님의 탄신 100주년 기념법 등도 크고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 눈을 사로잡았던 것은 대조사전의 금빛 향연이었습니다. 밝은 대낮에도 눈이 부시게 하는 금빛은 밤에 와서 구경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화창한 날씨 속에 주변을 둘러보니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대조사전 앞쪽에 있는 조형물에서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대조사전 옆에 있는 공양수를 한 모금씩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을 찍으면서 구경을 했습니다.

더 구경하지 못한 아쉬움을 뒤로하고 타고 온 버스를 타려면 버스가 기다리고 있는 주차장으로 걸어서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내려가면서 5층 법당 옆을 보니 3층 석탑이 보였습니다. 코끼리 3마리가 탑신을 떠받치고 있는 모습이 신기해 보여서 가서 보니 2대 종정 남대충 대종사가 1983년에 인도 성지 순례 당시 가져온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는 삼층석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삼층 석탑 주변은 12지가 수호하고 1층 탑신 정면에 문의 모양이 있는데 이 돌문을 열고 들어가면 사리를 볼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합니다. 석탑 기단의 코끼리상은 부처님 열반 후 석가족의 사리를 분배 받아 이운하던 코끼리의 전설이 반영되어있다고 합니다. 내려오다 보면 상월월각대조사 범어비가 있고 버스가 기다리고 있는 주차장에는 천태중앙박물관이 있었습니다. 천태중앙박물관은 시간이 없어서 구경을 할 수 없어서 아쉬웠지만, 그 옆에 있는 “이 세상에 내 것이 어디 있나 사용하다 버리고 갈 뿐이다” 라는 상월월각대조사 범어 일부분이 적혀있는 비석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자마자 구인사로 출발하는 버스 안에서 장태종 이사님이 말씀해주신 “일주문을 통과하면 속세를 떠나서 그 세계로 들어가는 경계입니다.” “첫 번째 비우고 간다. 두 번째 버리고 간다. 세 번째 백지로 간다.” 공수래공수거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라는 말이 문득 뇌리를 스쳐갔습니다. 이왕 구인사에 왔으면 구인사로 들어오기 전에 속세에서 가지고 있던 근심 걱정을 버리고 백지로 가야 새로운 것을 채우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구인사에서 복을 가지고 속세로 가서 주위에 복을 주는 것이 뜻깊은 일상생활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내려오면서 처마 끝을 보았는데 용처럼 생긴 것이 보여서 궁금해서 버스 안에서 찾아보니까 용왕의 둘째 아들 이문이라고 합니다. 이문은 뿔이 없이 뿔족 나온 형상을 가진 동물이고 높은 곳을 좋아하고 화재를 막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구인사를 구경하면서 알아가는 것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는 마음과 공양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에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간 곳은 구인사에서 5분 정도 이동하면 온달관광지(드라마세트장, 온달전시관, 온달산성, 온달동굴)입니다. 단양군은 1993년부터 동굴개발사업에 착수하여 1997년 10월에 사업을 완료,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다. 온달전시

관, 온달장군 기마상, 온달동굴, 온달산성 등이 있었습니다. 매표소로 이동하면서 온달장군 기마상과 온달관광지에서 촬영한 태왕사신기, 천추태후 등 여러 가지 포스터가 있는걸 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드라마를 찍은 걸 포스터를 보고 알았습니다. 매표소를 통과해 바로 왼쪽에 있는 현무문을 지나서 왼쪽 계단을 올라가 드라마에 사용된 소품을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드라마 촬영 당시 사용한 소품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어서 재미가 있었습니다. 드라마 촬영 세트장으로 내려와 강도의 이궁, 진부인 처소, 조원전, 양현감 저택 등 여러 가지 건물들을 관람하고 연개소문 드라마 세트장 끝부분에 있는 온달동굴로 이동하였습니다.

온달동굴은 석회암지대에 형성된 천연동굴로 생성 시기는 최장 4억5천 년 전으로 추정하고 있고 동굴 길이는 800m 주굴과 이곳에서 갈라져 나간 5갈래의 굴이 있습니다. 동굴 안에는 다채로운 종유석과 석순이 발달되어있어서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온달동굴은 안전모를 써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안전모를 쓰고 들어갔습니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바닥에 있는 물을 봤는데 생각보다 깨끗해 보여서 당장이라도 먹을 수 있는 물처럼 깨끗해 보였습니다. 온달동굴 안에 물고기와 곤충 등이 서식한다고 해서 찾아보았지만 보이지 않는 걸 보니 깊은 곳에 있는지 안 보여서 아쉬웠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기묘하게 생긴 바위와 돌에 이름이 있는 것을 보고 사진을 찍으며 걸어갔습니다. 안쪽으로 가다 보면 좁아지는 구간이 있는데 머리를 돌에 부딪치며 허리를 낮추고 지나가는 경험도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원한 온달동굴을 나와서 tv에서 보던 초가집이 있는 곳을 들어가 봤습니다. 지붕이 벗짚으로 보여서 가까이 가서 보니 벗짚이 아니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비슷해 보였습니다. 관리하기 힘들어서 그런 걸까요. 시간이 없어서 가보지는



못했지만 사적 제264호인 온달산성은 성의 둘레가 682m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원형이 잘 남아있어서 보존가치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아쉬워서 스마트폰으로 온달국민관광지라는 홈페이지에서 단양 vr투어라는 곳을 들어가서 온달산성의 멋진 모습을 눈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매표소 옆에 있는 온달전시관도 관람했으면 좋았겠지만 아쉽게 건물만 보고 나왔습니다. 온달전시관은 온달장군과 평강공주의 삶을 사서와 설화를 바탕으로 역사 속에 살아있는 고구려의 영웅 온달의 정신과 혼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전시관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관람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담삼봉을 보기위해 출발을 했습니다. 단양에는 수려하고 아름다운 경치가 여덟 가지나 있다고 해서 '단양 팔경'이라는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단양 팔경 중 제1경으로 꼽히는 것이 도담 삼봉이라고합니다. 도담 삼봉에는 정도전에 관한 일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에 있던 삼봉이 홍수로 인하여 단양까지 떠내려 왔습니다. 정선에서는 원래 자기 땅이므로 관리가 와서 세금을 내야한다고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세금을 걷으러 온 관리 앞에 한 소년이 나타납니다. “



삼봉이 여기 있는 것은 오고 싶어서 온게 아니라 홍수때 떠내려온 것인데 세금을 여기서 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소중한면 다시 가져가시오” 이렇게 당돌하게 말한 소년은 정도전이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정말 총명했던 것 같습니다.

도담삼봉은 정도전의 어린 시절을 함께한 친구이자 퇴계 이황 선생님을 비롯한 수많은 시인의 영감을 준 곳이라고 합니다. 시간관계상 지나가면서 버스 안에서 볼 수밖에 없어서 사진1장 찍으면서 멀리서나마 보인 남한강의 맑은 물이 흐르는 강 한가운데 높이 6m의 늠름한 남편봉을 중심으로 양옆에 처봉과 첩봉이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도담삼봉을 마지막으로 답사를 마치고 횡성을 향하여 출발하였습니다. 마지막 일정인 명가명품에서 오삼불고기를 맛있게 먹고 오늘 하루 즐거웠던 관외문화탐방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답사를 준비하는데 고생을 하신 원장님과 사무국장님, 과장님, 주임님 그리고 관외문화 탐방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이사님들과 구인사 주지스님, 안전운행을 해주신 버스기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 횡성군 향토문화 유적지답사 소감문

# “횡성호숫길”에서 네 번 깜짝 놀란 이유!



이연숙  
(둔내마을 사진작가)

오늘은 횡성문화원에서 주최한 문화탐방을 가기로 한 날입니다. 목적지는 횡성군 갑천면에 있는 횡성호수길. 계속되는 일정으로 저의 몸은 약간 무거웠지만, 기관 「횡성문화원」이 주는 기대감 때문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횡성문화원 입구

## ① 깜짝!

둔내에서 횡성까지 버스로 갔습니다. 버스터미널에서 횡성문화원으로 가는 길 위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으며 몸의 약간의 피곤함은 편의점에서 구입한 커피로 사라지고 문화원에 다가갈수록 기대감은 점점 커졌습니다. 드디어, 횡성문화원에서 도착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니 군의원 김은숙님께서 반갑게 인사해

주시더군요. 깜짝! 8시30분경이라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문화탐방에 의원님도 같이 가시나하고요.



한 분 한 분, 인사를 나누신 후 뜻깊은 문화기행이 되길 사고 없이 잘 다녀오길 바란다는 당부를 하시는 김은숙 군의원님

김은숙 군의원님은 흥성문화원 예산에 대해 긍정을 표했으며, 그 예산으로 진행되는 이 행사에 매우 관심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의원님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는 여부 및 반응이 어떠한지 현장을 살피는 모습이 군의원으로서의 신뢰가 좀 더 커졌습니다. 이런 관심이 많이 좋았습니다.



이번 문화탐방의 취지인 「내 고장 알기, 내 고장 즐기기, 내 고장 사랑하기」를 설명하시는 흥성문화원 박순업 원장님



박순업 황성문화원장님께서서는 오늘 행사를 하게 된 취지 및 일정에 대해 약 20여 분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원장님 말씀 후 출발하여 9시 41분, 황성호수 길에 도착하였습니다. 버스는 입구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저와 일행들은 걸어서 입구까지 갔습니다.



망향의 동산 조형물

망향의 동산에 도착하니 기념 조형물이 보입니다. 망향의 동산 기념 조형물의 명제는 희망의 나래이며 전체 형태는 새의 날개를 직선 조합으로 구성한 단순

한 형태로 힘차게 비상하는 희망찬 내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날개의 양면에는 고향의 정취를 담고 있는 나무, 소, 강아지, 새, 길, 허수아비 등을 조형적으로 표현하여 망향의 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화성의 옛터 전시관

‘화성의 옛터’ 전시관에는 수몰되기 전 사용되던 여러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바깥사진을 찍다가 이곳 내부는 못 찍고 다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종금리 3층 석탑

전시관 옆에는 중금리 3층 석탑이 있는데, 이 탑들의 원래 위치는 이곳에서 서쪽으로 약 2.2km 떨어진 갑천면 중금리 탑둔지의 옛 절터였으나, 횡성댐 건설로 인해 탑이 물에 잠기게 되자 1998년 8월 이곳으로 옮겨왔습니다. 건축시기는 9세기 말로 추정되며 총 높이는 5m라고 합니다.

횡성호수길 출발전, 기념 사진 찍는 기쁨을 놓칠 순 없죠?



오늘은 전 구간 9km를 다 걸었습니다. 약 10시경, 뜨거운 햇빛을 가려줄 양산과 모자를 준비해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산책로에 들어서 처음 만나는 길은 갈림길이었습니다. 왼쪽으로 가는 포장된 길은 기존에 나 있던 (즉, 수물전에 사용되던,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국도여서 저희는 산책로 오른쪽으로 향했습니다.

문화원장님이 선두에 서시며 걷는 동안 깨알 같은 스토리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 저희에게 들려 주셨습니다.

산책로에 들어선지 10분도 채 안되어 양산을 접었습니다. 우거진 숲의 고마움입니다. 나무의 그늘이 햇빛을 대신하고 덧붙여 바람까지 붙여주니 그야말로 걷기에 환상입니다.



어느 분이 외치십니다. “아~, 잉어다!” 그 소리에 놀랐는지, 잉어의 몸놀림이 거세져 물이 튀어오르는 모습까지 봤지만 제 카메라는 잉어 대신 어르신들을 담더군요. 그렇게 한 번 잉어로 인해 저희들의 마음이 살짝 평소와 다르게 뛰는 가 싶었는데, 이어져 나오는 굽이진 숲길에 다시 평상심이 되고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곳이 보이니 반가움에 가방 속 물병을 꺼내 마셔봅니다.

약 10여분 쉬고 난 후, '오색꿈길' 문을 통과하여 다시 산책로로 나섰습니다. 산책로에 드리워진 그늘과 바람, 그 고마운 선물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함에도 40여분쯤 지나도록 계속 되는 산길에 약간 지루해지려고 할 때, 살짝 보여 지는 호숫가와 물, 숲속 길과 다른 모습에 제 마음이 호숫물로 젖어드는 듯 합니다. 다시 생기가 돌고 그 생기의 힘으로 또 숲길을 걸어가는데...

## ② 깜짝!

와~~우!! 마음의 준비 없이 만난 탁 트인 호수에 저의 입에선 탄성이 터져버렸습니다.

“하늘이 열렸다!”

이전까지는 숲의 나무와 그늘들이 눈앞의 풍경들이었는데, 이곳에 들어서니 아무 것도 없이 넓은 호수가 보이자 그런 표현이 나오더군요. 마치 닫혀있던 하늘이 나무와 그늘을 제끼고 열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면서 사진



을 찍다가 주위를 둘러보니 저 혼자 떨어져 있었습니다. 소심한 탓에 약간의 두려움이 맘속으로 파고들려 하더군요. 뛰다시피 걸어가 한참 후 드디어 일행을 만났습니다.





하늘의 구름이 호수에 자기 모습을 비춥니다. 나무도 자기 모습을 물에 비춥니다.

쉼터에서 조금 머무른 후, 다시 삼삼오오 대화를 하며 출발했습니다. 그 후에도 간간히 보이는 열린 하늘과 호수, 또 숲속길과 잔잔한 호수... 눈에 조금 익숙해진 듯하니 그제서야 (출발한지 1시간 10분쯤 지나) 심호흡을 하며 숲의 공기를 맘껏 마셨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푸른 잎들도 카메라에 담을 만큼 여유도 생겼습니다. 나뭇잎의 그늘이 만들어준 하트도 들어오고, 햇살 먹고 자라고 있는 솔잎과 나뭇잎도





보입니다.

늦게나마 길에서 만난 숲속식구들과 인사하며 걷는데 출구인 듯 보이는 문이 나왔습니다. 아까 들어갔던 ‘오색꿈길’ 문, 이곳으로 다시 나온 걸 보니 원점이 거의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조금 걷다가 만난 휴게소와 호숫가 전경. 출구까지 가는 동안의 마지막 쉼터였습니다. 출구가 보인다는 생각에 마음도 가벼워져 꽃들도 사진 찍으며 걸어 나오는데 조형물이 눈에 띄입니다.

앞서 가시는 원장님과 일행부부에게 달콤한 제안을 했습니다. 사진 찍어드린다고 좋아하시던 그 분들은 저의 설정에 너털웃음을...

이런 설정에 웃어주신 분들께 감사하기도 하고 축스럽기도 하며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 문화원장님께서 이 도로의 의미를 설명해주셨습니다.

이 도로 끝이 물에 잠긴 곳이라고!

### ③ 깜짝!

이 설명을 듣고 가슴속에 애린 마음이 드는 것은 저만 그런 것을 아날테지요.



물이 잠긴 곳에서 나와 삶으로 가는 모습! 사랑이었습니다.

#### ④ 감작!

9km를 완주한 탓인지 걸으면서 목상을 한 덕인지, 오늘 걸었던 산책로 횡성호숫길이 인생길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묵묵히 가는 길, 자칫 지루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난 하늘 열린 것 같은 기쁨도 있고, 그러다 그 기쁨은 잠시, 다시 지루해질 것 같은 일상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엔 삶의 터전이 물에 잠기는 것 같은 일들도 생기고... 어느 게 인생 전체라고 대표할 수 없으니 그 순간 순간을 즐기며 가다 보면,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되는 저 하늘 끝은 기쁨으로 소망하지 않을까요.

저의 고장에 이렇게 놀라운 선물이 숨겨져 있는 곳이 있다니, 뜻밖의 기쁨과 함께 감사함이 차올랐습니다. 그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이곳에 조그만 바램이 있다면 횡성호숫길에 더 많은 스토리들이 준비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산책로가 단순히 건강을 위한 산책로이거나 또는 멋진 풍경을 즐기는 산책로를 넘어서 이곳에만 존재하는 스토리들이 툭툭 튀어나와 이들과 대화를 해준다면 산책하는 이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길을 계획해보게 되는 이 호숫길을 사랑하는 사랑꾼들이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낮에 만났던 횡성호수를 꿈속에서도 흑여 만나볼 수 있을까 하는 바램을 가지며 소감문을 마칩니다. 이번 답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횡성문화원 원장님과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9년 관외 전통문화 현장학습 답사 후기

## 경상문화권 (진주, 거제, 부산)

손진경 (횡성문화원 회원)

가을 단풍이 알록달록 색동옷 입은 것처럼 예쁘게 물든 시월의 아침에 설레임과 들뜬 마음으로 답사를 가기 위해 횡성문화원에서 8시30분에 관광버스에 몸을 싣고 목적지를 향해 출발하였다.

버스안의 팀원들은 마치 수학여행을 떠나는 학생처럼 간식을 먹으면서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는 모습들이 행복해 보였다.

진주에 도착해서 진주 맛집 '하연옥'에서 점심 메뉴로 냉면을 먹었는데 푸짐하고 맛있었다.

점심을 먹은 후 우리는 첫 번째 목적지인 진주성에 도착했다. 진주성은 임진왜란 당시 3대 대첩의 하나인 진주성 대첩을 이룬 곳이다. 의병대장 곽재우가 진주성을 지키면서 왜군 2만명을 격퇴하였다. 동쪽으로는 남강이 흐르고 강변





절벽 위에 성채가 만들어졌고 서쪽으로 하천이 있어 천혜의 요새였다. 고려 말 공민왕 때 7차례 중수되면서 남해안에 출몰하여 왜구를 방비하는 기지로 사용되었다.

진주성안 축석루에 올라가 단체 사진을 찍고 내려다보이는 남강의 모습은 아름다웠다. ‘축석루’는 진주성의 대표적인 명승지로서 전쟁 발발시에는 주장이 병졸을 지휘하던 장소로 쓰였으며 평소에는 선비들의 풍류를 즐기거나 과거시험을 보던 장소로 이용됐다. 축석루를 다른 이름으로 ‘남장대’ 또는 ‘장원루’라 부르기도 했다. 건물의 구조는 정면 5칸, 측면 4칸의 팔작지붕형태로 되어 있다.

진주성 일정을 마치고 두 번째 답사지인 거제시에 도착해 거제 포로 수용소 유적공원 답사를 했다.

거제도 포로수용소는 6.25전쟁 중에 늘어난 포로를 수용하기 위해 1951년부터 거제도 고현, 수월지구를 중심으로 포로수용소가 설치되었고 휴전협정이 조인됨으로써 전쟁은 끝났고 수용소는 폐쇄되었다.

1983년 12월 20일에 경상남도 문화재 자료 제99호로 지정·보호 되고 있으며



지금은 일부 잔존 건물과 당시 포로들의 생활상, 막사, 사진, 의복 등 생생한 자료와 기록물들을 바탕으로 거제도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으로 다시 태어나 전쟁역사의 산교육장 및 세계적인 명소로 조성되었다.

유적관내에는 전시실, 영상실, 기념판매소가 설치되어있으며 전시실에는 포로의 발생, 폭동, 석방 등이 전시되어 있다. 특히 폭동 체험관은 포로수용소에서 벌어졌던 친공 포로들의 폭동과 친공, 반공 포로들 간의 격돌장면이 최첨단 복합 연출 기법으로 재현되어 긴박감과 위기감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세 번째 답사지인 '바람의 언덕'은 남부면 갈곶리 도장포마을, 그 마을의 북쪽에 자리 잡은 언덕이 바람의 언덕이다. 이곳은 거제도에서 특이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탁 트인 바다 전망이 좋은 곳이다.

이곳의 원래 지명은 '띠발늘'로 불렸으나 2002년경부터 바람의 언덕으로 명명되어 알려졌으며 지리적인 영향으로 해풍이 많은 곳이기엔 자생하는 식물들 또한 생태환경의 영향을 받아 대부분의 식물들은 키가 작은 편이다. 바람의 언덕 위 네덜란드 풍차는 바람에 돌아가고 사람들은 드라마 명소여서 그런지 커플들이 인증샷을 찍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바람의 언덕답게 바람이 세계 불어

날아갈 듯 했지만 탁 트인 거제 바다를 끼고 걸으니 기분이 상쾌하였다.

하루 일정을 마치고 통영으로 이동하여 활어회와 매운탕을 먹고 숙소로 이동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둘째 날 일찍 일어나 새벽시장을 다녀와서 조식으로 우럭미역국을 먹고 부산으로 출발하여 목적지인 부산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 도착했다.

부산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은 군인 군속 동원, 노동 동원, 위안부 동원 등 일제의 강제 동원의 실상을 규명함으로써 성숙된 역사의식을 고취하고 인권과 세계평화에 대한 국민교육의 장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 수집한 역사자료, 수기, 사진, 박물 등을 중심으로 전시 콘텐츠를 구성하였다.

관람객들은 전시 관람은 물론 자료실에서 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교육 및 문화행사 등에도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유족을 위로하기 위한 추도 공간을 마련하였으며 역사관에 공원 내에 있어 지역주민의 친환경적인 휴식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답사를 마치고 자갈치 시장으로 이동, 정심은 생선구이로 먹고 청도휴게소에서 휴식을 취한 뒤 전인원이 사고 없이 무사히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횡성에 도착했다.

많은 정보와 다양한 체험에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횡성군청과 횡성문화원 원장님, 사무국장님, 과장님, 주임님 직원 김종성님께 감사드립니다.

#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낫다

## 〈百聽不如壹見〉



김철수  
(황성문화원 회원)

2019년 11월 11일 황성문화원 회원 약40명은 문화원 회의실에 모였다. 박순업 문화원장님은 문화 탐방을 떠나기 전 오늘의 일정에 포함된 영월 고씨동굴의 내력과 황성 공근면에 있는 독재봉에 서려있는 유래와 의미를 홍보물과 사진 등을 개재한 교육 자료로 약 20분간 설명을 해주었다.

문화탐방의 의미와 이해를 돕기 위한 계획이었다. 날씨관계로 영월 고씨동굴



을 먼저 탐방하기 위하여 버스가 출발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버스 안에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1시간 반 가량 달려 고씨동굴 앞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오래 전에도 이곳을 와 본적이 있었지만 그때 보다 많이 가꾸고 정리되어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었다.



들고 온 홍보물과 비석문에 의하면 1592년 4월 임진왜란이 1953년 5월까지 약 1년간의 무자비하게 무장한 일본군의 갖은 약탈·노략질·착취·강간·살인·방화 등 광란의 포악한 행동은 조선인이라면 그 원한에 치를 떨게 한다.

이런 만행에 대항하여 우리 횡성군민들은 일찍이 만세운동을 벌렸고 또 많이 학살을 당하였다. 이때 갑천면 포동리에 정준제씨는 자진하여 의병이 되어 전라도에 내려가 항일 투쟁을 하다 전사한 숨겨진 횡성사람들의 업적을 새로이 많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별히 횡성에서 살던 고흥산씨의 가계도를 보고 설명을 들었을 때 매우 나라를 위하여 일본에 대항하여 싸워온 고씨들의 활동을 존경스럽게 이해하게 되었다.

고조부 고사신, 조부 고향산 등 중종때를 시작으로 이조판서·승전대부좌찬성, 조부 고향산은 우찬성·6조판서 등을 역임한 존경할만한 집안이었다. 부친 고광후는 영월 엄씨와의 사이에서 5남2녀를 두었고 넷째 고종경은 임진의병장으로 나라를 위하여 무기와 군량미를 준비하는 등 자기가 소유한 사재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활동을 한 충실한 애국 선현의 집안으로 일 하였다고 한다.

이런 사연을 알고 강원도 관찰사에서 ‘의병창의’ 대장으로 추대하여 관군 500명을 인솔하게 했으나 군졸들이 겁을 먹고 도망가는 것을 추포하느라 작전에 차질이 생겼는데 그 책임을 지고 애석하게 처형을 당하였다.

동생 고종원은 이렇게 집안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니 일본군을 피하여 영월 강 건너 도리곡 동굴로 부모를 모시고 동굴 피난 생활을 하다. 왜군에게 붙들려 처형을 당하게 되었고 부인은 정절을 지키기 위하여 동굴 앞 절벽에 떨어져 죽게 되었다. 이후부터 이 굴은 고씨동굴로 명명하고 불리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직접 찾아가서 보면서 그 내역을 알게 되니 그 의미는 잊을 수가 없을 것 같다. 2019년 8월에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가서 관람하였을 때도 내가 경험한 6.25의 참혹은 일부였고 그렇게 많은 국난을 겪은 것을 더 폭 넓고 자세히 체험하게 되었다. 많은 말보다 한번 가서 보는 것이 너무나 많은 이해를 갖게 되는 체험이었다.

그리고 체험이 횡성에 있는 독재봉을 전에는 낙타봉이라 듣고 등산을 한 경험은 있으나 이번 탐방에서 왜병들의 진격을 저지하는데 독재봉에는 엄청난 사연과 많은 역할을 한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왜군의 피로 붉게 물들인 ‘붉은고개’ 의병의 진격에 길을 막게 한 막힌고개, 종달바위, 삼배리의 사연, 말구리재의 사연 등등은 우리 횡성이 얼마나 많은 애국적인 일들이 있었는지를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다. 우리 조상들이 이러한 희



생과 사연들을 남기면서 나라를 충절로 지켰으니 우리 후손들도 더욱 나라를 굳건히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나라를 위하여 아낌없이 발휘하여야 하겠다. 이번 문화원에서 탐방여행은 참으로 잘 준비하여 의미도 새롭게 증진시켰고 또 이렇게 큰 경험을 하게한 횡성문화원의 모든 직원과 박순업 원장님께 감사를 드린다.

# 횡성문화탐방기행문

민족사관고등학교 박지영

강원도 횡성 안흥면 덕고산, 산 속에 위치한 민족사관고등학교(이하 민사고)에서 지내다가 오랜만에 고향인 광주에 내려가면 고향 친구들에게서 종종 “횡성은 언제? 살만해?”라는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횡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저는 음 ... 눈이 진짜 많이 내리고 횡성 한우가 역시 맛있긴 맛있더라.” 라는 간단한 말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마다 솔직히 부끄러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주소지 상으로는 엄연한 횡성 군민이었지만, 횡성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재학중인 학교와 행사가 있을 때마다 부모님과 함께 먹는 횡성 한우밖에 모르는 제 자신을 군민으로 불러도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런 저에게는 횡성문화탐방이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5월 18일 토요일 아침 8시 20분에 학생들은 하나 둘씩 기숙사 앞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린 덕분에 학생들은 상쾌한 마음으로 선선한 날씨 속에서 일정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문화해설사분과 문화원 관계자분께서 동행해 주셔서 풍부한 설명과 함께 문화탐방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첫번째 행선지로 이동하는 중에는 해설사분께서는 유명한 안흥 찌뽕의 유래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옛날에 횡성에 살던 도깨비는 굉장히 심술궂고 심보가 나빠서 주민들의 세간살이와 음식을 다 훔쳐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 원님께 가서 주민들이 도깨비를 잡아 항의하자 원님은 바위 세 개에 도깨비를 묶어 뒤서 굶어 죽게 하고, 주민들에게는 도깨비가 싫어하는 빨간색이 들어간 음식을 만들어 먹으라고 조언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안해 낸 음식이 빨간 콩인 팔이 들어간 안흥 찌뽕이며, 현재는 이 음식이 외국에 수출

할 정도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짧은 이야기지만, 그 속에서 살아 숨쉬는 횡성 사람들의 얼을 느낄 수 있었으며, 횡성에 대한 나뉠대로의 자부심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으며 첫번째로 도착한 곳은 강림 의병총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횡성 지역을 위하여 일본군의 기습공격으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신 민공호 의병장과 그의 60명의 의병들을 만나 뵈 수 있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애국조회 때마다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해왔지만, 직접 한 분 한 분의 묘를 찾아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은 후 한 묵념은 사뭇 그 느낌이 달랐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찾아간 다음 장소는 태종대입니다. 태종대는 말 그대로 태종대왕이 머무른 곳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이 장소에 얽힌 자세한 이야기를 하자면, 태종 이방원이 왕이 되기 전 원천석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왕이 된 후, 스승을 다시 만나 뵈기 위해 이 곳 태종대로 내려왔지만, 태종과의 만남을 꺼려했던 원천석은 산 속으로 들어갔고, 가는 길에 빨래하는 노파에게 자신이 가는 곳을 거짓으로 알렸다고 합니다. 태종이 노파에게 원천석의 행보를 묻자 노파는 당연히 들은 대로 왕께 말씀 드렸지만, 당연히 태종은 원천석을 만나지 못했으며, 한순간에 왕께 거짓말을 하게 된 노파는 그대로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합니다. 태종이 자신의 스승을 기다리며 머문 곳은 ‘주필대’라는 명칭을 가지게 되었고 훗날 이방원이 태종이라는 묘호를 받은 후에는 태종대라고 다시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그 후 짧게 의병대장 민공호 전적비를 답사한 오전 일정의 마지막 행선지인 횡성 풍수원천주교회로 향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올라갈 때가 10시 40분 정도 되었었는데 20분 뒤가 미사여서 더욱 그 분위기를 실감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세워진 천주교회이며, 우리나라 신부가 세운 첫 번째 천주교회이기에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합니다. 해설사 분께서 천주교회가 세워진 유래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셨는데, 초기 신도분들은 아무것

도 없는 산 속에서 벽돌을 직접 굽고 나르며 교회를 지으셨고, 호랑이에게 잡아 먹혀 한 명 한 명씩 사라지는 상황 속에서도 독실한 신앙심을 바탕으로 교회를 지키셨다고 합니다. 이 천주교회가 전국 많은 신도들의 방문을 받는 이유도 단지 우리나라 신부가 세운 최초의 교회라는 사실만이 아니라 강한 믿음을 바탕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긴 오전 일정 끝에 드디어 점심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심은 횡성에서 유명한 “꿈의 김밥” 집에서 산 계란 김밥이었습니다. 처음에 친구들은 점심 메뉴가 김밥이라는 소식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지만 김밥을 한 입 베어 문 순간 실망감이 금세 감탄으로 바뀌었습니다. 계란이 김밥 속 재료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신기한 김밥이었으며, 간이 매우 잘 배어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밥 먹은 후 기본이 최고조에 이르는 학생들은 횡성 댐, 물문화관, 수림공원 주위를 산책하며 마음껏 에너지를 발산하였습니다. 김밥 덕분인지, 넘치는 활기로 학생들은 댐 위의 다리에서 친구들과 함께 사진 찍기도 하고, 기사님들과 해설사분들과 함께 땀따먹기와 같은 놀이도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구방리망향의동산과 그 곳에 있는 중금리 3층석탑 답사를 끝으로 횡성문화원 향토문화유적지답사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답사를 통해 횡성에 있는 모든 것을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하루라는 짧은 시간을 통해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해설사분께 각 지역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짧게나마 횡성의 주민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들을 수 있었고, 횡성의 유명한 식당에서 만든 김밥을 먹으며, 해설사분들과 함께 동행해주신 횡성문화원 관계자분들과 교류하며 횡성군민과도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고향에 내려가 친구들을 만났을 때, 친구들이 다시 한 번 “횡성은 어때?” 물어본다면 그들에게 횡성에 관한 엄청난 정보를 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전처럼 찡심눈이 진짜 많이 내리고 횡성 한우가 역시 맛있긴 맛있더라.” 라는 공허한 말이 아닌 “ 횡성분들이 정이 많으시더라고요” 라는 말을 한 마디 더 덧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횡성 문화 탐방을 다녀오고

민족사관고등학교 권기수

지난 5월 18일 토요일 민족사관고등학교 23기 동기들과 함께 우리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인 횡성의 주요지역을 둘러보는 횡성 문화 탐방을 다녀왔다. 횡성 문화 탐방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전혀 기대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몸과 마음이 모두 정화되었던 그야말로 힐링 여행이라 할 수 있겠다. 횡성 문화 탐방을 떠나기 직전 한 주간, 내 몸과 마음은 미세먼지, 농구부 훈련, 잠 부족, 성적, 인간관계 등으로 너무나도 지쳐있었다. 그렇게 너무나도 길었던 한 주가 지나고 드디어 주말이 되어 휴식을 취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던 순간, 하필이면 그 주 토요일에 횡성 문화 탐방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때는 정말이지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다.

그렇게 찾아온 토요일, 아침 8시 반에 아침도 먹지 못하고 잠도 덜 깬 상태에서 부랴부랴 가까스로 시간에 맞춰 버스에 올라탔다. 그날은 그 어느 때 보다는 방에서 늦잠도 자며 푹 쉬고 싶었으나 그럴 수 없었기에 횡성 문화 탐방의 시작은 썩 유쾌한 기분은 아니었다. 자리에 앉아 이어폰을 꺼내 음악을 들으며 잠에 드니 금세 강림면에 도착해 있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깊이 잘 잤던지 버스에서 내려 상쾌한 공기를 마시니 잠도 깨고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다. 다행히도 그날은 비가 와서 덥지도 않고 매우 선선한 날씨였던 것이다. 친구들과 평소에는 바빠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며 가이드 선생님의 안내를 따라 계단을 올라 강림의병총에 도달했다. 가이드 선생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버스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자던 것도, 가이드 선생님 말씀을 듣던 것도, 아름다운 자연 경관까지 작년에 갔던 비전트립과 정말 비슷한 느낌이 들었다. 아마 이때부터 여행

온 기분도 들고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했던 것 같다. 짧게 강림의병총을 둘러보고 버스에 올라 다시 음악을 들으며 기분 좋게 잠에 들었다.

1시간을 달려 횡성 풍수원천주교회에 도착했다. 풍수원성당은 어느 정도 긴 오르막을 올라가야 했는데, 친구들과 함께 매일 아침 운동으로 산을 올랐던 터라 그 정도 오르막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 말을 하자 옆에 있던 많은 친구들이 공감하며 웃으면서 발걸음을 더 가볍게 옮겼다. 어느 정도 건자 높은 건물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다. 생각보다 성당이 크기도 하고 미사 하러 온 사람들도 많아서 깜짝 놀랐다. 가이드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횡성 풍수원성당은 우리나라 4대 성당 중 하나라고 한다. 성당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 조금 더 올라가니 유물전시관이 있었다. 서울의 박물관에서는 볼 수 없었던 100년 전 일반 우리 조상들이 사용했던 도구들과 많은 사진들이 정말 인상적이었다. 유물들을 보며 100년 전 이곳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기 시작했고, 그분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다. 사진 속 우리 조상들의 농사를 짓다가 까맣게 탄 얼굴에서 그분들의 고생과 당당한 품위를 동시에 느낄 수 있었다. 약 1시간 동안 계속해서 걸었던 터라 땀이 나기 시작했고 버스에 탑승하기 전 화장실에 들러 시원한 물로 세수를 하니, 몸과 마음의 피로가 씻겨 나가는 기분이었다. 그렇게 다시 버스에 올라 약 30분 이동하여 그토록 기다리던 점심시간이 되었다.

점심은 아쉽게도 밖에 그쳤던 비가 다시 와서 차안에서 먹을 수 밖에 없었다. 가이드 선생님께서 횡성에서 가장 맛있는 김밥이라는 설명과 함께 우리에게 김밥을 나누어 주셨는데 처음에는 또 김밥이냐며 불만 가득하던 학생들의 얼굴은 한입 먹는 순간 환희의 얼굴로 바뀌었다. 내 옆자리에 앉아 있던 친구는 자기가 먹었던 김밥들 중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맛있는 김밥이라 극찬했다. 계란이 김밥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정말 특이한 김밥이었는데 내 입맛에도 참 잘 맞았다.

맛있게 식사를 하고 바로 옆에 있는 횡성댐으로 걸어서 이동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우리가 식사한 장소가 횡성댐 수림공원이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또 오르막을 올라야 했기에 횡성댐에 올라가는 것이 귀찮게 느껴졌다. 그러나 막상 횡성댐에 올라가니 그 경관은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우며 시원했고 올라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횡성 댐의 다리를 기준으로 양 옆으로 넓고 깊게 펼쳐진 물과 그 뒤에 자리하고 있는 산과 푸른 하늘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었다. 그 경관 속에서 친구들과 맑은 공기를 마시며 다리를 건너는데 몸과 마음이 완전히 정화되는 기분이었다. 미세먼지 없는 공기가 얼마나 좋았던지 그 공기를 학교에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렇게 계속해서 횡성댐의 긴 다리를 건너고 있는데 한 마리의 큰 새가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가며 댐을 한 바퀴 도는 것이었다. 그 순간만큼은 규율, 정해진 스케줄 속에서 기계처럼 공부했던 일상은 다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그 새가 된 것 같은 기분으로 자유로움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친구들과 나는 다른 학생들보다 조금 더 오랫동안 그 곳에 머물다가 시원한 음료수를 하나 사 마시며 가장 마지막으로 버스가 있던 장소로 내려갔다.

마지막 장소는 중금리 3층 석탑이었는데 그곳에서는 탑이 멋있기도 했지만 우리 학생들의 이목을 더욱 끌었던 것은 그 앞에 자리하고 있던 카페와 분식집이었다. 평소 학교에서 먹을 수 없었던 간식을 먹는 그 시간은 정말 비록 힐링 여행이기는 했으나 하루종일 여기저기 걸어다니며 나름대로 쌓인 피로를 한 번에 날려 버리는 시간이었다. 아이스크림으로 시작해서 떡볶이, 잔치국수, 비빔국수, 스티어링 치즈, 청포도에이드 까지 정말 배터지게 맛있게 먹었다. 선생님들께서도 우리의 그러한 심정을 눈치 채셨는지 계획되어 있던 것보다 30분 정도 시간을 더 주셨다. 배가 부르채로 기분 좋게 학교로 돌아가는 버스에 탑승해 눈을 잠깐 붙였다 옆에 앉아 있던 친구가 깨워 일어나니 기숙사 앞이었다. 약 7시

간 동안 이루어진 여행의 끝이었다.

이 횡성 문화 탐방의 원래 의도는 우리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고장의 주요 장소들을 방문하고 횡성이라는 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에게 횡성 문화 탐방은 그것들을 이룸은 물론이거니와 동시에 여러 가지 일들로 지쳤던 몸과 마음에 쌓여 있던 피로를 회복시켜주는 귀중한 여행이었다. 친구들과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도 나누고, 잠도 많이 잤으며, 좋아하는 음악도 실컷 들을 수 있었고, 횡성의 아름다움에 취할 수 있었던 여행이었던 것 같다. 이제 회복도 되었으니 이 횡성 문화 탐방을 디딤돌로 하여 다시 일상에 복귀해 더욱더 힘을 내어 학생으로서의 본분인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 횡성에서 보낸 하루

민족사관고등학교 오다은

중간고사와 AP가 모두 끝난 후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와중, 횡성문화유적답사라는 것을 가게 되었다. 작년에는 시험에 대한 대가로 비전트립을 갔었는데 올해는 시험에 대한 대가로 횡성을 탐방하다니;;; 처음에는 아무런 기대나 희망이 없었다. 그냥 하루 또 무기력하게 걸어 다니면서 지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한 것이 다였다. 그러나 처음에 예상한 것과는 달리 점점 다니면서 흥미를 느끼게 되었으며 기숙사에 와서 하루를 되돌아봤을 때 정말 보람차게 보낸 하루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횡성문화유적 답사를 한 후 대표적으로 기억에 남았던 두 곳은 바로 태종대와 풍수원성당이다. 우선, 태종대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횡성군 강림면 강림2리에 있는 태종대는 조선 태종과 운곡 원천석과 관계되는 유적으로, 문화재자료 제16호로 지정되었다. 원천석은 고려 때 좌명공신 금자광록대부 문하시중평장사를 역임한 원경의 19대 손이며 충숙왕 17년에 종부사령을 지낸 윤적의 둘째 아들로 원주 원씨의 중시조이다. 고려의 멸망과 조선조 태조의 왕가 형제간의 살육을 통탄하며 분노를 느낀 나머지 관직을 거부하고 개성을 떠나 이곳 강림리에 은거하였다. 그는 고려왕정 복고를 위하여 반기를 든 두문동 72인의 한 사람이며 이양소,남을진,서견과 더불어 고려 사처사 중 한 사람으로 유명하다. 원주시 행구동 석경춘에 그의 묘소가 있고 칠봉서원에 배향되었다. 이방원이 조선조 3대 태종으로 등극하여 왕위에 오르기 전에 스승으로 섬겼던 운곡 원

천석을 찾아 다시 관직에 앉히고 정사를 의논하고자 이곳을 찾았으나, 원천석은 태종이 이곳에 오는 것을 미리 알고 태종과의 만남을 꺼려 피신하여 치악산으로 들어가면서 개울에서 빨래하는 노파에게 자신의 행선지를 거짓으로 알리고 골짜기로 들어갔다. 태종이 이곳에 도착하여 빨래하는 노파에게 윤곡이 간 곳을 물었으나 노파는 원천석이 일러 준대로 거짓으로 가르쳐 주었다. 태종은 그곳으로 가서 스승을 찾았으나 끝내 찾지 못하고 이 바위에서 기다리다 스승이 자신을 만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돌아갈 수 밖에 없었다. 그후 태종이 윤곡을 기다리며 머물렀다 하여 뒤에 이곳을 ‘태종대’라 하였으며 ‘주필대’라는 비석을 세워 누각 안에 보호하고 있다. 태종대 아래의 기암절벽에는 다음과 같이 각자(刻字)되어 있다.

요즈음 한국사 시간에 조선의 역사를 배우고 있는데 왕자의 난의 결과물이 횡성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새롭게 다가왔다. 여기서 역사 유적지 답사를 하는 이유에 대한 해답도 찾은 듯하다. 다른 나라 여행을 가거나 우리나라 여행을 가더라도 여행에서 꼭 빠지지 않는 코스는 바로 역사 유적지 탐방이다. 어디에 가나 박물관이나 유적지는 꼭 들러 그곳의 역사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러한 여행이 쓸모없다고 느꼈으며 차라리 수영을 즐기거나 그 나라의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횡성을 돌아다니며 새롭게 느끼게 된 사실이 있는데 바로 역사 유적지 탐방을 통해 역사가 생각보다 우리와 가까운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책으로만 역사를 배울 때는 단순히 지식 나열이지 그것을 피부에 와닿거나 우리가 당대 사람들의 상황에 공감하기는 어렵다. 마치 우리와는 전혀 관련없는 일들을 배우는 것 같기 때문에 시험 기간에 암기하고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듣는게 전부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 유적지들을 보면 그들이 실제로 살아있었음을 느낄 수 있고 우리가 배우던 역사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나 현재의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된다. 이번 태종대 방문도 마찬가지였다. 역사 시간에 왕자의 난을 배울 때는 별 감흥이 없었다. 단순히 태종이 잔인하다는 사실 또는 왕위에 욕심이 많았다는 사실만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태종대를 방문하며 얼마나 태종의 욕심이 과했으며 스승이 귀향을 올 정도였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

두 번째로 기억에 남는 장소는 바로 풍수원성당이다. 횡성은 다른 지역에 비해 천주교회도 많고 신자도 많은데, 그것은 이곳이 초기 천주교도들이 숨어서 신앙을 키우던 곳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대표적인 마을인 풍수원은 천주교도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마을이다. 이 마을은 순교자의 피로 얼룩진 초기 천주교 역사에 횡성군의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게 한 데에 큰 몫을 하여왔다.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 1097번지에 있는 풍수원 성당은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건축된 성당이며 전국에서는 4번째로 건립된 건축으로, 강원도 천주교의 발상지이며 한국천주교사에 전기를 마련한 성지로 1세기 가까운 풍상 속에서 의연히 복음을 전파한 도내 고딕식 벽돌양식 건물의 효시이기도 한 유서 깊은 곳이다. 1982년 11월 3일에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69호로 지정되었고, 건평은 120평이다. 1801년의 신유박해 이후 1802년 혹은 1803년경에 경기도 용인에서 신태보(베드로)를 중심으로 하여 40여명의 신자들이 8일 동안 피난처를 찾아 헤매다가 정착한 곳이 풍수원으로, 이곳은 한국 최초의 천주교 신앙촌이었다. 이곳에서 80여년 동안 신자들은 성직자 없이 신앙생활을 하여 오다가 1888년에 서울교구장이 풍수원 성당을 본당으로 승격시켜 초대 신부로 프랑스인 르메르 신부가 부임하여 정식으로 교회가 성립케 되었고, 춘천, 화천, 양구, 홍천, 원주, 양평 등 12개 군을 관할하여 당시 신자수는 약 2천명이었다고 한다. 요즘은 신앙에 대한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신앙의 최초 발생지를 가보니 느낌이 새로웠다. 과학을 더 깊게 배우고 사이비 종교 등이 뉴스에 많이 나오면서 과연 진정한 신앙이란 무

엇일까?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일까? 신은 진짜 존재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많이 던지고 있다. 풍수원 교회를 보며 당시 사람들은 믿음이 도대체 뭐길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도 들었으며 한편으로는 신에 대한 믿음이 사람들을 끌어당기기에 매우 끈끈하다는 사실도 느꼈다. 풍수원 교회를 갔다오며 신앙에 대한 나의 마음이 더욱 혼란스러워진 것은 사실이나 천주교도들이 당시에 지은 성당에 갈 수 있어 좋았다. 참고로 아름다움 풍경을 보고 비트 때 추억이 많이 떠올랐다.

황성문화유적답사를 하며 느낀 것도 많았고 기숙사에서 공부하거나 자는 것 보다는 훨씬 더 의미 있는 추억이었다고 생각한다. 아이들과 아이스크림을 사먹기 위해 전력 질주하는 우리의 모습, 마트가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민사고 아이들의 모습, 별 것 아닌 일에도 지나치게 기뻐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정말 많이 비슷해졌구나를 느꼈다. 황성문화유적답사는 물론 유적답사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컸지만 친구들과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했던 시간인 것 같다.

# 형성의 역사는 나의 자부심

민족사관고등학교 신준섭

고등학교 2학년이 되고나서 하나의 언덕이었던 1회고사를 마치고, 반별 현장체험학습을 가게 되었다. 장소, 식사, 이동수단 등을 계획하고 선생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현장체험학습은 놀러가는 거라는 나와 반 친구들의 생각과 의견이 잘 수렴되지 않아, 선생님의 추천으로 우리고장 형성문화유적답사를 가게 되었다.

첫 장소는 강림리 의병총과 민공호 의병장 전적비였다. 1908년 2월 29일, 민공호 의병장이 이끄는 60명의 의병들이 월현리 하비고덕 허씨의 집에서 머물던 중 영월지역 관헌과 일본군의 기습을 받게 되었고, 5명이 전사하고 나머지 의병은 빨뿔이 흩어졌다고 한다. 그리고 전사한 5명의 장례를 치르고 강림리 강림중학교 옆 산에 묻었다. 1984년 10월 15일부터 11월 27일까지 산재해 있는 의병 5명의 분묘를 발굴·수습하여 한곳에 모아 묘를 만들고 묘역을 정비하였다. 민공호 의병장 전적비 앞에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 당시 의병들이 이 하천을 배수진으로 치고 전투에 임했다고 한다. 한문 시간에 배운 배수진의 개념을 알아들어 서 뿌듯하기도 했고, 이곳에서 의병분들이 싸웠다는 것을 생각하니 묘한 감정이 들었다.

그 다음 가까운 거리에 있는 태종대에 갔다. 계단을 오르면 절벽과 절벽아래 계곡이 흐르는 멋진 풍경을 배경으로 비석과 비각이 세워져 있다. 이방원이 스승인 운곡 원천석을 찾아왔으나, 원천석은 태종이 오는 것을 미리 알고 개울에서 빨래하는 노파에게 자신의 행선지를 거짓으로 알렸다. 이후 이방원은 거짓된 행선지에 갔고 끝내 원천석 선생을 찾지 못했다. 그 후 태종이 기다리며 머물렀다고 하여 '주필대'라고 불러 오다가 왕이 된 이후 '태종대'라고 하였다고 한다. 이전에는 공기의 상쾌함을 느끼지 못하고 머리가 짝 막힌 듯 했는데 태종대

에 오니 이러한 것들은 짝 사라지고, 고요함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다.

문화체육공원에 있는 한식뷔페에서 점심을 먹은 후 마지막으로 풍수원 성당에 갔다. 풍수원 성당으로 향하는 오르막길을 오르는데 ‘1888년 풍수원성당’이라 써져있는 비석을 보고 정말 경이롭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오르막길을 오르고 나니 익숙하면서도 늘 새로운 느낌을 주는 풍수원성당이 반겨주고 있었다. 정규하 신부님께서 준공기념으로 15그루의 느티나무를 심으셨는데 13그루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나머지 2그루만 남아 있었다. 그 나무아래에서 신선함을 느끼며 선생님의 해설을 들었다. 한국에서 4번째로 건축된 성당으로 천주교도들이 숨어서 신앙을 키웠던 곳이라고 한다. 1801년 신유박해로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처형당하고 40여명의 신자들이 피난처를 찾아 해마다가 정착한 곳이 풍수원이고, 1888년 프랑스인 르메르 신부가 부임하여 교회가 성립하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의 성당 건축은 정규하 신부가 부임하면서 이루어지고 1907년에 완성되었다고 한다. 무신론자라서 성당에 가본 적이 없고, 들어간 유일한 성당이 풍수원성당이지만 내부는 웅장했고 저절로 숙연해지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유물전시관에서 역사교과서에서 본 유물들을 볼 수 있었다.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아직 보존되어 있다는 것이 놀랍고 신비로웠다.

중학생 때 같은 역사탐방을 이미 두 번한 적이 있어서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이번 탐방은 정말 유적지의 의미를 알고 이전 나의 태도에 대해 반성하는 계기가 되어 의미 있었다. 탐방했던 유적지 중 우리지역,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하셨던 분들을 기리는 곳이 많았다. 내가 횡성에서 이렇게 편안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이유는 선조들의 희생덕분이라고 생각했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분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행동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또한 이전 2번의 탐방이 있었음에도 해설사분의 설명이 새로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전 현장체험학습에 임했던 나의 태도를 반성할 수 있었고, 한편으로 이번 탐방에는 유적지의 의미를 알아서 뿌듯했고, 횡성군민으로 살아간다는 자부심이 생겼다.



## V. 문예마당



\* 최보정 (시 : 또 하나의 소실점, 꽃)

\* 임청근 (수필 : 뿌리)

\* 전창수 (수필: 집으로 가는길)

\* 박성건 (시: GOP 군인의 변)

\* 4.1만세운동 100주년기념 전국 한글백일장 작품

-시 : 초등부, 중고등부, 일반부

- 산문 ; 초등부, 중고등부

# 또 하나의 소실점, 꽃



최보정

(시인, 수필가, 시낭송가)

활짝 핀 벚꽃, 흔적이 없어요  
늦게 핀다는 섬강둑 길 벚꽃 찾는 늦은 밤  
가로등 아래 키 작은 벚꽃나무 한 가닥  
하얗게 웃고 있네요, 아무도 없네요  
드문드문 회색빛 바위들은 나를 기다렸을까  
가로등보다 더 희게 웃고 있어요  
검은 돌맹이들 철망에 갇혀있는데도  
고개를 들고 두리번거리네요  
봄밤, 어슬렁대는 고양이 하나 없는 개울가  
이 깊은 밤 돌 위에 앉아  
벚꽃을 봅니다  
찬 돌덩이, 내 가슴위에 소실된 벚꽃들  
하늘하늘 때맞춰 피어나고  
때맞춰 사라지는  
공중의 물방울 되었어요  
무어라고 부르던, 아니 그냥 보이는 대로  
모두가 진실인데  
무얼 찾아 헤매나요.

새벽녘,  
후두둑 바람이 불고 비가 듣기 시작하네요  
60년 만의 호우경보라니, 이 봄에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꽃들이 무참히 떨어지네요  
내일이면 볼 수 없는,  
마음으로 새기며 돌아오는,  
천둥번개 뒤편이 뽕양게 모이네요.



# 뿌리



임청근

사무실 창문 너머에 족히 30년은 되어 보이는 전나무 두 그루가 서 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쳐다보는 친근한 벗이다. 언제부터인지 그 나무와 마음을 주고받다 보니 어느 틈에 새록새록 정이 들었다. 마치 오래된 벗을 대하듯 나는 때때로 그와 무언의 대화를 주고받곤 한다. 주위가 소란해도 위풍당당한 그의 모습에 저절로 고개가 수그러진다.

어느 날 늙은 할아버님 한 분이 주뻗주뻗 사무실에 들어왔다.

“딸애가 죽었는데…” 하면서 노인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세월의 때에 찌든 노인은 “도와주세요.” 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노인의 손에는 사망진단서가 들려 있었다.

건네받은 사망진단서를 들여다보니 사망 사유가 ‘약물중독’ 이라 적혀 있었다. 불쌍한 젊은 여자 하나가 짧은 삶을 마감하였구나 생각했다. 늙은 아버지보다도 먼저 세상을 떠나 아비 가슴에 못을 박고 바빠 저세상으로 간 모양이었다.

서류작성이 끝나자 그는 고맙다는 인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노인은 전나무 밑을 힘없이 지나고 있었다. 어지러운지 두 번째 전나무에 등을 대고 주저앉아 중얼거리듯이

“시집을 가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삼 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손자까지 생각하며 아마도 노인은 눈물을 훔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애만 죽지 않았어도…”

노인의 한숨이 내 가슴을 아프게 했다. 한동안 허공을 응시하는 노인의 모습이 안타깝게 내 가슴을 내리눌렀다. 그때 노인이 한마디 했다.

“허 참 그놈 시원하게 컸구먼.”

전나무는 노인의 슬픔을 어루만지듯이 팔을 흔들었다. 노인의 심정을 다 안다는 듯한, 한 뺨 깊어진 그늘을 머리 위로 늘어뜨렸다.

“한순간도 정신을 딴 데 팔지 않고 세상을 살피며 살고 있어요. 밖으로 내민 줄기보다도 더 길고 긴 촉수를 어두운 땅속에 펼쳐놓고 온갖 더러운 것들을 삼키며 이렇게 청청함을 드러내고 있는 걸요. 내 오른쪽 뿌리 전부가 하수도 공사로 잘려나갔지만, 고통 때문에 혼미하여 본 적이 없어요. 할아버지도 힘내세요.”

전나무의 속마음을 읽었는지 노인이 조용히 웃었다.

“어허, 이 나무 좀 보게. 한쪽 뿌리가 동강이 났어도 허공 끝을 뻗뻗하게 응시하고 흔들림 없는 기개를 보여주는군, 내가 조금만 더 일찍이 정신을 차렸어도, 조금만 더 크게 세상을 바라보기만 하였어도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으련만.”

쓴웃음 뒤로 귀여운 손자의 해맑은 웃음이 전나무 끝으로 어른거렸다.

“젊은 날에 마누라 속께나 썩었지. 오죽하였으면 딸 하나 낳고는 줄행랑을 놓았겠나. 그래도 사위 하나 잘 얻어 팔자 고쳐보려 했지만, 그 녀석은 나보다도 더해서 내 식구 둘이나 잡아먹었지. 늙어서야 이놈이 인과의 뿌리인 것을 알았으니, 이놈의 뿌리가 병들었으니, 어디에 가선들 온전한 싹을 틔우겠는가.”

회한과 자책에 빠져 망연히 앉아 넋을 놓던 노인은 분연히 일어섰다. 일어서며 바라본 나무뿌리 부근에 개미떼가 바글거렸다.

“저놈은 썩은 뿌리로도 슬한 곤충을 먹여 살리는데 인간이 나무 한 그루만도 못하구나.”

노인은 나무뿌리를 한참을 내려다보더니 휘청거리며 힘겹게 발걸음을 떼어 놓았다. 가까이에서 지켜보던 나는 노인이 중얼거리던 말이 자꾸만 떠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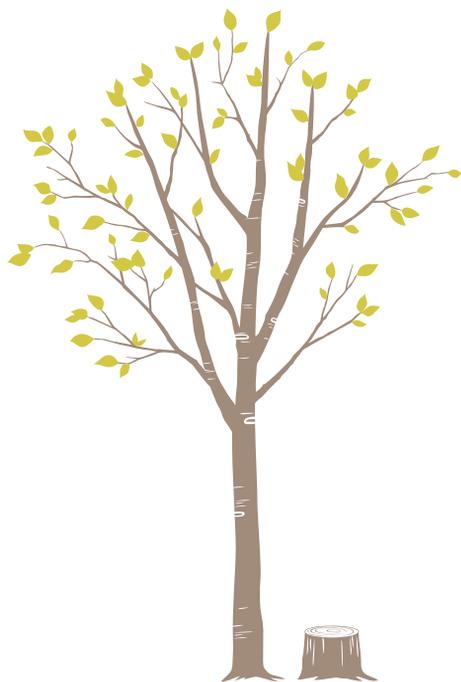
노인이 기댔던 전나무에 등을 기대던 채 두 눈을 감아보았다. 사망, 출생, 이혼,

삶의 조각들이 퍼즐처럼 이어졌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바람이 몰아쳤다. 나와 노인과 오버랩 되는 순간 몸서리가 일었다. 그때 뿌드득 전나무 가지 하나가 부러졌다.

“고통스럽지 않아. 가지 하나가 떨어졌을 뿐이야, 고통이란 것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그것도 자연의 일부이니까.”

전나무가 내게 말했다.

어느덧 날이 저물고 있었다. 죽을 때까지 세상을 바라보고 제 자리에서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일생인지 모를 일이다.



# 집으로 가는 길



전창수

땡! 땡! 땡!

오늘 마지막 수업종이 울린다. 이제 집으로 가는 시간!

초등학교 어린 소년은 교실 밖 복도에 있는 신발장을 기웃거린다. 하나 둘 어깨동무 친구들이 교실을 나와 종종걸음으로 점점이 흩어진다.

언뜻 보이는 신발장에 남은 신발은 몇 켤레 안 되는데 내 신발은 보이지 않는다. 이상하네. 내 신발이 어디 있지?

잘 찾아보면 어딘가에 있겠지 아직은 기대만이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없다. 아버지가 사주신 며칠 안된 내 검정 고무신, 이제 겨우 길들만 한데 또 누가 바꿔 신고 갔나 보다. 새 고무신은 좋은데 길들일려면 얼마간은 고생을 해야 한다. 걸을 때 마다 혈떡이며 발뒤꿈치를 물어뜯어 한번은 상처가 났다 아물어야 비로소 내 신발이 된다.

요즘말로 하면 일종의 착화 신고식 같은 거다. 사람이 아닌 신발한테 신고식을 치룬다. 그래도 새신이니 그정도의 땃가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 신발이 없어졌다. 집에 가서 혼날 생각하니 낙심천만이다. 그래도 달리 방법이 없다. 최후에 남은 신발이 내 신발이다. 어언 40년전의 일이다. 내가 다닌 우천초등학교는 1930년대 일제 강점기때 지어진 건물이다. 2열 횡대로 길게 두동이 지어져 있었는데 계단식으로 뒷열이 더 높게 자리잡고 있다. 밖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검게 보이는 외관이 특이하다. 나무 판재로 외벽마감을 하여 오래된 탓에 검은색을 띠고 있다. 그 긴 앞건물의 중앙 부근에 고무실이 있었고 복도는 반질거리는 마루가 터널처럼 길게 보이는 구조였다. 대청소하는 날은 교실바닥이며 복도바닥을 깨끗이 닦는게 다른반과의 경쟁과업처럼 여겨졌다. 집에서 가

저은 들기름을 걸레에 묻혀 닦고 또 닦아서 삐걱거리고 패인 곳도 있었지만 윤기는 대단했다. 반별 경쟁이라도 하듯 늘 그렇게 되풀이 되었다. 그 복도 중앙쯤에 교무실과 교장실이 있고 뒤편에 학교종이 땡그러니 걸려 있다. 보통 호박만한 크기에 가운데 추가 있고 종을 당기는 끈이 길게 늘어져 있다. 수업시작을 알리는 종은 두 번씩 여러번 친다.

땡땡! 땡땡! 땡땡!~~ 마치 시작! 시작! 시작!~~ 이렇게 들린다. 수업이 끝날 때는 땡! 땡! 땡!~~ 이다. 끝! 끝! 끝!~~ 과 음률이 맞아 떨어진다. 마지막 수업의 끝종이 울렸다. 개울을 건너 들판을 지나 마차나무 쌍미 언덕을 넘어 아홉구름이 머무는 그곳 구운마을의 집으로 출발이다. 꼬맹이 종중걸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운동장을 지나 가파르게 교문으로 올라서면 바로 신작로가 뽕얇고 길게 누워있다. 길 바닥은 잔자갈이 많이 깔려있고 뽕송뽕송한 흙이 분가루를 묻혀 놓은듯 널려있는 그 길, 가장자리로 우람하게 미루나무가 일정간격으로 서있다. 제법 따사로운 봄볕에 가지마다 연녹색에 붉은색을 묻혀 이파리가 움트고 있다. 끈적이는 새잎이 마치 새햇바닥처럼 삐죽삐죽 촉을 내밀고 있다. 두어시간에 한번 지나가는 시골 버스가 지나간 흔적을 남긴다. 사방이 흙먼지로 한바탕 난리를 치루고 나서야 제모습으로 돌아오는 신작로, 우리나라 60-70년대 신작로는 신기하게 보이는 국토의 핏줄처럼 느껴졌다. 집으로 가는 길에 잠깐 만나는 신작로 그 길위에 서면 자못 가슴이 뛰었고 미지의 세계로 통하는 마법의 길처럼 느껴졌다. 저길 한쪽 끝을 따라가면 오원 통골이 있다. 뒷박보리밭에 고야 한바구니를 바꿔다 먹는다는 통골에는 고야가 많이도 났나보다. 그 통골을 지나 안흥으로 이어지는 험하다 험하다는 전채고개가 까마득히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고 있다. 정상부분에 움푹 패인 곳이 이곳과 저쪽 세계로 통하는 신작로 길일거라 짐작케 할 뿐 한번도 가보지는 못했다. 그 고개에서 버스가 굴렀다는 등 비오는 날 밤에 귀신이 나타난다는 등 그야말로 전설적인 고개 전채, 버스는 알까? 그 고개의 전설을? 이제 교문을 등지고 집으로 간다. 이곳 촌

에서는 제일 변화한 쇠목장터가 바로 눈앞이다. 5일장이 서는 신기한 곳이었다. 보통때는 조용한 그러나 때를 기다리는 원형의 빈 장터가 있고 그 주위에는 옛날의 국밥집이며 전과사, 양복점등이 있다. 신작로 따라서 약국이 있고 그 옆에는 지나갈 때 마다 들리고 싶은 그러나 한번도 들러보지 못한 언제나 나를 호기심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마법같은 송방이 있었다. 지금의 구멍가게다. 격자창문으로 들여다 보이는 송방 안 평상같은 진열대엔 가질수 없는 신기한 물건들이 언제나 그렇듯 먼지와 같이 있었다. 그곳은 건빵이나 쫄득이, 과자나 사탕이 언제나 진열돼 있었다. 저것들은 다 보기만 하는 것, 내가 가질수는 없는 것으로만 여겨졌다.

그 가게를 지나면 언제나 구수한 냄새를 풍기는 양조장이 자리잡고 있다. 술 익는 냄새가 끓이지 않는 그 양조장은 앞마당이 꽤 넓었고 당시에는 시골에서 보기힘든 콘크리트 양옥식 건물이어서 특이하고도 신기했다. 안쪽에는 커다란 정말로 커다란 원형 용기에서 한길 깊이로 찰뜨물같은 막걸리가 익어가고 있었다. 살기 힘든 농촌의 모든 시름도 집안의 경사나 조사도 여기 양조장의 막걸리와 함께했다. 큰일이 생기면 으레껏 막걸리 통자가 짐자전거에 실려 여러통 배달되곤 했다.

양조장을 마주보는 길건너엔 국시뽑는 집이 있다. 늘상 덜거덕거리며 돌아가는 기계앞에서 얼굴에 밀가루 분칠이 그칠 날 없던 부부는 어제도 오늘도 열심히 국시를 뽑고 있다. 비오는 날 빼곤 그랬다. 국시공장 앞 길따라 넓지않은 공터엔 면발이 언제나처럼 건조대에 매달려 비단 커튼을 드리운 듯 일렁이는 바람에 찰랑였다. 면발 사이로 비치는 햇살에 국시발은 연분홍빛 수줍음으로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곤 했다. 그후로도 오랫동안 덜거덕거리며 돌던 국시틀이 생명을 다 했는지 그 뒤 언젠가부터 그 모습을 다시는 보질 못했다. 다 정리하고 서울로 갔다는 얘기도 있었고 평창 어딘가에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여 떠났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확인할 길은 없다.

이제 소의 목을 쳐서 쇠목이 되었다는 우향의 서낭당이다.

작은 연못과 오래된 위엄있는 소나무 여러그루가 군락을 이루고 있는 서낭당, 그곳에는 커다란 너렁바위도 있었는데 집에 가려면 반드시 지나야하는 길목이다. 그곳은 자못 거룩하고 성스럽기도 해서 왠지 지날 때 공연히 조심스러워 지곤 했던 곳이다. 그 길목에 오면 너렁바위에는 언제나처럼 형아 같은 동급생 서넛이 우리를 기다린다. 학교에서 무상으로 나누어 주는 옥수수빵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훌쩍반으로 나누어 이틀에 한 번씩 어른 주먹만한 옥수수 빵이 지급되는데 색깔은 노릿노릿하고 윗 덮개는 조금 탄 듯이 잘 익은 구수하고도 고소한 그 빵맛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그 빵을 타고오 배급하는건 반에서 덩치도크고 힘센 애들 몫이었다. 나누어주고 나면 간혹 남는 것도 있고 개수는 맞아도 박스 밑 바닥에는 덕지덕지 떨어진 조각이 꽤 많았다. 감히 넘볼 수 없는 저 빵부스러기는 형아 같은 배급자의 몫이었다. 집에 가다 빼앗길텐데 다먹어치울까? 아니야 반만 먹고 나머지는 집에 가져가서 아빠 엄마에게 자랑할까? 머릿속이 복잡했다. 어떤날은 과감했고 어떤날은 타협을 했다. 더러 운수좋은 날은 집에 무사히 가져가는데 성공을 했다. 어머니는 그것을 밥 뜬들일 때 살짝 찌서 아버님도 드리고 나도 먹게 해 주셨다. 갓 쪼넨 그 보들보들한 옥수수빵 세상어디에서 구한단 말인가? 노릴만도 했다. 아직도 집은 멀기만 하다. 넓은 별판이 눈앞에 있다. 넓어서 일까? 대면이라고 부르는 그 들판을 지나 이제 콧등의 땀이 맺힐 즈음 우리의 영원한 휴식처 마차나무 언덕이다. 100년도 넘는 마차나무는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맞아주었다. 이제 겨우 한숨 돌리고 뒤돌아 본다. 저기 멀리 초등학교가 보인다. 신작로에 버스가 지나간다. 먼지가 인다. 다시 짹미언덕을 넘고 용고개에 오르니 저기 마을이 보인다. 어서가자. 집으로 가자. 어깨에 비껴맨 책보가 털력거린다. 병철이가 앞섰다가 연창이가 앞서고 내가 앞선다. 장난치다 싸우고 도망가다 잡히고... 꼬맹이 셋은 그날도 그렇게 집으로 갔다.

친구들이 지금은 어디에서 잘들 지내고 있는지 보고싶구나!

## GOP 글인의 변



시조/시인  
만초 박성건

온전히 이룬 것 없이 지나간 무심한 세월  
막막한 철책선이 침묵으로 가로놓인

분단의  
아픔에 묶여  
오도 가도 못하는

한 맺힌 이 땅의 현실 막막한 애닦음을  
전선의 하늘 위를 유유히 날고 있는

아!

자

유

통일의 그날이 마음속에 짝튼다

## 메아리

횡성 우천초등학교 6학년 송지연

전국 곳곳에서  
쏟아지는 외침

소리의 근원지는  
조상님들 가슴속이다.

거리엔 태극기가  
바다를 만들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마음으로 전달되는  
메아리를 만든다.

모두가 들을 수 있게  
계속해서 외친다.

‘ 대한 독립 만세’

## 느티나무

원주 평원중학교 2학년 엄 체 원

수많은 사람이 별이 되고  
별들이 다시 사람 되는 시간을  
함께 한 당신

유난히 많은 별이 떠오르던  
그때를 기억하나요.

당신 손끝의 초록 잎은  
봄이면 그날의 함성을  
가을이면 그날의 아픔을 되뇌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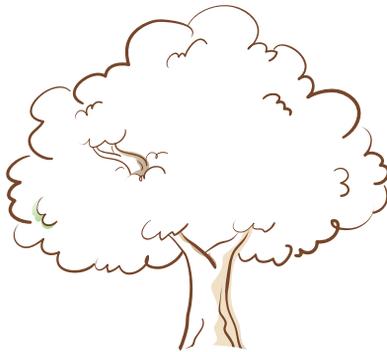
당신의 줄기마다 맺힌 한은  
하늘을 받칩니다.

당신 몸의 껍질들은  
한 겹 한 겹 우리 모습  
담아내고

당신 숨결 담은 땅은  
우리 조상 발걸음을  
한 몸에 품었습니다.

당신이 보았을 수많은 별들 중  
하나인 나는 당신께

아픔 없는 100년을 선물하겠습니다.



## 역사의 나이테

경기도 성남시 이상우

어릴 때 외조모가 머리를 쓸어 줄때면  
손끝에서 칼날 서걱이는 소리가 흘러들었다.  
일제 때 순사의 뺨을 후려치려다  
그만 잘려나갔다는 검지의 첫째 마디

한 마디가 베어나간 그 손에 얼굴을 파묻으면  
외조모의 없어진 나이테가 내 귀에서 맴도는 것 같았다.

자라면서 내 귓바퀴가 그녀의 사라진 지문을 닮았다 믿었다.  
아이를 낳아 기른다는 건, 자신의 나이테를 물려주는 일  
할머니를 떠올리면 가슴 속 깊게 뿌리내린 파문이 고통 찼다.

백 살을 한 살 남기고 돌아가신 외조모의 장례식은  
호상이라며 그 누구도 울지 않았다.  
그러나 조문객이 다 떠난 텅 빈 새벽  
나와 귓바퀴가 닮은 외사촌들의 고단한 뒤척임 속,  
영정에 맺힌 한 줄기 결로가 주르륵 흘러내리기도 했다.

어쩌면 나이테란 나무가 제 안에 채록한 소용돌이여서,  
열 몇 살에 손이 잘리고, 몇 년 뒤엔 전쟁을,  
늘그막엔 빗쟁이에 쫓기는 막내와 손주를 거두어준,  
그녀의 역사를 내가 다 이어받았다 자신 할 수 없다.

외조모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찾아간 시골집  
무심코 그녀의 사진첩을 뒤적이다가  
당신 무릎에 누운 어린 내 자신을 마주 본다.

열 개의 가지가 잇닿아 쓸어주는 머리카락  
반곱슬을 그대로 물려받은 꼬마가 문득,  
서른이 되어 소용돌이친다.



## 메아리

원주 중앙초등학교 6학년 황혜림

나는 3.1절하면 1학년 때 갔다 온 서대문형무소가 생각난다. 부모님의 손을 잡고 문 앞에 섰을 때 쓸쓸하고, 어둡고 두려운 마음에 발을 내딛기가 두려웠었다. 하지만 한 발, 한 발 내딛을 때마다 그 두려움이 분노로 바뀌어갔다.

쭉고 찰찰한 그 방 안에서 목청이 터져라 외쳤던 “대한독립만세” 그들의 목소리가 메아리치고 또 메아리쳐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탕. 탕. 탕”

그들의 총성은 멈추지 않았고, 그럴수록 우리 민족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태극기와 옷고름이 모두 피로 적셔졌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멈출 수 없었다. 내 나라, 내 땅을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로 멈추지 않고 싸웠다.

류관순 열사께서는 “내 손톱이 빠지고, 귀와 코가 잘려나가는 고통은 견딜 수 있으나 나라 잃는 고통 하나는 견딜 수 없다”라는 말을 하셨다고 한다. 비록 짧은 문장이지만 그 속에서 18살 소녀의 굳은 의지가 느껴진다. 그 어린 18살 소녀가 죽을 각오를 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도 끝까지 맞서 싸우며 독립운동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내 한 몸 다 바쳐 내 나라 지키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

서대문형무소를 관람하고 나오는 길에 하얀 눈이 내렸다. 그 눈은 마치 차갑게 얼어붙은 나의 마음을 대신해 주는 것 같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내 마음속에선 “대한독립만세”가 메아리쳐 울려 퍼졌다. 결국 3.1운동에 대한 책을 더 찾아보았다. 그 때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었을 것이고 그 목소리가 하늘에 닿아 끝내 8월 15일 드디어 광복을 하게 된다.

1919년 3월 1일 정오에 시작된 3.1운동은 기미년에 시작되어 기미독립운동으로 불리기도 한다. 3000만 국민이 하나 되어 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3.1운동은 우리나라 국민이 잊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사건인 것 같다.

언젠가 엄마께서 자신이 꾸었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다. 엄마께서는 1919년 3월 1일 사람들과 함께 탑골공원에 모여 있었고 엄마 또한 주먹을 불끈 쥐고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치셨다고 한다. 엄마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며 울먹이셨고 거짓말 같이 느껴졌던 이야기가 진심으로 와 닿았다. 과연 꿈속에서라도 나 또한 그 자리에 있었다면 한 치의 고민도 없이 “대한독립만세”를 외칠 수 있었을까? 말로는 쉬운 그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을까? 나는 끊임없이 나에게 다시 되묻고 또 물어보았다. 하지만 쉽사리 결정지을 수 없었고, 다시 한 번 그들의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많은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움을 견디며 지켜주신 이 나라를 그 희생과 용기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드리고 싶다.

온 국민의 마음속에 “대한독립만세”가 메아리쳐 가슴속 깊이 머물러있으면 좋겠다.

## 함성

원주 상지여자중학교 3학년 이 유 진

화창한 봄날, 소찬이는 횡성에 사시는 할아버지의 집으로 놀러갔습니다. 소찬이는 오랜만에 좋아하는 할아버지를 본다는 생각에 잔뜩 들떠있었습니다. 할아버지집에 도착하자마자, 소찬이는 할아버지의 품으로 쪽 안겼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소찬이가 귀여운지 껄껄 웃으셨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밖에 안 나가요?”

“소찬아, 먼저 밥부터 먹고 나가자꾸나. 배가 든든해야지.”

할아버지는 소찬이에게 밥을 준비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냉잇국이 끓는 소리가 소찬이의 입을 열었습니다.

“어? 근데 달력에 있는 숫자가 빨간색이에요! 4월 1일인데.”

할아버지는 인자한 표정으로 소찬이에게 말합니다.

“이 할애비 얘기가 듣고 싶으냐?”

“네! 빨리 들려주세요!”

할아버지는 소찬이를 무릎에 앉히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깐 거의 100년 전쯤 이야기일거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이지.”

“하나, 둘, 셋.....”

“허허, 정말 긴 시간이지.”

할아버지는 한참동안 뜬을 들인 뒤,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때는 일제강점기였단다. 생활하면서 한국말도 못 쓰게 하고 한국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겼지. 어느 날, 일본군들이 우리 마을에 왔단다. 좋은 곳에

쓰겠다면서 마을의 사람들을 데려가고, 소도 끌고 가고 그랬단다. 할아버지 집도 마찬가지로였다. 그 나쁜 일이 하루, 이틀을 넘어 1년씩이나 계속되니깐 사람들 마음은 펄펄 끓고 있었지.”

“진짜요? 일본 사람들, 진짜로 나쁜 사람들이었네요.”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밥상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소찬이도 주섬주섬 수저를 놓았습니다. 밥상이 다 차려지자 할아버지는 다시 말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말했더라. 아! 그 부분까지 말했지. 사람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단다. 가족처럼 키운 소들이 잡혀가는 것이 너무나도 분하고 억울했지.”

“정말 나쁜 사람들이예요!”

“그럼 그럼. 사람들은 일본군과 맞서 싸울 방법을 궁리해냈지. 마침 서울에서도 이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단다. 그래서 우리들은.....”

소찬이가 밥을 먹는 모습을 보고는 할아버지는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사람들은 태극기를 만들기 시작했단다. 피로 태극기를 그린 사람들도 있고, 자수로 태극기를 놓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손바닥이 찍힌 태극기도 있었단다.”

“정말요.....? 피로 썼다고요?”

“그만큼 독립에 대한 의지가 하늘로 솟구쳤단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날이 왔단다. 사람들은 읍내에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지. 평화적인 방법으로 만세 시위를 하려고 말이지.”

“진짜 영화 같은데... 저 TV봐도 되요? 오늘 재미있는 만화가 나온다고요.”

“윤석아, 어른 말은 끝까지 듣는 거야.”

“죄, 죄송해요.”

“알았으면 됐다. 시위를 하던 도중, 일본군이 우리들에게 총칼을 휘두르기 시작한 게야.”

“어떻게 그런 일이.....”

“사람들은 그래도 ‘대한독립만세!’ 를 외쳤단다. 함성소리가 횡성 전체를 다

메우는 것 같았어. 하지만 그만큼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 씩씩한 미소가 번져나갔습니다. 소찬이는 TV를 틀었습니다. 채널을 돌리던 중, 횡성에서 일어나는 4.1만세운동 퍼포먼스가 일어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소찬이는 뭉치를 곰곰이 생각하더니, 할아버지에게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가요. 네?”

할아버지는 아무 말이 없으셨습니다. 옆모습이 정말 슬퍼 보인다고 소찬이는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내 소찬이에게 말했습니다.

“소찬아, 같이 나가자꾸나.”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무래도 그날의 함성이 들리는 것 같아 보입니다. 소찬이도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둘은, 100년 전의 함성이 울려 퍼진 거리로 걸어 나갔습니다.



## 역사의 나이트

강원도 황성군 원순진

‘역사는 기록되는 게 아니라 기억되어야 한다.’

이 명제에 대한 이야기는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가야 한다. 나는 그때 서울 큰 병원 암 병동 간호사였다. 벌써 몇 차례 항암치료를 위해 입원중인 한 할아버지 환자가 대뜸 물어왔다.

“고향이 어디유?”

나이 든 환자들의 흔한 질문이었다. 할 일도 많은데 고향에 대한 질문이라니, 황성이라고 말하면 또 얘기가 길어질게 뻔했다. 홍성? 아니면 홍천쫄인가? 아니면 아이고 두메산골 거기도 사람이 사는가?

“원주예요”

“아, 원주 어디쫄이유?”

한 번 더 캐물을 줄은 생각 못 했다.

“아니, 황성이예요.”

결국 사실대로 말한 내게 할아버지는 어디서 힘이 솟았는지 버럭 화를 내며 침상에서 튀어나올 듯 몸을 일으켰다.

“격렬히 항거했던 독립만세운동의 중심지인 황성을 자랑스럽게 여겨야지. 간호사 양반은 시방 장렬히 순국한 선열에 대한 모독을 한겨!”

그제서야 수액거치대에 늘 걸려 있던 검은 모자의 반짝이는 기념 뺨지가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보니 유난히 병문안객이 많았던 그 할아버지는 아우내장터로 유명한 천안 병천의 독립유공자 후손이셨다.

태어나보니 아버지가 독립운동으로 옥고를 치르다 백일도 되기 전 돌아가서 홀어머니 곁에서 민족의 독립, 항일정신 등에 대한 남다른 의식을 품고 살아오신 분이셨다.

“자랑스러워하시게. 감사하시게. 그분들의 뜻을 기억하시게...”

퇴원하시던 날 내 손을 잡고 간곡히 하시던 말씀이 쓰고 계신 모자의 그 뺏지들처럼 내 맘에 지금도 빛나고 있다.

운명이었을까, 그 뒤 나는 직장을 옮겨 천안에 있는 수련시설 의무실에서 일하게 됐는데 바로 옆이 독립기념관이었다. 업무상 수련생들과 그곳으로 출장같은 일이 많았는데 수많은 전시물 중 단 한 장의 사진 앞에 머물게 됐다.

‘임진왜란 이후로 수탈과 횡포를 당해온 황성의 군민들은 꺾이지 않는 기개와 하나 된 정신으로...’

흑백사진 밑에 빼곡히 적힌 소개 글 중 ‘황성’이란 글자가 온몸을 훑고 지나가고 있었다. 내 고향, 황성. 내가 시작되고 나를 ‘나’ 일 수 있게 해준 곳.

그곳을 떠나와서야 비로소 그곳을 알게 되다니, 회한이 밀려왔다. 그리고 근처 아우내장터와 유관순기념관도 가보았다.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초라하기까지 한 시골장터가 만세운동의 역사적 현장이었구나 생각하니 오히려 평범과 초라함이 주는 심오함이 더 크게 다가왔다.

‘이곳 어딘가에서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또 그의 아버지가 죽어 갔겠구나...’

전에 모르던 비통함과 애절함에 눈물이 흘렀다. 그 당시 나는 결혼을 해 아이를 품고 있었던 때였다. 그 후, 나는 다시 내 고향 황성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어느덧 세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내가 사는 집은 삼일공원 바로 앞이라 미세먼지가 심한 날도 나는 마스크를 쓰고 매일 공원을 돌며 운동을 한다. 36년 전, 함부로 올라타고 매달리며 놀았던 3.1운동 기념비와 만세운동 중 헌병에 총살당한 시신의 피로 물들며 그 역사를 지켜 본 느티나무, 그리고 늦었지만, 그 의미를 되살린 4.1 황성군민만세운

동기념비까지 빠짐없이 인사를 나눈다.

며칠 전엔 고모 큰아이가 4.1만세운동기념식에서 유공자분들께 대표로 헌화하게 되었다며 자랑스러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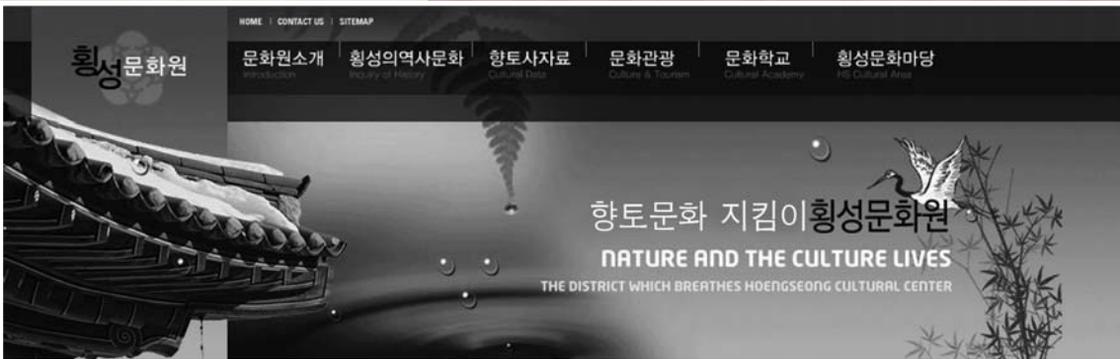
초등생인 둘째, 셋째는 백일장에 같이 나가자고 해서 남편까지 신청서를 내게 됐다. 우리 다섯 식구가 모두 하나의 마음이 된 감사한 시간이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건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역사는 기념관을 통해, 기념비를 통해 기록되어왔다. 그러나 나와 같이 그 의미를 모르고 지나쳐 온 경우라면 그 역사의 의미는 무색할 뿐이다.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 오래도록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 VI. 문화원 소식



※ 2019년 문화원 사업실적

# 2019 문화사업실적

## 3.1운동 「거룩한 함성, 횡성」에 퍼지다!

### ♣ 4.1횡성군민만세운동 100주년 기념 행사

횡성문화원은 4.1횡성군민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그날의 의미를 진지하게 되살려 애국애족의 정신을 함양시키 나가고자 4.1횡성군민만세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하였다.

- ▶ 일시: 2019. 4. 1.(월) 10:00 ~
- ▶ 장소: 횡성삼일공원
- ▶ 주요내용

구 분	행 사
기념물 헌 화	- 헌화 및 분향(행사장) - 독립운동 기념물 헌화 및 분향(읍·면)
기념행사	- 식전 넉풀이 행사 - 제100주년 4.1횡성군민만세운동 기념식
부대행사	- 시가행진 및 퍼포먼스 - 군민의 종 타종 - 김순이 여사 주막 재현



#### ▶ 4.1 횡성군민만세운동 100주년 기념식



### 지역사회문화사업

#### ♣ 전시회

##### ▶ 2019 횡성문화원 문화학교 수강생 작품 전시회 (12.10~)

횡성문화원은 횡성문화원 2층 갤러리에서 문화학교 수강생들이 한해를 마무리하고 배운 과정을 작품으로 보여주는 문화학교 수강생 작품 전시회를 가졌다. 서예(한글, 한문, 문인화)와 서각교실에서 1년 동안 배우고 익혀 만든 작품 67점이 전시되어 문화원을 찾는 사람들의 관심과 큰 호응을 받았다.





### ♣ 문화예술공연

▶ 41횡성군민만세운동 100주년기념토크쇼및문화예술공연(3.27) 횡성문화원발표회장  
 횡성문화원은 4.1횡성군민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그날의 의미를 진지하게 되살리코자 토크쇼와 문화예술공연(역사인물서막공연)으로 횡성군민의 자긍심을 드높이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였다. 1부에서는 「민중의 힘으로 이뤄낸 3.1운동과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윤여정 강사의 토크쇼 강연이 진행되었으며, 2부에는 「최양옥! 독립을 위한 몸부림」이라는 주제로 만세운동에 앞장섰다 체포되었으며 우여곡절 끝에 탈출에 성공하여 조국 광복까지 모진 역경을 무릅쓰고 독립운동에 몸 바친 횡성 항일 운동의 중심인물인 최양옥 지사의 독립운동기를 그린 역사인물 서막공연이 진행되었다. 공연은 김영아 전통예술단과 (사)문화프로덕션 ‘도모’가 맡아 최양옥 지사와 함께 했던 군민들의 독립운동 역사를 되새겨 보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 향토문화교육사업

### ♣ 문화유적지순례

▶ 황성문화원은 향토문화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선조들의 소중한 문화유산과 전통문화를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매년 문화유적지를 답사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5차례에 걸쳐 황성고등학교 학생, 민족사관고등학교 학생, 문화원 회원 및 문화학교 수강생, 황성군 귀농귀촌인들과 함께 관내·외 문화유적지 답사를 다녀와 우리의 전통문화와 우수한 문화유산을 폭넓게 접하고 익힐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 〈 관내 문화유적지 답사 〉

- 1차 : 2019. 5. 16.(목) 황성고등학교 25명
- 2차 : 2019. 5. 18.(토) 민족사관고등학교 126명
- 3차 : 2019. 6. 12.(수) 회원 · 문화학교수강생 · 황성군 귀농귀촌인 30명
- 4차 : 2019. 11. 11.(월) 회원 · 문화학교수강생 40명



〈 1차 황성고등학교 〉



〈 1차 황성고등학교 〉



〈 2차 민족사관고등학교 〉



〈 2차 민족사관고등학교 〉



〈3차 관내문화유적지 답사〉



〈3차 관내문화유적지 답사〉



〈4차 관내문화유적지 답사〉



〈4차 관내문화유적지 답사〉

### 〈관외 문화유적지 답사〉

- 일 시 : 2019. 5. 9.(목) 09:00 ~
- 답 사 지 : 충북 단양군 문화유적지 일원
- 참가대상 및 참여인원 : 문화원 회원 및 문화학교 수강생 약 150여명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구인사〉

## 향토문화보존전승사업

### ▶ 제24회 강원도 사물놀이경연대회 (9.10.)

제24회 강원도 사물놀이경연대회는 「세대공감, 자연&사물울림의 하모니」라는 주제로 강원도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고 춘천문화원이 주관하여 춘천교육대학교 석우관 석우홀에서 개최되었다. 2017년도 대상팀인 동해문화원 빛오름팀의 삼도설장구놀이 식전공연으로 시작된 사물놀이경연대회는 강원도 시·군별 16개 문화원 팀의 경연이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2018년도 대상을 수여한 춘천문화원 모리팀의 축하공연과 춘천실버농악팀과 화천청소년풍물단의 초청공연이 있었다. 횡성문화원 〈어사매풍물패〉는 영남풍물로 참가하여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 ▶ 향토문화기록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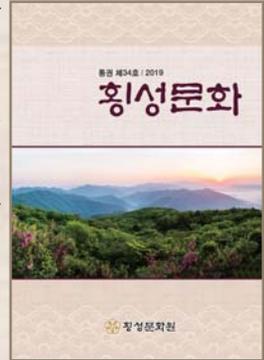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유·무형 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향토문화유적등과 각종 문화행사 자료들을 촬영하여 후손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기록, 보관하고 있다.

## 애향활동전개사업

### ♣ 애향지 발간

#### ▶ 황성문화 발간

황성문화원 애향지 통권 제34호로 발간되는 『2019 황성문화』는 애향활동전개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문화 창달과 군민들의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향토문화 진흥을 위해 발간되었다. <향토문화 창달을 위한 향토문화의 연구, 생활문화와 전통윤리, 황성사람 황성이야기, 문화유산을 찾아서, 문예마당, 문화원 소식> 등을 수록해 전국문화원과 문화원 회원 및 관내기관 및 단체, 공공도서관, 자료실 등에 배포하여 황성을 알리는 애향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 ♣ 향토인물선양

#### ▶ 4.1 황성군민만세운동 100주년 기념 전국 한글백일장 관련 (3.30)

황성문화원은 4.1 황성군민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정신



을 기리고 백일장을 통하여 그날의 의미를 진지하게 되살려 애국애족의 정신을 함양시키는 교육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41횡성군민만세운동 100주년 기념 전국 한글백일장』을 개최하였다. 3월30일 횡성문화원 발표회장에서 개최된 전국 한글백일장은 전국초등학생(3학년이상), 중·고등학생, 대학생, 일반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약 230여명이 참가해 시부문 41명, 산문부문 40편을 입상자로 선정해 시상하였다.

## 시설관리유지사업

문화원 소식을 빠르게 전하고 다양한 문화정보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문화원 홈페이지를 운영, 유지관리하고 있다. 또한 사무실 환경개선을 통해 방문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개선하고 업무 능력 또한 향상시켜나가고 있다.



## 향토사료조사사업

### ♣ 향토사료 수집 및 자료집 발간

횡성에는 조선시대 태종, 세종 임금의 강무행차와 관련되어 있는 각립사, 태종대 등 여러 관련 유적지와 많은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다. 이러한 향토사는 드러난 것보다 묻혀져 있는 것이 훨씬 많으므로 횡성문화원에서는 이를 발굴하여 횡성지역의 정체성을 높이고 역사적 교훈과 가치를 조명하고자 향토



사료 제35집 「횡성 각립사와 태종의 강무 행차 재조명」을 발간하였다. 횡성 지역에서의 조선시대 태종, 세종의 강무행차를 자세하게 소개하며 이 또한 횡성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역사문화자원임을 전한다.



향토사료 제36집 「향토지를 통해 본 횡성군」은 역사 속 특히 16세기 이후부터 근대에 이르는 시기의 횡성은 어떤 이미지였는가를 알아보고, 400여 년 동안 역사 속에서의 횡성과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어떻게 그렸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이에 신증동국여지승람 (1530, 대동지지 포함), 여지도서 (1757~1765, 횡성현읍지(1783), 횡성군읍지(1826), 관동지(1830), 관동읍지(1871), 강원도지(1940) 등 횡성의 여러 읍지를

번역·정리하여 근대의 횡성을 이해하게 하여 후손들에게 큰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 횡성군민에게 애향심과 자긍심도가질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였다.

올해 발간된 향토사료집은 향토사 발굴 선양을 위해 전국문화원, 유관기관·단체, 공공도서관, 사료연구 기관 및 자료실에 배포하여 고장과 나라사랑의 향토지로 활용 할 수 있게 하였다.

## ♣ 향토사 연구

### ▶ 제29회 강원도 향토문화 연구논문 발표회 (6.19.)

지역의 향토사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방법의 일환으로 매년 “강원도 향토문화 연구 논문 발표회”가 개최된다. 도내 각 지역에 산재해 있으면서도 관리소홀로 점차 잊혀 저기는 향토문화 자료를 발굴, 재조명하며 전통문화의 정립과 선양을 통하여 향토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강원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개최되는 강원도 향토문화 연구논문 발표회는 금년에는 고성문화원이 주관하여 고성군 국회고성연수원에서 열렸다. 횡성문화원에서는 민준식 사무국장이 「3·1운동 100주년 가치 정립을 위한 항일 독립운동가의 생애고찰 - 대한공명단 최양옥 지사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참가하여 노력상을 수상하였다.



▶ 관외 향토문화 비교답사 (6.26 ~ 6.27)



횡성문화원에서는 타 지역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폭넓게 접하고 익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우리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를 보전·계승·발전 시켜나기는데 이바

지하고자 관의 향토문화 비교답사를 해오고 있다. 금년은 황성문화원 임직원 25명이 남도문화권(남해·사천 일원)을 답사하여 금산 보리암, 해오름예술촌, 항공우주박물관, 진주성 등을 방문하여 향토문화유적들을 비교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 ▶ 관내 향토사료발굴 자료조사 (9.27.)



황성문화원에서는 향토사료조사사업의 일환으로 황성관내 향토문화유적지를 답사하고 자료를 수집 및 연구하여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보존 및 계발시켜 나가고자 한다. 금년에는 황성군 공근면의 지명의 계기가 된 정종영 묘 및 별묘, 신도비 등 황성지역 향토인물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장송모도자연연구원을 답사하여 선조들의 일이 담긴 옛 도자기와 그를 재현한 작품들을 감상하였다.

## 문화학교운영사업

### ▶ 황성문화원 문화학교 운영 (3.11.~12.13.)

황성문화원은 매년 지역주민들의 문화 복지 실현을 위해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2019년 제20기 황성문화원 문화학교는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 참여기

회를 확대하고 문화적 감성 계발 및 지식기반을 창출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으로 사회적 역량을 높여 나가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으며 각 대회에 출연하여 많은 상을 수상하는 등 어느 해보다도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 〈2019년도 운영현황〉

강좌명	강좌내용	강사명	교육기간	수강인원	수료인원
서예교실(한글)	한글필법	김해동	3.11. ~ 12.13.	18	15
서예교실(한문)	한문필법	전금용	3.11. ~ 12.13.	20	17
서예교실(문인화)	문인화필법	전금용	3.11. ~ 12.13.	25	16
어르신풍물교실	장구,북,징,꽝과리 사물 및 기능	김혜숙	3.11. ~ 12.13.	18	12
국악(판소리)	국악가락 및 창법	박양순	3.11. ~ 12.13.	20	13
한국무용(기본부)	한국무용(기본부)춤사위 실기	김영아	3.11. ~ 12.13.	13	9
실버에어로빅	건강체조 실기	조미경	3.11. ~ 12.13.	28	26
가아금 교실	가아금 기초기법 및 가락	이영	3.11. ~ 12.13.	11	8
우쿨렐레 교실	우쿨렐레 연주기법	신은경	3.11. ~ 12.13.	14	8
생활영어 교실	생활영어 및 여행영어 기초	송혜영	3.11. ~ 12.13.	23	10
사물놀이(야간)	장구,북,징,꽝과리 사물 및 기능	송세영	3.11. ~ 12.13.	10	9
난타교실(야간)	난타 기초 및 퍼포먼스	최영아	3.11. ~ 12.13.	16	12
서각교실(야간)	전통서각, 현대서각, 죽공예	곽현주	3.11. ~ 12.13.	18	8
색소폰(야간)	색소폰 기초 및 연주기법	김중은	3.11. ~ 12.13.	21	8
합계	14개 과목		8개월	255	171



서예(한글) 교실



서예(한문) 교실



서예(문인화) 교실



어르신풍물 교실



국악(판소리) 교실



한국무용(기본무) 교실



실버에어로빅교실



가야금 교실



우쿨렐레 교실



생활영어교실



사물놀이(야간) 교실



난타(야간) 교실



서각(야간) 교실



색소폰(야간) 교실



문화학교 개강식



문화학교 종강식

### 〈 제20기 문화학교 운영성과 〉

- 제22회 김삿갓문화제 전국휘호대회 - 장원1명, 특선3명, 입선2명
- 제9회 의암 류인석 전국휘호대회 - 특선2명, 입선3명
- 제1회 전국 효석 휘호대회 - 우수상1명
- 제21회 퇴계이황선생추념 전국 서예대회 - 특선2명
- 제7회 회헌(안향)선생 휘호대회 - 특선2명, 입선5명
- 제29회 김생전국휘호대회 - 대상1명, 입선2명
- 제9회 세종대왕 전국한글휘호대회 - 입선2명
- 제1회 자작고개 전국휘호대회 - 입선3명
- 제29회 강원서예대전 - 특선1명, 입선4명
- 제14회 운곡서예문인화대전 - 우수상1명, 특선3명, 입선2명
- 제15회 탄허대중사 선서함양 전국휘호대회 - 특선3명, 입선1명

- 제22회 김삿갓문화제 전국휘호대회 - 입선1명
- 제17회님의침묵 서예대전 - 장려상1명
- 제28회 경기도 서예대전 - 특선1명, 입선2명
- 제28회 강원여성문예경연대회 - 장려상1명
- 제9회 의암 류인석 전국휘호대회 - 특선1명, 입선1명
- 제20회 석봉 한호선생 전국휘호대회 - 입선2명
- 제17회 님의침묵 서예대전 - 입선 1명
- 제22회 김삿갓문화제 전국휘호대회 - 입선4명
- 2019 다이내믹댄싱카니발 스페셜부문 최우수상 수상
- 4.1횡성군민만세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퍼포먼스 재연 출연
- 제9회 대한에어로빅협회장배 전국에어로빅대회 어르신부 1위
- 제14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에어로빅대회 어르신부 1위
- 제24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에어로빅대회 어르신부 1위
- 2019 어르신 에어로빅 페스티벌 1위
- 2019 AGC힙합대회 어르신부 카디오힙합 1위
- 제24회 강원도 사물놀이 경연대회 장려상
- 2019 실버문화페스티벌 사이니스타를 찾아라 강원오디션 라이징스타상

## 문화사랑방운영사업

### ▶ 여름방학 전통문화 체험학습교실 (7.29.~8.2./문화교실 및 문화사랑방)

횡성문화원에서는 문화사랑방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여름방학 기간 중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통문화 체험학습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 고장의 어린이들에게 전통문화를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향토문화를 계승·발전 시켜 나가는데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올해에는 부채 만들기 체험, 국악 배우기(판소리·남도민요), 부채춤 배우기, 전래놀이 배우기, 사물놀이 배우기, 전통 떡 만들어 먹기 등의 수업이 있었으며 관내 초등학교생 60여명이 1주간 참여하여 우리의 전통문화를 접하고 익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 관외 전통문화 현장학습 (10.24~10.25.)

횡성문화원에서는 문화사랑방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문화 발전과 향토문화진흥을 위하여 문화원회원과 문화학교 수강생을 대상으로 우리의 전통문화와 우수한 문화유산 등을 폭넓게 접하고 익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매년 관외 전통문화 현장학습을 다녀오고 있다. 금년에는 진주, 거제, 부산 등 경상문화권 일원을 1박2일 답사하여 진주성, 바람의 언덕,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부산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등을 둘러보며 문화유산을 경험하고, 일제의 강제동원 실상을 규명함으로써 성숙된 역사의식을 고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 일 시 : 2019. 10. 24.(목) ~ 10. 25.(금) / 1박2일
- 답사지 : 진주, 거제, 부산(경상문화권) 일원
- 참가대상 및 참여인원 : 문화원 회원 60여명

## 기타지원문화사업

▶ 2019년 제12회 황성평생학습축제 전통혼례 (09.21./ 문화체육공원 내)  
 황성문화원에서는 제12회 황성평생학습축제를 맞이하여 아름다운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계승해 나가고자 「제12회 황성평생학습축제 전통혼례」를 개최하였다. 황성문화원 문화학교 가야금반, 한국무용교실의 식전 경축공연으로 시작되고 황성문화원 풍물패의 앞놀이 마당과 함께 진행된 이번 전통혼례는 예식장 혼례식이 풍속화 되어 보기가 어려워진 전통혼례 예식을 진행함으로써 평생학습축제를 찾은 많은 주민들이 전통혼례의 의미와 절차를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2019년 횡성 어르신 노래자랑 (5.22. / 횡성문화원 발표회장)



횡성문화원에서는 문화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들에게 숨겨진 끼와 장기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과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9년 황성 어르신 노래자랑」을 개최하였다. 황성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5월 22일 황성문화원에서 열린 황성 어르신 노래자랑은 총 29팀이 참가하였으며 이중 <대상 1명, 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3명, 인기상 3명, 참가자상 5명>의 15팀의 입상자들에게 시상금과 부상을 수여하였다.

▶ 전통국악예술대공연 (11.21. / 황성문화예술회관)

지역문화발전과 향토문화진흥을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전통국악예술단을 초청·공연함으로써 다양한 문화혜택을 제공하고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보급을 전개하여 아름다운 우리문화 복지사회를 향상시켜 나가고자 “2019 황성군민을 위한 전통국악예술대공연”이 황성문화원의 주관 아래 11월 21일 황성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금년도 전통국악예술대공연은 국가무형문화재 제5



호 판소리 예능보유자 신영희 선생님의 판소리를 시작으로 비나리, 한국무용 (부채춤), 경기민요, 허튼가락, 국악신동, 한국무용(진도북춤), 남도민요, 뽕과 전 등 여러 장르의 예술 공연으로 진행되어 황성군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 횡성문화 통권 제34호 편 · 집 · 후 · 기



4.1 횡성군민 만세운동 100주년인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횡성문화』 통권 제34호를 발간하게 됨을 횡성문화원 임직원 및 회원님들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횡성문화』지(誌)가 발간될 수 있도록 주옥같은 원고를 보내 주시고, 참여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향토문화연구의 일환으로 우리 지역의 역사적 인물·사건·사실들을 다룬 원고들은 횡성군민들이 횡성인 으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갖게 하는데 기여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철새와 텃새에 대한 조사연구는 우리들의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새들의 서식환경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횡성의 젓줄인 섬강 변에서 반딧불이 춤추고, 사시사철 산새들이 지저귀는 아름다운 횡성의 자연환경을 꿈꾸어 봅니다.

아무쪼록 『횡성문화』지(誌)가 향토문화의 유산을 발굴하고 전승하여 지역문화를 창출하는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정선된 원고와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편집을 위해 소통하며 함께 수고하여 주신 편집위원님들께 고마움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20

횡성문화 통권 제34호 편집위원회

위원장 **김 정 예**

## \* 문화원 회원 입회안내 \*

횡성군 관내 성인 남·여 거주자로 학력 및 직업 등의 자격 제한없이 수시로 누구나 입회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입회비 : 10,000원**

**연회비 : 30,000원**

**횡성문화원 ☎ 343-2271**

- 편집위원장 : 김정예
- 편집위원 : 박현숙, 정재영, 한상균, 현원명

**2019 횡성문화** (통권 제34호)

발행일 \_ 2019.12. 20

발행처 \_ 횡성문화원 ☎ (033) 343-2271

발행인 \_ 박순업

기 획 \_ 민준식

디자인 · 제작 \_ 서원기획 ☎ (033) 343-2404

※ 본 책자는 비매품입니다.

※ 본 책자의 일부 내용은 횡성문화원의 견해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